

# 2022 대한민국 **SDG4** 이행현황 보고서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unesco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



2022  
대한민국 **SDG4**  
이행현황 보고서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 목차

---

I. 발간사	5
II. SDG4(교육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 개요	6
III. 2022년 SDG4 10대 뉴스	20
IV. SDG4 세부목표별 이행현황 점검 및 제언	29
• SDG4.1 (초·중등교육)	30
• SDG4.2 (영유아 보육·교육)	36
• SDG4.3 (고등교육)	42
• SDG4.4 (직무스킬)	52
• SDG4.5 (교육형평성: 성평등, 장애학생, 탈북학생)	57
• SDG4.6 (성인 문해·수리력)	84
• SDG4.7 (지속가능발전·세계시민교육)	89
• SDG4 모니터링	95
• 교육 ICT	100
V. SDG4 국내 주요 연구 및 발간물	108
VI. 2022년 SDG4 국제 주요 문서 (국문번역본)	115
• 제2차 아태지역 교육장관회의(APREMC II) 결과문서: 방콕 성명	
• 유엔 교육정상회의(TES) 유엔사무총장 비전성명	
• 제7차 세계성인교육회의(CONFINTEA VII) 결과문서: 마라케시 실행계획	
• 제2차 세계영유아교육회의 결과문서: 타슈켄트 선언	

---

\* 일러두기

- 동 출판물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은 교육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필자의 소속 및 직함은 2022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 I. 발간사

## “2022 대한민국 SDG4 이행현황 보고서”를 발간하며

2015년 유엔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달성해야 할 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수립한 이후, 국제사회는 적지 않은 노력을 하였고 이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짧은 시간 내에 이룬 경제사회적 발전의 원동력 중 하나로 교육을 손꼽을 만큼 교육을 주요 정책으로 삼아왔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유엔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참여, 2015 세계 교육포럼 인천 개최, ‘교육의 미래 국제위원회’ 전문가로 참여 등 국제사회의 교육 의제 수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교육강국으로 인식되고 부러움을 받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적으로는 여전히 많은 쟁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SDG4 이행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것은 세부목표나 지표 달성 여부에 대한 단순한 논의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는 국가 정책이 포괄적으로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교육의 미래(Futures of Education) 등 유네스코 교육 의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보고서는 단순히 정량적 설명이 아닌, 해당 주제의 현황 및 정책 제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ICT, 모니터링 등 SDG4 세부 목표 주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국내 교육 현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주제들을 포함하여 작성했습니다.

앞으로도 SDG4-교육2030협약체를 통해 보고서 등의 형태로 우리나라의 SDG4 이행 노력을 기록하고, SDG4 모니터링과 이행축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본 보고서 발간이 SDG4에 대한 국내 교육계의 관심과 인식을 확대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번 보고서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 특히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과 유관 부서, 그리고 SDG4-교육2030협약체 전문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경구

## II. SDG4(교육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 개요

### 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5년 9월, 유엔(UN) 총회는 “우리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채택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인류가 2030년까지 달성할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수립했다. SDGs는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협력(Partnership)의 5P 원칙에 따라 17개의 목표,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SDGs의 17개 목표는 아래의 [표1]과 같다.

SDGs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2000~2015)를 계승·보완하여, △빈곤해소를 넘어,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적용되는 지속가능발전을 개발담론의 중심으로 두어 보편성을 확장하고,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환경뿐만 아니라, 생산·소비, 제도·거버넌스 등의 영역까지 확대하여 인식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표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DG 목표	내용	영문 원문
SDG1	빈곤 종식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End poverty in all its forms everywhere
SDG2	기아 종식 기아 해결, 식량 안보와 영양상태 개선 달성, 지속가능한 농업 증진	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SDG3	건강과 웰빙 모두를 위한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SDG4	양질의 교육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SDG5	성평등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SDG6	깨끗한 물과 위생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시설의 이용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
SDG7	적정가격의 깨끗한 에너지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깨끗한 에너지 접근의 보장	Ensure access to affordable, reliable, sustainable and modern energy for all

SDG 목표	내용	영문 원문
SDG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증진	Promote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SDG9	산업, 혁신과 인프라 회복력 있는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장려	Build resilient infrastructure, promote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ization and foster innovation
SDG10	불평등 감소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Reduce inequality within and among countries
SDG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SDG12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SDG13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응하는 긴급 행동	Take urgent action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SDG14	해양 생태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DG15	육상 생태계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가능한 삼림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 및 복구,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Protect, restore and promote sustainable use of terrestrial ecosystems, sustainably manage forests, combat desertification, and halt and reverse land degradation and halt biodiversity loss
SDG16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를 위한 정의에 대한 접근성 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는 포용적인 제도 구축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SDG17	SDGs를 위한 파트너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 수단 강화 및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나. SDG4 및 세부목표

2015년 대한민국 인천에서 개최된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에서 국제사회는 2000년부터 이행한 “모두를 위한 교육(EFA; Education For All)” 목표의 달성을 점검했다. 2030년까지 새로이 달성할 국제사회의 교육의제의 비전과 이행 의지를 담아 “인천선언(Incheon Declaration)”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교육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4) 형성에 기여했다.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네 번째 목표, 즉 SDG4는 교육분야 목표로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이다. SDG4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하나인 동시에, 지속가능발전목표 전체의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목표로 인식될만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SDG4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으로서, [표2]와 같이 7개의 세부목표와 3개의 이행수단 관련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표2] SDG4의 10개 세부목표

세부목표	내용	영문 원문
SDG4.1	<b>초·중등교육</b>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평한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를 보장한다.	By 2030, ensure that all girls and boys complete free, equitable and quality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leading to relevant and effective learning outcomes
SDG4.2	<b>영유아 보육·교육</b>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에게 양질의 영유아 발달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며 이들의 초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By 2030, ensure that all girls and boys have access to quality early childhood development, care and pre-primary education so that they are ready for primary education
SDG4.3	<b>직업기술교육·고등교육</b>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비용의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By 2030, ensure equal access for all women and men to affordable and quality technical, vocational and tertiary education, including university
SDG4.4	<b>전문·직업기술</b>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 직업 기술 등 적합한 기술을 지닌 청소년과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늘린다.	By 2030, substantially increase the number of youth and adults who have relevant skills, including technical and vocational skills, for employment, decent jobs and entrepreneurship
SDG4.5	<b>형평성</b>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	By 2030, eliminate gender disparities in education and ensure equal access to all levels of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for the vulnerable, in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indigenous peoples and children in vulnerable situations
SDG4.6	<b>성인 문해·수리력</b>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수 성인 남녀의 문해력과 수리력 성취를 보장한다.	By 2030, ensure that all youth and a substantial proportion of adults, both men and women, achieve literacy and numeracy
SDG4.7	<b>지속가능발전·세계시민교육</b>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습득을 보장한다.	By 2030, ensure that all learners acquire the knowledge and skills needed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among others, through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ustainable lifestyles, human rights, gender equality, promotion of a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 global citizenship and appreciat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of culture's contribu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세부목표	내용	영문 설명
SDG4.a	<b>학습환경</b> 아동, 장애, 성 인지적인 교육시설을 건립하고 개선하며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Build and upgrade education facilities that are child, disability and gender sensitive and provide safe, non-violent, inclusive and effective learning environments for all
SDG4.b	<b>장학금</b>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발국,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선진국이나 타 개발도상국에서의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 및 공학분야를 포함한 고등교육에 등록하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을 실질적으로 확대한다.	By 2020, substantially expand globally the number of scholarships available to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least developed countrie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African countries, for enrolment in higher education, including vocational training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technical, engineering and scientific programmes, in developed countries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SDG4.c	<b>교원</b>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에서 교사훈련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자격을 갖춘 교사 공급을 실질적으로 늘린다.	By 2030, substantially increase the supply of qualified teachers, including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eacher training in developing countries, especially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 다. SDG4 세부지표

2015년 3월, 27개 국가 통계청의 참여로 전문가그룹(IAEG-SDGs)이 구성되어 SDGs 이행 모니터링을 위하여 글로벌 지표 개발을 착수한 이래, 지표에 대한 수정·보완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SDG4에 대해서는 유네스코통계원(UIS)을 중심으로 2016년 “SDG4-교육 2030 지표 전문가 협력그룹”(Technical Cooperation Group on the Indicators for SDG 4 – Education 2030; TCG)이 결성되어 SDG4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 TCG에 참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2015년 세계교육포럼의 개최국으로서 옹서버로 지속적으로 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글로벌 지표는 SDGs 이행현황을 모든 회원국이 공통으로 모니터링하여 전세계적 추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고, 주제별 지표는 각 회원국이 자국의 상황, 정책 우선순위, 전문적 역량, 데이터 이용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추가적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2021년 9월 기준 SDG4 세부지표는 [표3]과 같다.

**[표3] SDG4 세부지표 (2021년 9월 기준)**

(\* 음영 표시는 글로벌 지표, 흰색 바탕은 주제별 지표)

세부목표	세부지표	내용	영문 원문
교육 2030 실행계획	1.a.gdp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교육지출 비율	Government expenditure on education as a percentage of GDP
SDG 1.a	1.a.2	정부 총지출 대비 교육지출 비율	Proportion of total government spending on essential services (education)
SDG 4.1 초·중등교육	4.1.0	미래를 위한 준비를 갖춘 아동/청소년 비율(성별)	Proportion of children/young people prepared for the future, by sex
	4.1.1	(a) 초등학교 2 혹은 3학년 시점, (b) 초등학교 졸업학년 (c) 중학교 졸업학년에 (i) 읽기와 (ii) 수학분야에서 최소숙달 기준을 달성한 아동 및 청소년 비율	Proportion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a) in grades 2/3; (b) at the end of primary; and (c) at the end of lower secondary achieving at least a minimum proficiency level in (i) reading and (ii) mathematics, by sex
	4.1.2	교육완수율(초등, 전기중등, 후기중등)	Completion rate (primary education, lower secondary education, upper secondary education)
	4.1.3	최종학년 진급률(초등, 전기중등)	Gross intake ratio to the last grade (primary education, lower secondary education)
	4.1.4	학교밖 비율(초등, 전기중등, 후기중등)	Out-of-school rate (1 year before primary, primary education, lower secondary education, upper secondary education)
	4.1.5	졸업 과연령 아동 비율(초등, 전기중등)	Percentage of children over-age for grade (primary education, lower second- ary education)
	4.1.6	(a) 초등학교 2-3학년 (b) 초등학교 졸업학년 (c) 중학교 졸업학년의 국가 학습평가 시행	Administration of a nationally represen- tative learning assessment (a) in Grade 2 or 3; (b) at the end of primary education; and (c) at the end of lower secondary education
	4.1.7	법적으로 보장하는 (a) 무상, (b) 의무 초등 및 전기중등교육 연수(年數)	Number of years of (a) free and (b) compulsory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guaranteed in legal frameworks

세부목표	세부지표	내용	영문 원문
SDG 4.2 영유아 보육·교육	4.2.1	신체적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웰빙의 측면에서 발달 정도가 정상적인 24~59개월 아동의 비율(성별)	Proportion of children aged 24-59 months who are developmentally on track in health, learning and psychosocial well-being, by sex
	4.2.2	정규 초등학교 입학연령 전 1년 동안 체계화된 학습 참여 비율(성별)	Participation rate in organized learning (one year before the official primary entry age), by sex
	4.2.3	긍정적, 고무적 가정 학습 환경을 경험한 5세 이하 아동 비율	Percentage of children under 5 years experiencing positive and stimulating home learning environments
	4.2.4	유아교육·보육 총 취학률	Gross early childhood education enrolment ratio in (a) pre-primary education and (b) early childhood educational development
	4.2.5	법적으로 보장하는 (a) 무상, (b) 의무 유아교육 연수(年數)	Number of years of (a) free and (b) compulsory pre-primary education guaranteed in legal frameworks
SDG 4.3 직업기술교육· 고등교육	4.3.1	지난 12개월 동안 형식 및 비형식 교육·훈련에 참여한 청소년 및 성인의 비율(성별)	Participation rate of youth and adults in formal and non-formal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previous 12 months, by sex
	4.3.2	고등교육 총 취학률(성별)	Gross enrolment ratio for tertiary education by sex
	4.3.3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비율 (15-24세)(성별)	Participation rate in technical-vocational programmes (15- to 24-year-olds) by sex
SDG 4.4 전문· 직업기술	4.4.1	ICT 역량을 보유한 청소년 및 성인의 비율 (역량 유형별)	Proportion of youth and adults wit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skills, by type of skill
	4.4.2	디지털 문해력의 최소 숙달기준을 달성한 청소년/성인 비율	Percentage of youth/adults who have achieved at least a minimum level of proficiency in digital literacy skills
	4.4.3	청소년/성인의 교육 이수율 (연령집단별, 교육 단계별)	Youth/adult educational attainment rates by age group and level of education

세부목표	세부지표	내용	영문 원문
SDG 4.5 형평성	4.5.1	모든 교육 지표에 대한 형평성 지수 산출 (성별, 지역규모, 소득, 장애여부, 토착민 여부, 분쟁 발생 여부 등의 가용 데이터가 있는 경우 세분화)	Parity indices (female/male, rural/urban, bottom/top wealth quintile and others such as disability status, indigenous peoples and conflict-affected, as data become available) for all education indicators on this list that can be disaggregated
	4.5.2	a) 초등학교 저학년, b) 초등학교 졸업학년, c) 중학교 졸업학년 교육에서 수업 언어가 제1언어 혹은 모국어인 학생 비율	Percentage of students in a) early grades, b) at the end of primary, and c) at the end of lower secondary education who have their first or home language as language of instruction
	4.5.3	소외계층에 교육자원을 재분배하는 재정메커니즘의 존재 여부	Existence of funding mechanisms to reallocate education resources to disadvantage populations
	4.5.4	교육단계 및 교육재원별, 학생1인당 교육지출	Education expenditure per student by level of education and source of funding
	4.5.5	전체 원조 중 최저소득국가 대상 교육원조 비율	Percentage of total aid to education allocated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SDG 4.6 성인 문해·수리력	4.6.1	활용 가능한 (a)문해력과 (b)수리력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달성한 특정 연령 인구비율(성별)	Proportion of population in a given age group achieving at least a fixed level of proficiency in functional (a) literacy and (b) numeracy skills, by sex
	4.6.2	청소년/성인 문해율	Youth/adult literacy rate
	4.6.3	청소년/성인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Participation rate of illiterate youth/adults in literacy programmes
SDG 4.7 지속가능발전·세계시민교육	4.7.1	i)세계시민교육, ii)지속가능발전교육이 (a)국가교육정책, (b)교육과정, (c)교사교육, (d)학생평가에서 주류화되어 있는 정도	Extent to which (i)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ii)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 main-streamed in (a) national education policies, (b) curricula, (c) teacher education and (d) student assessment
	4.7.2	생활양식 기반의 HIV 및 성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비율	Percentage of schools that provide life skills-based HIV and sexuality education
	4.7.3	인권교육에 관한 세계 프로그램이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정도 (UNGA 결의 59/113에 따라)	Extent to which the framework on the World Programme on Human Rights Education is implemented nationally (as per the UNGA Resolution 59/113)

세부목표	세부지표	내용	영문 원문
	4.7.4	세계시민 및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보이는 중학생 비율	Percentage of students in lower secondary education showing adequate understanding of issues relating to global citizenship and sustainability
	4.7.5	환경과학 및 지구과학에 관한 숙달된 지식을 보이는 중학생 비율	Percentage of students in lower secondary showing proficiency in knowledge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geoscience
	4.7.6	국가교육정책 및 교육분야계획이 향후 국가교육체계에서 향상되어야 할 스킬을 인식하고 있는 정도	Extent to which national education policies and education sector plans recognize a breadth of skills that needs to be enhanced in national education systems
SDG 4.a 학습 환경	4.a.1	기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의 비율 (서비스별)	Proportion of schools offering basic services, by type of service
	4.a.2	최근 12개월에 괴롭힘을 경험한 (a)초등학교, (b)중학교 학생 비율	Percentage of students experiencing bullying in the last 12 months in a) primary, and b) lower secondary education
	4.a.3	학생, 교원, 기관 등에 대한 공격 발생 수	Number of attacks on students, personnel and institutions
SDG 4.b 장학금	4.b.1	장학금 명목의 공적개발원조 규모 (학문 영역 및 분야별)	Volume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lows for scholarships by sector and type of study
SDG 4.c 교원	4.c.1	최소 자격을 충족한 교사의 비율 (교육 단계별)	Proportion of teachers with the minimum required qualifications, by education level
	4.c.2	교육 단계별 학생 대비 훈련된 교사 비율	Pupil-trained teacher ratio by education level
	4.c.3	교육 단계 및 기관 유형에 따른 국가기준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교사의 비율	Percentage of teachers qualified according to national standards by education level and type of institution
	4.c.4	교육 단계별, 학생 대비 자격을 갖춘 교사 비율	Pupil-qualified teacher ratio by education level
	4.c.5	유사한 교육 수준을 요하는 타 직업 대비 교사의 평균 급여	Average teacher salary relative to other professions requiring a comparable level of qualification

세부목표	세부지표	내용	영문 원문
	4.c.6	교육 단계별 교사 감소율	Teacher attrition rate by education level
	4.c.7	연수 유형에 따른 최근 12개월 동안 직무연수를 받은 교사 비율	Percentage of teachers who received in-service training in the last 12 months by type of training

\* 출처: 유네스코통계원 (2021년 9월 기준, [http://tcg.uis.unesco.org/wp-content/uploads/sites/4/2020/09/SDG4\\_indicator\\_list.pdf](http://tcg.uis.unesco.org/wp-content/uploads/sites/4/2020/09/SDG4_indicator_list.pdf))

## 라. SDG4 국제이행체계:

### 세계교육협력체계 개편 및 SDG4-교육2030 고위급 운영위원회 출범

2015 세계교육포럼(Global Education Forum)에서 결정한 SDG4 실행계획에 따라, 유엔의 교육 전문기구인 유네스코는 SDG4 총괄기구(lead agency for SDG4-Education 2030)로서 역할하고, SDG4-교육2030운영위원회(SDG4-Education 2030 Steering Committee; SC)를 중심으로 정부와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과 함께 SDG4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국제협력을 이끌어 왔다. SDG4-교육2030운영위원회(SC)는 4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한국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 일본, 필리핀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표로 참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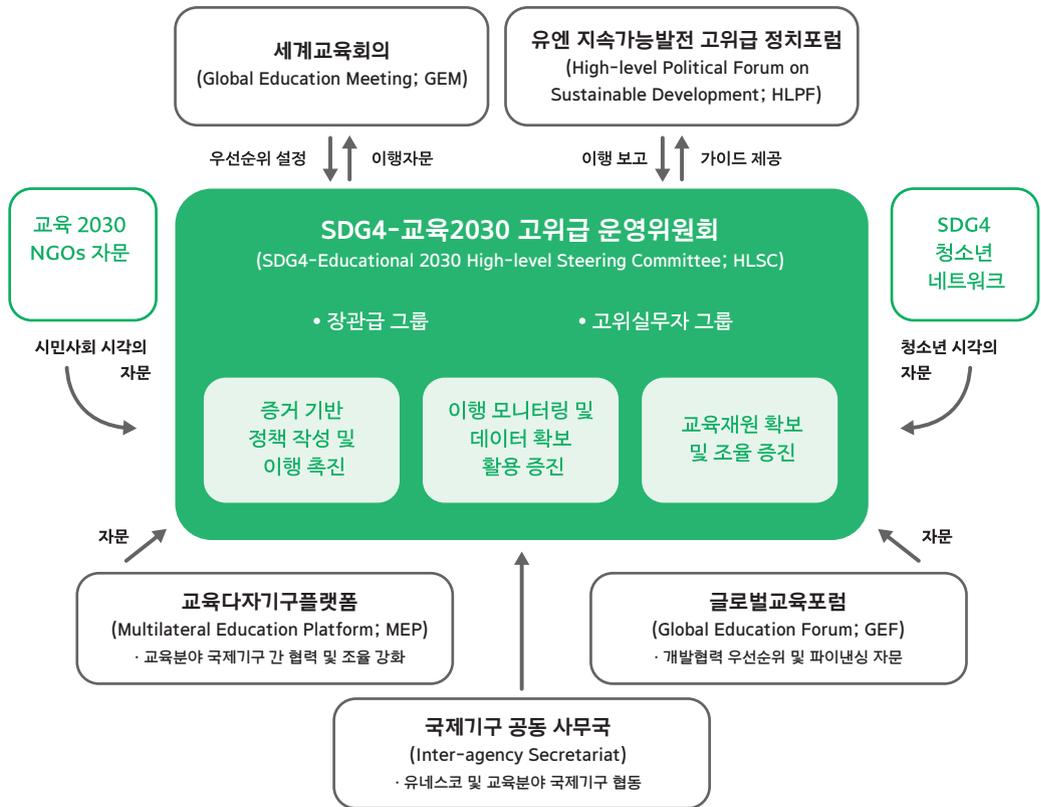
한편 SDG4 이행을 위한 노력이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코로나19로 인한 휴교 장기화로 그간 이룬 교육분야의 성과마저 퇴행하는 현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목격되어, 2020 세계교육회의는 SDG4 이행 촉진을 위해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국제교육협력체계 모색을 주문했다. 교육분야 국제협력의 강화·조율을 위하여, 그간 세계교육협력을 이끌어왔던 SDG4-교육2030 운영위원회(SC)에 대한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유네스코와 지역 대표 회원국, 국제기구,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이 2021년 상반기 동안 활동 후 개편안을 내놓았다. 초기 개편안의 골자는 새롭게 “세계교육최고기구(Global Education Apex Body)”를 만드는 것으로, 1) 소규모의 저명인사로 구성하거나 2) 회원국, 다자·지역기구, 비정부기관 등 고위인사로 구성하는 안이 제시했다. 한편 지역별 자문회의, 제 21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등에서 다수의 회원국은 SDG4 이행의 책임이 각 국가에 있는 만큼, 많은 회원국이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국제교육협력체계를 바란다고 밝히며, 새로운 협의기구의 설립은 지양할 것을 강조했다. 폭넓은 의견수렴 결과, 2021 세계교육회의 장관회의(2021.7.13)는 “장관급 그룹과 고위실무자 그룹으로 이원화된 “SDG4-교육2030 고위급 운영위원회(SDG4-Education 2030 High-Level Steering Committee; HLSC)”를 구성하는 최종개편안을 승인했다. SDG4-교육2030 고위급 운영위원회(HLSC)는 전체 위원수를 기존 44인에서

28인으로 축소하는 한편, 각 회원국 교육부장관, 국제기구 대표 등 고위급 인사와 해당 국가·기관의 고위실무자가 각각 SDG4 논의과정에 참여하도록 구성되었고, 2021 세계교육회의 고위급 회의(2021.11.10)를 통해 SDG4-교육2030 고위급 운영위원회(HLSC)가 출범했다. (상세구성 [표4] 참조)

SDG4-교육2030 고위급 운영위원회(HLSC)는 SDG4 이행 우선순위 및 방향성을 설정하여 증거에 기반한 정책 형성 및 이행을 지원하고, SDG4 이행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교육 재정 확보 효과성 증진에 주안점을 두어 지역 및 국가 단위의 SDG4 이행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SDG4의 국제이행 관련 2021년 개편된 세계교육협력체계는 [그림1]과 같다.

[그림1]



[표4] SDG4-교육2030 고위급 운영위원회(HLSC) (2021년 11월 - 2023년; 2년 임기)

구성: 총 28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 장관 12인 (6개 권역별 2인)</li> <li>① 서유럽·북미: 프랑스, 포르투갈</li> <li>② 동유럽: 라트비아, 슬로베니아</li> <li>③ 아시아·태평양: 방글라데시, 중국</li> <li>④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아르헨티나, 콜롬비아</li> <li>⑤ 아프리카: 시에라 리온, 코트디부아르</li> <li>⑥ 아랍권: 요르단, 모로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기구 등 대표 5인</li> <li>① 유네스코</li> <li>② 유니세프</li> <li>③ 경제협력개발기구(OECD)</li> <li>④ 세계은행(The World Bank)</li> <li>⑤ 글로벌교육파트너십(GP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기구 대표 6인 (6개 권역별 1인)</li> <li>① 서유럽·북미: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li> <li>② 동유럽: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li> <li>③ 아시아·태평양: 동남아시아교육장관기구(SEAMEO)</li> <li>④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이베로아메리카 교육·과학·문화기구(OEI)</li> <li>⑤ 아프리카: 아프리카연합 위원회(AUC)</li> <li>⑥ 아랍권: 아랍연맹 교육·과학·문화기구(ALECSO)</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대표 5인 (시민사회, 교원단체, 민간부문·재단, 학생·청소년, 공여국 대표 각 1인)</li> <li>① 시민사회: 글로벌교육캠페인 (Global Campaign for Education)</li> <li>② 교원단체: 국제교원노조총연맹 (Education International)</li> <li>③ 민간부문·재단: 야콥스 재단(Jacobs Foundation)</li> <li>④ 학생·청소년: SDG4 청년 네트워크 (SDG4 Youth Network)</li> <li>⑤ 공여국: OECD 개발원조위원회</li> </ul>

## 마. SDG4 국내이행체계

SDG4는 국제, 국가, 지역 등의 모든 층위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재단과 같은 민간부문, 시민사회, 개인 등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이행되고 있다. 한편 본 보고서에서는 지면상 국가적 차원에 한정하여 SDG4 국내이행체계를 기술하고자 한다.

### 1)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중 교육목표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합의 이행과 지속가능발전 촉진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왔다. 한편 2016년 “제3차 기본계획” 수립 당시 국제사회가 SDGs를 채택함에 따라, 2018년 정부는 SDGs의 체계를 적극 반영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마련하고 “제3차 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K-SDGs의 세부목표 및 지표에 대한 추가 연구 등 보완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21-2040”은 대국민 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포럼, 관계부처 의견 수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0년 12월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었다.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의 수립 및 보완은 대한민국이 인류 공동의 목표인 SDGs를 한국의 맥락에 적극 반영하여 이행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민간전문가 중심의 K-SDGs 공동작업반과 이해관계자 그룹이 참여하여 상향식으로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K-SDGs는 국가 정책 수행의 결과를 통해 이행 관리 및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환경부장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기본계획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법」 제13조에 따라 2년마다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한편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21-2040”은 K-SDGs의 목표4를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으로 설정했다. 이를 구성하는 세부목표 10개와 지표 28개는 [표5]와 같다. 세부목표의 주요내용은 양질의 초·중등교육 이수,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접근의 평등한 보장,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확대 등이다. 특히, 전문 및 직업기술인을 양성하고 취약계층의 교육접근성을 보장하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충분한 재정과 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목표를 세웠다. 이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로는 공교육 신뢰 제고, 고등교육 기회 확대, 평생교육·직업교육훈련·지속가능발전교육 강화, 소외계층 기초교육 및 직업교육 학습권 보장, 균등교육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교원 전문성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표5] K-SDGs 목표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세부목표별 지표 목록

번호	세부목표	지표
4-1	모든 아동이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고를 거둘 수 있도록 양질의 무상 초·중등교육의 평등한 이수를 보장한다.	(1) 취학률
		(2) 국제 학업성취도평가(PISA 2~6수준 학생 비율)
		(3) 국가수준 학습성과지표 산출
4-2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의 이용기회를 보장하여 초등교육에 대비한다.	(1) 신체적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안녕 (well-being) 측면에서 발달정도가 정상적인 5세 이하 여아와 남아 비율
		(2) 초등학교 취학 전 체계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용률
		(3)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4) 긍정적인 가정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하는 영유아 비율
4-3	모든 학습자들에게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정 비용으로 가능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해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1) 고등교육 이수율
		(2)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 금액
		(3)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인 학습자의 비학위 교육과정 참여율
4-4	디지털화, 기술변화에 따라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 등 적절한 기술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증대한다.	(1) 평생학습 참여율
		(2)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3) 청소년 및 성인의 ICT 역량 수준
4-5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이주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 등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1) 모든 지표에 성별, 장애, 취약계층별 분리통계 도입
4-6	모든 청소년과 다수의 성인이 문해 및 산술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1) 활용 가능한 언어역량과 수리역량의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달성한 특정 연령 인구 비율
		(2) 성인 문해율

번호	세부목표	지표
4-7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1)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주류화 정도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사교육, 학생평가)
		(2)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교육정책 사업 비율
		(3) 교육과정 내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요소 반영 비율
		(4) 교원 중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경험자 비율
4-a	아동, 장애인, 성별을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개선하고,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1)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2) 학교 내진보강률
		(3) Wee 클래스 설치 비율
4-b	포용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 모든 교육 단계에서의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한다.	(1) 교육 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
4-c	모든 교육 단계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사를 충분히 확보한다.	(1) 교사 1인당 학생 수
		(2) 보육교사 중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비율
		(3) 특수교사 1인당 특수학생 수
		(4) 초·중등 전문상담교사 배치 비율

\* 출처: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부), pp.48-49.

## 2) SDG4-교육2030협약체

2015년 SDGs 채택 이후, SDG4의 국내 이행 모니터링 및 촉진을 위하여 2017년 교육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국내 교육전문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고 SDG4 세부목표별 워킹그룹을 운영했다. 이를 발전시켜 2018년 5월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유아정책연구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하기 표 내용상 순서) 등 10개 교육전문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토대로 “SDG4-교육2030협약체”를 발족했다.

교육부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SDG4 국가조정관(National Coordinator)이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SDG4-교육2030협약체의 사무총괄기관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협의체의 각 대표기관은 SDG4 세부목표별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민·관·학 전문가와 함께 SDG4 의제를 논의하고, 모니터링 및 이행촉진을 수행하고 있다.

2022년에는 대표기관 협의회 2회, 주제별 워킹그룹회의 19회, 세미나/포럼/토론회 7회가 개최되었으며, 국제기구 등에서 요청하는 연구, 설문 등에 SDG4-교육2030협약체 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SDG4 분야 상시협력체로서 기능하였다.

[표6] SDG4-교육2030 협의체 구성

구분	SDG4 세부목표 및 전문분야	담당기관
국가조정관	-	교육부
사무총괄기관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표기관	SDG4.1 / 초·중등교육	한국교육과정평가원
	SDG4.2 / 영유아교육	육아정책연구소
	SDG4.3 / 고등교육	한국대학교육협의회
	SDG4.4 /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SDG4.5 / 교육형평성(여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SDG4.6 / 평생교육	국가평생교육진흥원
	SDG4.7 /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APCEIU),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ICT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모니터링	한국교육개발원

## 참고문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7) 「문답으로 풀어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4-교육2030」
- 임현목·박환보,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8) 「지속가능한 사회를 꿈꾸는 교육」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9)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 학습목표」
- 관계부처 합동(2021)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부)」
- <http://www.ncsd.go.kr>(2022.1.8. 국가지속가능발전포털)
- <http://tcg.uis.unesco.org>(2022.1.8. SDG4-교육2030 지표 전문가 협력그룹)
- [www.sdg4education2030.org](http://www.sdg4education2030.org)(2022.1.8. SDG4-교육2030 고위급 운영위원회(HLSC) 사무국)
- [sdgs.un.org](http://sdgs.un.org)(2022.1.8. 유엔)

### III. 2022년 SDG4 10대 뉴스

#### 1 유엔 교육정상회의

9월 16-17일, 그리고 19일에 미국 뉴욕에서 세계 교육변혁 정상회의(Transforming Education Summit)가 개최되었다. 약 130개국 정상 및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2,000여 명이 참석한 본 회의는 코로나19 교육위기로부터의 교육회복을 촉구하고, SDG4 달성과 미래 교육 전환을 위한 전세계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9월 16일은 '청년 집결의 날'로 기획되었으며, 교육 전환 논의에 대한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가 강조되었다. 9월 17일에는 다양한 국제기구와 유엔 회원국이 주관하는 부대행사를 중심으로 교육전환을 위한 다양한 우수사례가 공유되었다. 9월 19일은 리더의 날로 기획되어, 회원국 정상들의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되었다. 특히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회의 결과문서로서 비전 성명을 발표하며, 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재고하고 교육 시스템을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 비전성명의 국문번역본은 127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https://www.un.org/en/transforming-education-summit>

## 2 UN 지속가능발전 고위급 정치포럼 SDG4 검토

### UN 지속가능발전 고위급 정치포럼

7월 5-15일, 미국 뉴욕에서 UN 지속가능발전 고위급 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HLPF)이 개최되었다. UN은 HLPF를 매년 개최하며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4~5개를 선정하여 정례검토한다. 금년 HLPF의 주제는 '코로나19로부터의 더 나은 재건과 지속가능발전 2030의제의 온전한 이행 촉진'으로서, SDG4(교육), SDG5(성평등), SDG14(해양생태계), SDG15(육상생태계), SDG17(파트너십)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 SDG4-교육2030 고위급운영위원회

SDG4-교육2030 고위급운영위원회(SDG 4-Education 2030 High-Level Steering Committee; HLSC)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SDG4 이행 현황, 도전과제, 교훈 등을 보고하며, △포용적이고 공평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삶-일-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학습과 기술, △교수법 및 교사, △디지털학습 및 전환, △교육재정 등을 주요주제로 SDG4 이행을 위한 우선사항을 제언했다. 2022 HLPF는 장관급 선언을 채택하며, '교육 권은 인권이며, 다른 인권과 지속가능발전 달성의 실현을 촉진'함을 강조하고, 코로나 19 교육위기로부터의 회복과 미래 교육 전환을 촉구했다.

## 3 제2차 아태지역 교육장관회의 (APREMC II / 2022.6.5-8.)

6월 5-8일, 태국 방콕에서 제2차 아태지역 교육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본 회의는 2014년 개최된 아태지역교육장관회의(Asia-Pacific Regional Education Ministry Conference, APREMC)에 이어 8년만에 개최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초의 오프라인 중심 아태지역 유네스코 교육회의로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아태지역의 20여 개국의 장관관이 직접 참가했고 온라인 참가까지 포함하면 40여 개국의 고위급 교육관료가 참가했다.

회의결과로 채택된 '방콕성명'은 회의 기간 동안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담아 아태 지역의 향후 우선과제로 (1) 안전한 학교 개혁, 교육회복과 학습 계속 (2) 교육과 교육 시스템 변혁에 대한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지역 협력 및 유엔 교육정상회의와의 연계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성명서의 국문번역본은 116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 4 2022 세계고등교육회의(2022.5.18.-20.)

5월 18일-20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유네스코 3차 세계고등교육회의 (UNESCO World Higher Education Conference)가 개최되었다. 본 회의는 당초 2021년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보건 위기 상황으로 인해 2022년에 개최되었으며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하였다.

2,500여명의 고등교육 이해관계자가 참가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고등교육 재창조를 목표로 10가지 주요 주제인 고등교육 분야의 1) 코로나19 영향, 2) SDGs 연계, 3) 포용성, 4) 질·적정성, 5) 이동성, 6) 거버넌스, 7) 재정, 8) 데이터 생산, 9) 국제 협력, 10) 고등학습의 미래(future of higher learning) 준비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의 결과물로 '2030 고등교육 로드맵'이 제안되었다.



이미지 출처: <https://en.unesco.org/futuresofeducation/news/18-20-may-whec-2022>

## 5 제7차 세계성인교육회의 (CONFINTEA VII / 2022.6.15.-17.)

6월 15일-17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제7차 세계성인교육회의(CONFINTEA VII)가 개최되었다. 세계성인교육회의는 1949년 덴마크 엘시노어에서 열린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2~3년 주기로 개최되며, 세계 성인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성인교육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유네스코와 모로코 왕국이 공동 개최한 이번 7차 회의에는 국가 원수, 교육부 장관, 유엔 고위급 대표 등을 포함 1,000여명이 참가하여 평생학습과 지속가능발전목표 관점에서 효과적인 성인학습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의 결과물로는 '마라케시 실행계획(Marrakech Framework for Action)'이 채택되었으며, 마라케시 실행계획 국문번역본은 136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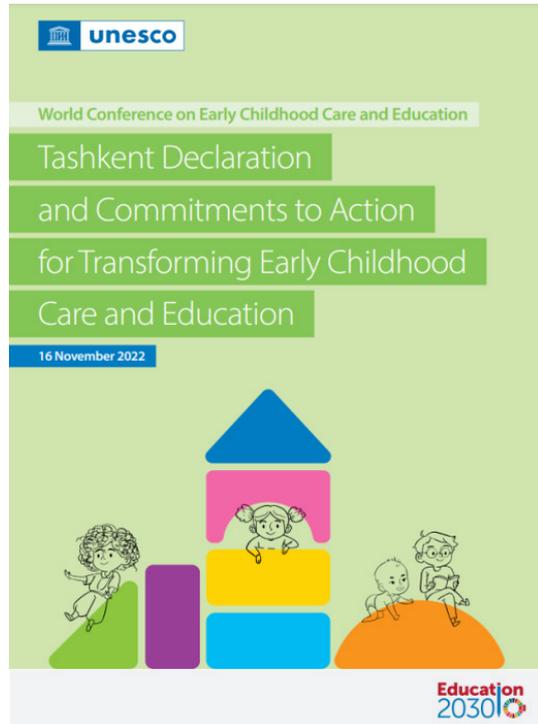
이미지 출처: <https://twitter.com/uil/status/1536921454679318528>

## 6 제2차 세계영유아교육회의 (2022.11.14.-16.)

11월 14-16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유네스코 제2회 세계유아교육보육회의(World Conference o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가 개최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주최하고 유네스코가 주관한 기 회의에는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77명의 장·차관을 포함하여 총 2,700여 명이 참석했다.

3일 동안 네 가지 대주제를 중심으로 20개의 분과 세션과 4회의 장관 고위급 세션, 16개의 부대행사가 열렸다. 네 가지 대주제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영유아를 위한 형평적·포용적 양질의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2) 유아교육·보육 교원, 3) 혁신적인 프로그램, 4) 정책과 행·재정

컨퍼런스의 결과물로 타슈켄트 선언문이 채택되었으며, 해당 문서에는 회원국과 국제사회, NGO, 유네스코의 실행전략(Commitments to Action)이 담겨있다. 선언문 국문번역본은 148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좌) <https://trello.com/b/QpESs7x4/world-conference-on-early-childhood-care-and-education>

(우)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84076>

## 7 1974권고 개정과정

1974년 채택된 ‘국제이해, 협력,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는 당시 낯선 주제였던 국제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 역사적인 규범이다. 1974 권고는 그간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 등 새로운 교육 개념으로 이어졌고, SDGs 4.7의 모니터링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유네스코는 그간 변화된 글로벌 교육 환경을 반영하여 2021년부터 권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권역별 자문회의 및 국제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개정안 1차 초안을 마련했고, 하반기에는 해당 초안에 대한 회원국 자문을 진행했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는 10월 5일 ‘1974 권고 개정안 검토 포럼’을 개최하여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유네스코는 회원국의 의견을 취합하여 내년 상반기 2차 초안을 마련하고,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관련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작성된 개정안 최종본은 2023년 11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보고 및 채택을 위한 의결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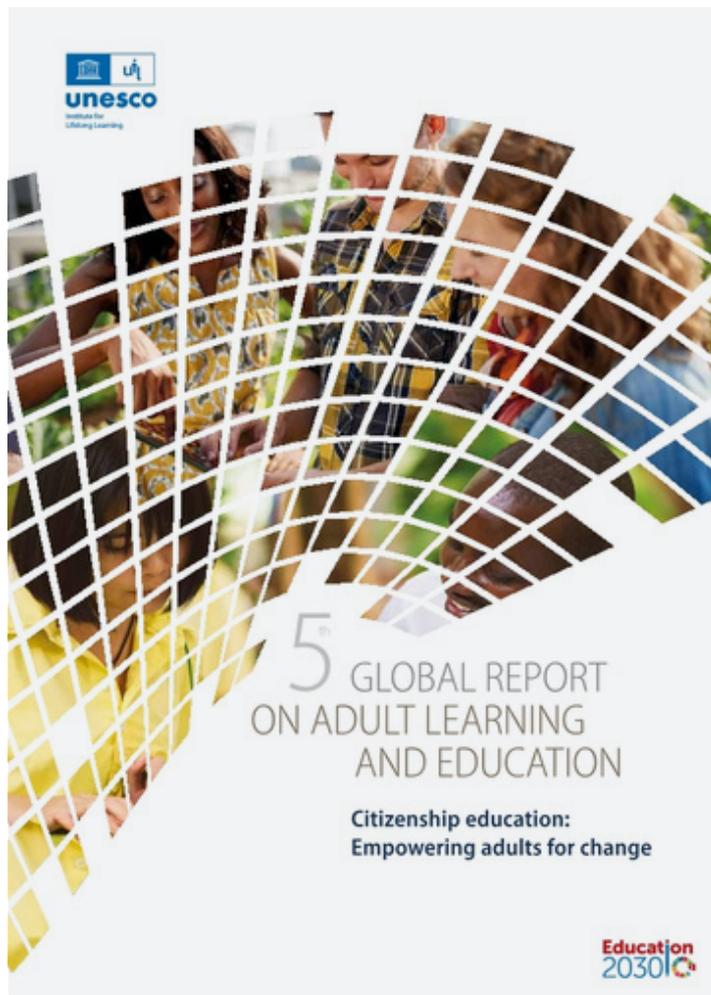


이미지 출처: <https://www.unesco.org/en/education/1974recommendation>

## 8 GRALE 발간 및 국문 번역본·요약본 발간

6월 유네스코평생학습원(UIL)은 제5차 세계 성인학습·교육 보고서(Global Report on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GRALE)를 발간했다. 2009년 처음 발간된 세계 성인 학습·교육 보고서는 유네스코 회원국들의 성인학습·교육(ALE)에 관한 국제 규약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한다. 최신 보고서인 GRALE 5는 유네스코 회원국들의 성인학습·교육(ALE)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 성인학습·교육 발전 등에 대한 챕터로 이루어져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공동으로 GRALE 5 요약본을 번역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이미지 출처: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81666>

## 9 2021/22 세계교육현황보고서 & 요약본 국문본 발간

유네스코는 2021년 12월 '2021/22 세계 교육 현황 보고서, 비국가 행위자의 교육 참여: 누가 선택을 하는가? 누가 손해를 보는가? (GEM Report, Non-state actors in education: Who chooses? Who loses?)'를 발간했다. 유네스코는 SDG4 및 교육 2030의 이행 현황 모니터링 및 보고를 위해 매년 '세계 교육 현황 보고서' 및 보고서의 요약본을 발간하고 있다.

'2021/22 세계 교육 현황 보고서'는 교육 분야에서 비국가 행위자의 영향력 확대 현황을 분석하고 교육 불균형 해소와 모든 이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제언을 담았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올해 7월 국내 차원에서 범세계적 교육 현황 및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본 보고서 요약본의 국문본을 발간해 국내 유관 기관, 단체, 전문가를 대상으로 배포하였다. 요약본 국문본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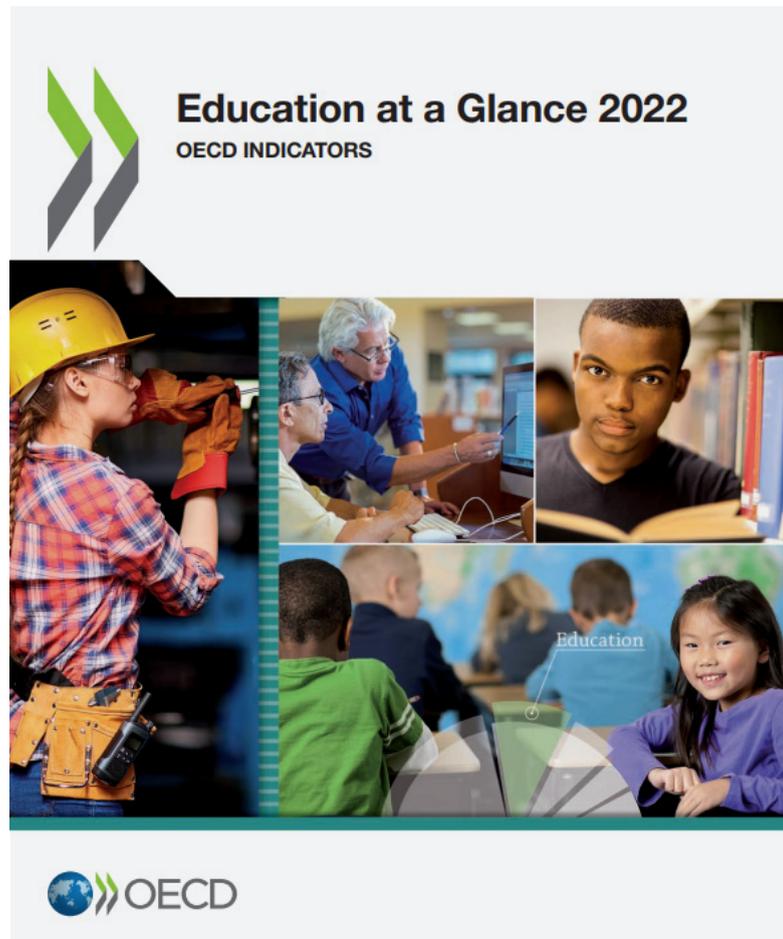
이미지 출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 10 2022 OECD 교육지표 발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2022 OECD 교육지표'를 10월 3일 발간했다. OECD는 회원국의 학생, 교원, 재정, 교육 시스템 및 성과 등의 주요 지표에 대한 국제 비교·분석 데이터를 매년 발행하고 있다.

2022년에는 고등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자료가 추가적으로 수록되었다. 특히 한국은 만 25~34세 청년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2021년 기준 69.3%로, 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교육위기 및 교육회복에 대한 통계자료도 수록되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동 자료의 국문번역본을 2023년 2월 출판할 예정이며, 자료는 KESS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미지 출처: [https://www.oecd-ilibrary.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2022\\_3197152b-en](https://www.oecd-ilibrary.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2022_3197152b-en)

## IV. SDG4 세부목표별 이행현황 점검 및 제언

- SDG4.1 (초·중등교육)
- SDG4.2 (영유아 보육·교육)
- SDG4.3 (고등교육)
- SDG4.4 (직무스킬)
- SDG4.5 (교육형평성: 성평등, 장애학생, 탈북학생)
- SDG4.6 (성인 문해·수리력)
- SDG4.7 (지속가능발전·세계시민교육)
- SDG4 모니터링
- 교육 ICT

# SDG4.1(초·중등교육) 이행현황 점검 및 제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미경 대외협력실장

## 1. 2022년 이행현황 점검 (주요 지표 현황, 이슈 등 중심)

SDG4의 세부 실행 목표 가운데 SDG4.1 초·중등 교육에 관한 목표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UNESCO의 SDG4.1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학습 성과를 달성하도록 형평성 있는 양질의 초등 및 중등 교육을 무상으로 이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교육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미래로 이끌어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데 동의 하면서 각국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자의 목표를 세우고 이행 전략을 추진하며 지속적으로 세부 목표 이행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 명의 아이도 빠짐없이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21년 OECD 교육지표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별 취학률이 OECD 평균보다 높으며, 특히 만 3~5세의 취학률이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였다. 2018년 GDP 대비 공교육비는 전년 대비 0.1%p 상승하여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았다. 2019년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이 갖추어졌음을 나타낸다. 이 보고서를 통해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학습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제공 여부를 보여주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SDG 4.1 세부 목표에 관한 지표로 참고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2018			2019			2020			2021		
		국	수	영	국	수	영	국	수	영	국	수	영
중3	3 이상	81.3	62.3	65.8	82.9	61.3	72.6	75.3	57.8	63.9	74.4	55.6	64.3
	2	14.3	26.6	28.9	13.0	26.9	24.1	18.2	28.9	28.9	19.6	32.7	29.8
	1 이하	4.4	11.1	5.3	4.1	11.8	3.3	6.4	13.4	7.1	6.0	11.6	5.9
고2	3 이상	81.6	70.4	80.4	77.5	65.5	80.4	69.7	60.8	76.7	64.3	63.1	74.5
	2	15.0	19.2	13.4	18.5	25.5	17.6	23.4	25.7	14.7	28.6	22.7	15.6
	1 이하	3.4	10.4	6.2	4.0	9.0	3.6	6.8	13.5	8.6	7.1	14.2	9.8

※ 음영부분은 전년도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나타냄.

### 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육과정 질 관리 모니터링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학교의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선도하기 위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이하 학업성취도 평가)는 준거 참조 평가로서 우리나라 초·중등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추이를 분석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교육부, 2022).

2022년 발표된 2021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중3과 고2의 경우 모든 교과에서 학업성취수준 비율이 전년도와 비슷했으나 고등학교 국어의 3수준 이상 비율이 64.3%로 지난해보다 5.5%p 감소하였다(교육부 2022). 2020년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2019년보다 3수준 이상 학생 비율이 작아지고, 1수준 이하 학생 비율이 증가하여 학력 저하 현상이 매우 뚜렷했던 것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으나, 코로나 19 이전의 학력 수준으로 되돌아가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학습 위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에서는 심리·정서 등 다양한 분야의 중장기 교육결손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기초학력 보장 종합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교육부, 2022).

### 나. 국제 수준의 학교교육 질관리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국가 수준의 질 관리와 함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하여 미래 인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국제 수준에서 점검하고 이를 교육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OECD에서 회원국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이하 PISA)의 2018년 평가 결과<sup>1)</sup>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읽기, 수학, 과학 각 영역에서 OECD 국가 가운데 상위 수준의 학업 성취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 평가 결과와 비교할 때 각 영역에서 상위 수준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하위 수준은 읽기에서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학생들의 비인지적 특성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맥락 변인(회복 탄력성, 긍정적 학교 풍토 및 부모 교육)을 도출함으로써 교육과정 개정에 시사점을 주고자 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국제 교육성취도 평가협회에서 실시하는 수학·과학성취도 추이 변화 국제 비교 연구(이하 TIMSS)<sup>2)</sup>에도 참여하고 있다. 2019년 TIMSS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상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수학·과학에 대한 흥미나 자신감은 국제 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과 실험 위주의 수업을 도입하고, 과정 평가를 도입하여 경쟁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아직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초4 수학·과학에 대한 태도>

[학생비율 %]

과목		교과에 대한 자신감			교과 학습에 대한 흥미		
		매우 자신있음	자신있음	자신없음	매우 자신있음	자신있음	자신없음
수학	우리나라	15	49	36	22	38	40
	국제평균	32	44	23	45	35	20
과학	우리나라	17	59	23	37	47	16
	국제평균	38	43	19	52	36	12

## 2. 2022년 국내 우수사례 소개

학교 현장에서는 양질의 교육 제공 및 교육 기회 보장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이를 공유 및 확산하는 풍토를 형성하려는 시도가 이미 있어왔다. 초등학교 때부터 누적된 학습부족으로 학습 격차가 증대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된 2022년 학교 교육 사례를 특히 제공하고자 한다.

1.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PISA)은 만 15세를 대상으로 읽기, 수학, 과학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3년 주기로 평가하며, 2018년에는 79개국(회원국 37개국, 비회원국 42개국)이 참여하였다.

2.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TIMSS)는 초4와 중2를 대상으로 4년마다 실시하며 58개국이 참여하였다.



## 춤춤한 학교 그물망 활용, 배움 찬찬이 구출 사례



### (가) 1단계: 교실 안 기본학력 책임지도

#### ① 수업 개선

학습부진 학생들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가장 많이 지도 하는 것은 교과 교사이다. 교과 교사들은 수업 개선을 통해 모든 학생에게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진행한다. 혁신미래학교로 지정된 이후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 과정중심평가, 수업 나눔, 교원학습공동체 활동 등을 통해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 ② 협력 강사 활용

교실 수업 속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노력으로 1학년 수학, 국어에 협력 강사를 채용하여 함께 주 1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습 부진 학생을 지도하는 협력 강사 활용은 기초부진학생 뿐 아니라 중상위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체 수업을 진행하는 정규교과교사의 피드백 역량을 높여주고, 반 학생들 전체의 수업 집중도를 높여 전체적으로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초부진 학생에게 교사의 지원 빈도를 높여줄 수 있다.

### (나) 2단계: 학교 안 기본학력 책임지도제

기본학력 책임지도제 업무를 혁신미래부의 업무로 편성하고, 진단평가와 향상도 평가하는 과정에서 기초부진학생들에 대한 학교 차원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과목별로 진단평가에 미도달한 아이들을 위한 교과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습관 개선을 위한 챌린지를 진행하고, 다시 향상도 평가를 실시했다. 미도달 학생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원데이클래스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을 두리샘과 함께 진행했다.

### (다) 3단계: 학교 밖 연계 기본학력 책임지도

교실 수업 개선과 학교 시스템 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아이들도 있다. 학습 부진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부진의 원인은 알지만 학교에서는 쉽사리 도와줄 수 없는 아이들은 서울학습도움센터나 위센터와 연계하여 지도한다.

### (라) 4단계: 모두 함께 기본학력 책임지도

국영수 교과 담당 교사, 협력강사, 두리샘, 기본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이라는 학교 내 업무 담당자의 꾸준한 노력만으로 기초학력부진 학생의 학습역량 개선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외부전문가 뿐만 아니라 담임교사, 교과 교사의 연계, 학부모와의 상담 등 아이를 둘러싼 다양한 어른들의 협업이 있어야만 '찬찬이'는 아주 작은 개선이라도 이룰 수 있다.

◎ **유의미한 학습경험디자인으로 참여를 높이는  
영어 말하기 수업**

평가 영역	말하기	수업 주제	짝/모둠 말하기 활동
학습부진학생 고려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 목표/학습 과정을 학생과 연관이 높고 실제 상황과 연결 지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실제성 높은 맥락 사용하여 제공</li> <li>○ 자유로운 단어검색/활용법 검색이 가능한 에듀테크 사용 환경(핸드폰, 디벗 등)</li> <li>○ 짝/모둠 구성원이 함께 목표 달성하도록 돕는 상호 협력 분위기 조성</li> <li>○ 모델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예시 제시</li> </ul>		
사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arget expression 형태 및 의미 파악 가능한 예시 대화문(우리말 해석 첨부)</li> <li>○ 짝 / 모둠 배치</li> <li>○ 반복 발화 연습을 위한 STT(speech to text) 활용 voicetyping 도구(클래스카드, padlet 등)</li> </ul>		
수업 및 평가 실행	<p>(1) 음식주문과 관련된 의사소통 기능</p> <p>[재구성 전] 음식주문과 관련된 질문 및 대답에 사용되는 의사소통 기능표현들과 사용 사례 제시</p> <p>[재구성 후] 세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샌드위치 가게에서 직접 메뉴를 주문하는 상황 맥락 제시</p> <p>[참고] 말하기 평가 시 난이도에 따라 A type/ B type으로 나눠 선택권 부여</p> <hr/> <p>(2) 영어관용표현 사용 배우기</p> <p>[재구성 전] 단어와 문법대로 해석되지 않고 다른 뜻으로 해석되는 관용 표현 제시</p> <p>[재구성 후] 모둠별 대화문 제작 후 온라인 게시판 사용한 완성작 공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서에 추가된 실제적 맥락과 선택의 여지 제공으로 학습 내용에 쉽게 접근함.</li> <li>- 학습에 새로움과 흥미를 느껴 다양한 학생들의 참여도가 올라감.</li> <li>- 짝/모둠에서 다른 학습자들과 함께 과업을 완수한다는 안정감과 편안함에 긍정적 수업 분위기 조성됨.</li> <li>- 학습 과업의 난이도가 높지 않아 성취도 높은 학생들의 도전 의식이 낮은 점 보완 필요.</li> <li>- 학습 과정이나 과업 완수에 고차원적 사고 촉진 및 협업활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세부적 장치 및 디테일이 더 필요하다고 느낌.</li> </ul>		
성찰 및 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서에 추가된 실제적 맥락과 선택의 여지 제공으로 학습 내용에 쉽게 접근함.</li> <li>○ 학습에 새로움과 흥미를 느껴 다양한 학생들의 참여도가 올라감.</li> <li>○ 짝/모둠에서 다른 학습자들과 함께 과업을 완수한다는 안정감과 편안함에 긍정적 수업 분위기 조성됨.</li> <li>○ 학습 과업의 난이도가 높지 않아 성취도 높은 학생들의 도전 의식이 낮은 점 보완 필요.</li> <li>○ 학습 과정이나 과업 완수에 고차원적 사고 촉진 및 협업활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세부적 장치 및 디테일이 더 필요하다고 느낌.</li> </ul>		

### 3. SDG4 이행 촉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제언

우리나라는 국가수준에서 학교 교육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우리나라 학생들은 세계에서 상위 수준의 학업성취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 이후 하위권 학생 비율이 높아졌고, 학생들의 심리·정서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게 요구된다는 평가 자료들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인지적인 성취와 함께 비인지적 성취에 대한 중요성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중점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진로를 설계하고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 경험을 쌓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학교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지역 사회와 함께 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확산해야 한다.

학교 현장의 사례가 제시하듯이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교사, 부모, 지역 사회가 협업 및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로써 학생들 각자에게서 작지만 의미 있는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 참고문헌

---

- 교육부. (2022). 202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대응 전략 발표.
- 서민희, 김경희, 이재원, 전성균, 김슬비. (2021). TIMSS 2019 결과 및 변화 추이 심층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E 2021-5.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22). 2021 대한민국 SDG4 이행현황 보고서. ED-2022-BK-1.
- 이신영, 조지민, 김명화, 김현정, 김성경. (2022). PISA 2018 비인지적 성취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에 따른 교육적 시사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22-68-15.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2). 2022 KICE-유네스코한국위원회 SDG4.1 포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22-82.

# SDG4.2(영유아 보육·교육) 이행현황 점검 및 제언

육아정책연구소

문무경 국제교류데이터연구실장

## 1. 2022년 이행현황 점검

### 가.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분야 국정과제와 SDG4.2 이행 점검

올해 영유아 부문 지속가능발전목표(SDG4.2) 이행 점검은 윤석열 정부의 입각(2022. 5)에 따른 새로운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향후 방향성이 논의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영유아 부문에 해당하는 국정과제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국정과제 46번),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 격차 해소’(국정과제 84번)이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보통합이 가장 대표적인 국정과제이며,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제고를 중심으로 세부 과제들(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아동당 시설 면적 증대 등)이 제시되어 있다(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 2022).

영유아 부문 지속가능발전목표 SDG4.2는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양질의 영유아 발달 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접근하여 초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 설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사립 기관 비중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SDG4.2 이행을 위한 글로벌 지표(4.2.1.과 4.2.2) 및 주제별 지표(4.2.3)에 국공립기관 이용률 증가율을 추가하였고, 최근 이행수단인 4c 지표에는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상향을 포함하였다.

[표 1] 윤석열 정부의 영유아 관련 국정과제와 K-SDG 4.2 지표

국정과제 (유관부처) 및 세부과제	K-SDG 4.2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보통합 방안 마련</li> <li>● 아동 당 교사 비율 축소와 시설 면적 상황</li> <li>● 보육교사 처우 개선</li> <li>● 부모교육과 시간제 보육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2.1) 건강, 학습 및 사회심리적 안녕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24-59개월 연령 남아와 여아 비율</li> <li>● (4.2.2) 정규 초등학교 입학연령 전 1년 동안 체계화된 학습 참여 (성별)비율</li> <li>● (4.2.3) 긍정적인 가정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하는 5세 이하의 영유아 비율</li> </ul> (국내 추가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 기관 이용률 증가율</li> <li>● 4c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상황</li> </ul>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보통합 방안 마련</li> <li>●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li> <li>● 유초 연계 강화</li> </ul>	

자료: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2022).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p. 87, p.142를 요약, 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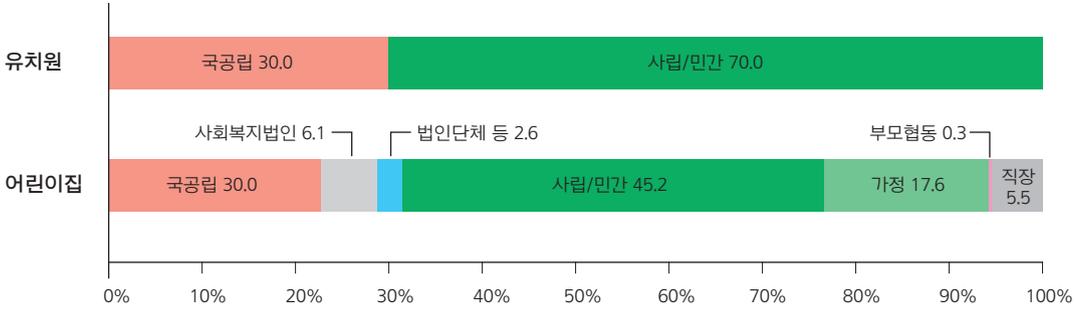
글로벌 지표 4.2.1.과 4.2.2. 이행은 유보통합을 비롯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국정과제들과 전반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주제별 지표 4.2.3은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한 부모 교육 및 시간제 보육과 관련이 있다. 특히, 유보통합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 기준과 양성체제 통합은 4c 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발표된 학과제 중심의 보육교사 양성 및 보육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 등의 국정과제들이 이에 해당한다. 유초 연계 강화는 SDG 4.2 목표인 형평적·포용적 양질의 서비스를 통한 초등학교 준비와 연결된다.

### 나.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확대 성과와 제한점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부모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공립기관 확충을 통한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증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부모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정책으로 조사되었다(문무경 외, 2021). 그러나 2021년 말 기준,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30.0%,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22.7%(육아정책연구소, 2022)는 당초 22년 말 목표치인 40%에는 훨씬 못 미친다. 한편, 아동 수가 감소하는 지역에 공립 시설을 신증설하여 정원충족률이 저하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중장기적인 수급 예측이 선행되어야 하며, 서비스 수급 정책은 현재의 유보 이원화 체제의 부처 차원이 아니라 통합적 수준에서 수립되어야 한다(정효정, 2022).

이외에도, 기관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0-1세 아동을 위한 영아 수당(2022년 시행)을 전환하여 '부모급여' 도입(2023년 예정), 발달 지연 경계선 아동의 조기 진단과 지원,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국정과제 81번)의 방향과 교수법, 유아놀이중심 누리과정과 2022 초중등교육과정의 연계 등도 SDG4.2 이행 및 모니터링에 있어 주요한 정책 과제들이다.

[그림 1] 설립유형별 유치원·어린이집 영유아 비중(2021)



출처: 육아정책연구소(2022). 2021 영유아 주요통계 자료집, p. 24.

## 2. 2022년 우수사례 소개

### 가. 미래 유아교육·보육의 변혁과 지속가능발전 정책토론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기홍 의원실, 고민정 의원실, 김미애 의원실, 안철수 의원실과 공동으로「미래 유아교육·보육 변혁과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2022.9.28. 서울 유네스코홀). 본 정책토론회는 제2회 세계 유아교육보육 회의 의제에 대한 국내 의견 수렴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축사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고 이를 전환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미래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며, 평생학습의 기초인 유아교육·보육의 정책의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경구 사무총장은 기조 강연(제목: ‘유아교육·보육의 미래’)에서 양질의 유아교육과 보육은 모든 사회의 우선과제가 되어야 하며, 아이들이 세계의 주요한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문무경 실장은 세계유아교육보육 회의의 개최 배경과 개요를 소개하고,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포용적 유아교육과 보육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수법, 영유아 교원 전문성, 지속가능발전목표 SDG4.2 달성을 위한 정책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미래 유아교육·보육 변혁의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패널토론에서 정정희 한국유아교육학회장은 급변하는 유아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유아교육·보육 체계 구축과 재원확보의 필요성을,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장은 발달 지연 및 문제행동의 경계선 특수 영유아의 조기 중재 및 보육 교직원의 전문직업적 정체성 확립, 그리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완정 한국아동학회장은 부모와 교사의 정신건강과 영유아의 온오프라인 생애 공간의 비약적 변화에 따른 자아개념 형성 및 경험의 의미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을, 이병래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장은 SDG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목표의 재정립과 역량 강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변경옥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 담당관은 서울시 보육정책 성과로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조례 마련 사례와 영유아 발달실태조사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발달 지연 경계선 영유아의 조기 발견 및 지원사업을 소개하였으며, 오피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장은 놀이와 생태환경, 자연 친화 교육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사진 1] 미래 유아교육보육 변혁과 지속가능발전 정책토론회



### 나. 유관기관과의 공동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SDG4.2 이행 모니터링

육아정책연구소는 SDG4-교육2030 협의체 SDG4.2 워킹그룹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유아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2022. 9. 24)에서 ‘영유아부문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효과와 영향’을 주제로 하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유아교육학회와 함께 온라인 공동 세션을 개최했다. 총 4편의 논문발표와 유네스코 ESD 유치원 사례 발표, 2명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유아 대상 그림책, 자연물 등을 활용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유아의 인식과 발달에 효과적이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유아 교사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성이 공통적으로 논의되었다.

<표 2> 한국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 공동세션 개최

순서	논문 제목 및 발표자	
1	기후위기 그림책을 활용한 기후변화 교육이 유아의 친환경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안민경, 이현진 교수 (대구카톨릭대)
2	한국과 중국 유아교사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인식 비교	Jin, Xiaodan (중국 지메이대학)과 김은혜 교수(계명대)
3	자연물을 활용한 창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이연화(나주시청)
4	COVID-19 시대 영유아 건강 관련 뉴스 토픽모델링 분석	정부민, 이효림(경북대)
5	유네스코 ESD 유치원 사례: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기반한 목화프로젝트	허외화, 신은연, 정정미, 이안휘 (대구 동영유치원)
토론	박원순 박사(육아정책연구소), 홍보강 팀장(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다. 제2회 세계유아교육보육 회의 참석 및 발표

유네스코 제2회 세계유아교육보육 회의(World Conference o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WCECCE)가 2022년 11월 14일(월)-16일(수), 3일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개최되었다. 제2회 세계유아교육보육 회의는 제1회 회의(2010년 모스크바에서 개최) 이후 12년 만에 개최되었으며, 지난 9월 뉴욕에서 열린 교육전환정상 회의(Transforming Education Summit: TES)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세계 회의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개최 목적은 세계 각국의 SDG4.2와 여타 관련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진전 사항 점검, 유아교육·보육 정책 핵심 전략과 최신 연구 결과 및 혁신 사례 정보 교류, SDG4.2 이행 촉진 및 우선순위 과제 규명, 글로벌 파트너십과 연대 강화 등이다.

전 세계 약 150여 개국 및 77명의 장관관을 포함하여 총 2,7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sup>3)</sup>, 3일 동안 네 가지 대주제하에 총 20개의 parallel session과 4회의 장관관 고위급 세션, 16개의 side event가 개최되었다.<sup>4)</sup> 네 가지 대주제는 1) 모든 영유아를 위한 형평적, 포용적 양질의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2) 유아교육보육 교원, 3) 혁신적인 프로그램, 4) 정책과 행·재정이었다. 우리나라는 ‘학교준비도와 평가의 역할(school readiness and the role of assessment)’과 ‘테크놀로지와 AI’ 세션에서 육아정책연구소와 교육부가 각각 국가사례를 발표하였다.

제2회 세계유아교육보육 회의의 폐막식에서는 타슈켄트 선언문(Tashkent Declaration)<sup>5)</sup>이 채택되었다. 본 선언문에 회원국, NGO, 유네스코의 실행 약속(Commitments to Action)을 포함함으로써, 향후 SDG4.2와 유아교육·보육 분야의 글로벌 파트너십 전략 실행을 위하여 세계 각국들이 한층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 [사진 2] 제2회 세계유아교육보육회의 로고 및 폐막식



3.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김수현 사무관), 육아정책연구소가 참석함. 육아정책연구소(문무경 실장)는 아시아지역 대표로 Programme Committee 위원 활동 및 폐막식에서 참여회원국 150개국을 대표하여 라포터(rapporteur)로서 3일간의 주요 회의내용을 종합하여 보고함.
4. 3일간의 세계회의 유튜브 영상  
(Day 1: 개회식 및 20개 세션) [https://www.youtube.com/watch?v=ggG0bbbttU&ab\\_channel=7SABER](https://www.youtube.com/watch?v=ggG0bbbttU&ab_channel=7SABER)  
(Day 2: 장관관 고위급 회의) [https://www.youtube.com/watch?v=i-VakqyqNJo&ab\\_channel=UNESCO](https://www.youtube.com/watch?v=i-VakqyqNJo&ab_channel=UNESCO)  
(Day 3: 폐막식 등) [https://www.youtube.com/watch?v=9AOvtJtEBIs&ab\\_channel=UNESCO](https://www.youtube.com/watch?v=9AOvtJtEBIs&ab_channel=UNESCO)
5. 타슈켄트 선언문 전문 [www.unesco.org/sites/default/files/medias/fichiers/2022/11/tashkent-declaration-ecce-2022.pdf](http://www.unesco.org/sites/default/files/medias/fichiers/2022/11/tashkent-declaration-ecce-2022.pdf)

### 3. SDG4.2 이행 촉진을 위한 제언

2022년은 대내외적으로 SDG4.2 이행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맞은 중요한 해이다. 국내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5개년 중장기 계획<sup>6)</sup>을 수립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12년 만에 개최된 제2회 세계유아교육 회의에서 채택한 타슈켄트 선언문이 향후 전세계 국가들의 유아교육·보육 정책에 주요한 이정표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타슈켄트 선언문의 이행 약속(commitment to action)은 영유아 부문 글로벌 파트너십 전략(Global Partnership for Early Childhood 2021-2030)과 더불어 SDG4.2 이행을 위한 국제 수준에서의 협력과 유대를 촉구할 것이다.

이러한 대내외적 정책환경의 변화 속에서 먼저 새로운 국정과제들과 SDG 4.2 지표를 연계하고, 타슈켄트 선언문과 영유아 부문 국정과제 및 2023-2027 유아교육과 보육 기본계획을 연계하여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글로벌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SDG4.2 워킹그룹은 2023년도 주요 활동으로 육아정책연구소 및 여러 학회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포용적·형평적 양질의 유아교육과 보육을 위한 사회적 토론과 공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 참고문헌

-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2022).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 문무경, 양미선, 송기창, 김문정(2021) 2022-2027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육아정책연구소(2022). 2021 영유아 주요통계 자료집,
- 정효정(2022). 미래 유아교육보육 변혁과 지속가능발전 정책토론회 자료집. p. 42.
- UNESCO(2022). Taskent Declaration
- UNESCO(2021). Global Partnership for Early Childhood 2021-2030

6. 2023-2027 제3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교육부)과 제4차보육중장기 기본계획(보건복지부)은 각각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매5년마다 수립 및 2022. 12월 발표 예정임.

# SDG4.3(고등교육) 이행현황 점검 및 제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정희 팀장, 황정원 선임연구원

## 1. 2022년 이행현황 점검: SDG4.3 고등교육분야

### 가. SDG4.3 고등교육분야 세부목표 차원의 이행현황

고등교육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인 SDG4.3은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관점에서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비용으로 가능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1).

한국은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 입학 전형에서 ‘사회통합전형’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2024학년도 이후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의 6)에 선발 대상(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촌, 특성화고 졸업자 및 재직자, 서해5도 학생, 보호종료청소년, 북한이탈주민, 기타 만학도 등)을 정하고 있다. 2024학년도 사회통합전형(정원의 포함) 정원은 50,219명으로 전년 대비 5,369명이 증가하였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2.4.26. 보도자료).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고등교육 접근 기회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국가장학금을 소득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2021년 고등교육 국가장학금 전체 규모<sup>7)</sup>는 3,932,466백만 원, 3,152,514건이며, 이 중 소득연계 국가장학금은 총 3,426,037백만 원, 2,942,877건으로 나타났다(한국장학재단, 2022). 또한 성인학습자가 원하는 경우 독학학위제나 학점은행제 등의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두고 있다.

### 나. SDG 4.3 고등교육분야 세부지표 및 K-SDG 4.3 지표별 이행점검

유네스코는 SDG4의 고등교육분야 세부목표인 SDG4.3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세부 지표를 다음의 <표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SDGs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의 상황을 반영한 K-SDGs를 개발하였다. <표2>는 K-SDGs의 고등교육분야 세부지표이다.

7. 한국장학재단 2021 통계연보(2022), p.18~19의 장학금지원 현황 총계에서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을 제외함

<표 1> SDG4.3 고등교육 분야 세부지표

구분	SDG4.3 지표
SDG4.3	4.3.1 지난 12개월 동안 형식 및 비형식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한 청소년 및 성인의 비율(성별별)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인학습자의 비학위 교육과정 참여율>
	4.3.2 고등교육 총 취학률 <고등교육 이수율> 및 성별 비율
	4.3.3 직업기술교육훈련 프로그램 참가 비율 및 성별비율(15~24세)

출처: 교육부·유네스코한국위원회(2022:11), 2021 대한민국 SDG4 이행현황보고서.

<표 2> K-SDG 고등교육 분야 세부지표

구분	지표명	목표
K-SDG4.3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인학습자의 비학위 교육과정 참여율	2030: 지속 증가 2040: 지속 증가
	고등교육 이수율	2030년: 49% 유지 2040년: 49% 유지
	학생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 금액	2030: 지속 증가 2040: 지속 증가
K-SDG 4.9	고등교육(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	2030: OECD 평균 2040: OECD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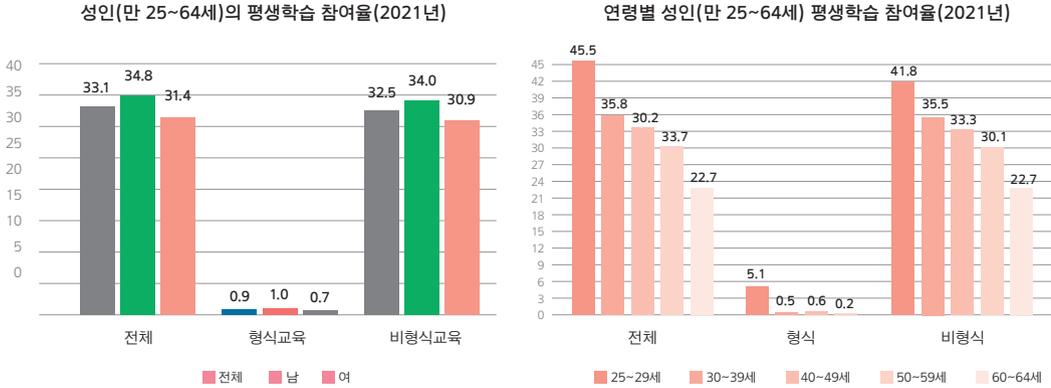
출처: 지속가능발전 포털(<http://ncsd.go.kr/ksdgs?content=3>), 2021년 10월 11일 자료인출.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 관계부처합동

여기서 SDG4 고등교육분야의 국내 이행현황을 K-SDG4.3 지표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K-SDG4.3의 첫 번째 지표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인학습자의 비학위 교육과정 참여율’과 관련하여 '21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결과에 따르면, '21년 만25~64세 성인의 비형식교육 참여율<sup>8)</sup>은 32.5%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34.0%로 여성(30.9%)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41.8%), 30대(35.5%), 40대(33.3%), 50대(30.1%), 60대(22.7%) 순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참여율이 높았다. 반면, 만 25~64세 성인의 형식교육 참여율은 '21년 0.9%에 그쳤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1).

두 번째 지표인 ‘고등교육 이수율’ 관련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성인 전체(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21년 51.7%로 전년(50.7%) 대비 1.0%p 상승했고, OECD 평균인 41.4%보다 높다. 2021년 청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3%로 전년(69.8%) 대비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았다. 향후에는 고등교육의 질적 제고를 이행하기 위한 여건 지표 개발 등에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8. 조사 기준이 '20년까지는 전년도 7월~당해 연도 6월이었으나 '21년부터 전년도 1월~12월로 변경됨에 따라 시계열 자료 비교가 어려워 이전 자료는 제시하지 않음.

[그림1] 2021년 성인(만25~64세)의 평생학습 참여율(전체, 성별, 연령별)



<표 3> 2000년~2022년 고등교육 이수율

(단위: %)

구분	25세~64세(성인전체)		25세~34세(청년층)		55세~64세(장년층)	
	한국	OECD 평균	한국	OECD 평균	한국	OECD 평균
2021년	51.7	41.1	69.3	46.9	-	-
2020년	50.7	40.3	69.8	45.5	25.1	28.8
2019년	50.0	39.6	69.8	45.0	24.4	28.3
2015년	45.0	35.0	69.0	42.0	18.0	26.0
2010년	40.0	30.0	65.0	37.0	13.0	22.0
2005년	32.0	26.0	51.0	32.0	10.0	19.0
2000년	24.0	22.0	37.0	26.0	9.0	15.0

주 1) 조사대상: 25~64세, 연도는 조사 기준 년도임.

2) 고등교육 이수율 = 고등교육단계 학력 소지자 수 / 해당 연령 전체 인구 수

3) 원자료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 OECD(각 년도),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K-SDG4.3의 세 번째 지표인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 금액’ 관련하여 2011년부터 국가장학금 제도 시행으로 고등교육 국가장학금 전체<sup>9)</sup> 규모와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2011년: 550,535백만 원, 279,715건 / 2021년: 3,932,466백만 원, 3,152,514건) 이 중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9) 한국장학재단 2021 통계연보(2022), p.18~19의 장학금 지원 현황 총계에서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을 제외함

<표 4> 고등교육 연도별 국가장학금 규모(2011~202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금액	550,081	2,839,271	3,807,938	3,924,736	3,972,589	4,076,289	3,932,466
소득연계금액	359,753	2,614,127	3,554,417	3,574,243	3,513,668	3,528,375	3,426,0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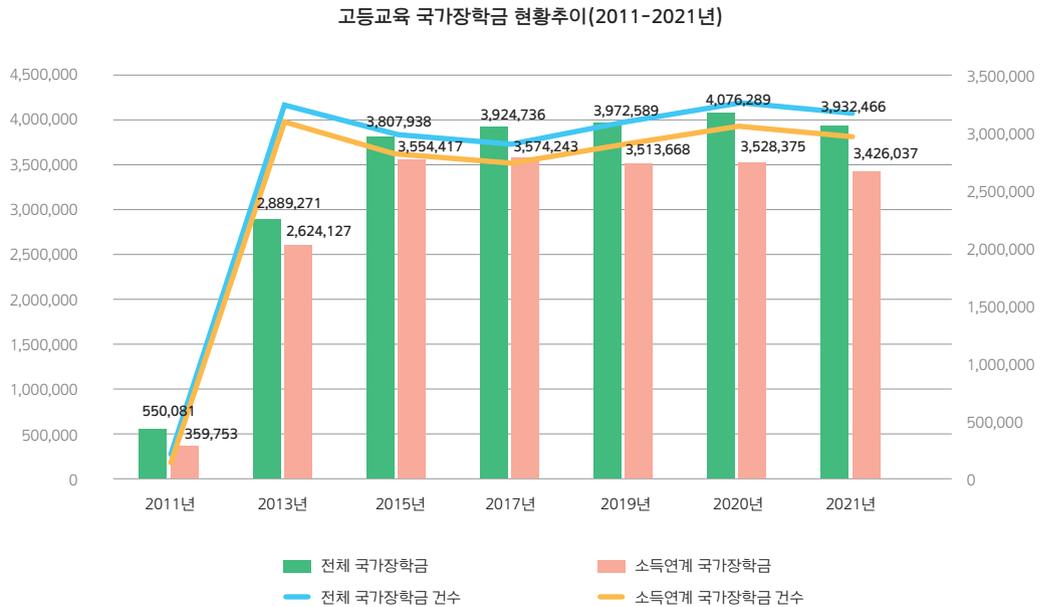
<표 5> 고등교육 연도별 국가장학금 전체 건수(2011~2021년)

(단위: 건)

구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건수	279,715	3,185,697	2,959,777	2,887,929	3,085,989	3,253,017	3,152,514
소득연계 건수	198,722	3,081,160	2,837,988	2,736,422	2,900,672	3,037,211	2,942,877

출처: 한국장학재단(2022: 18-19). 한국장학재단 2021 통계연보.

[그림2] 연도별 고등교육 국가장학금(전체) 지원 추이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개인적인 배경(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경우 고등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 1인당 연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수혜 금액은 2012년 약 169만 원에서 2015년 약 310만 원, 2018년 약 343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2021년 연간 학생 1인당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수혜금액은 약 331만 원이다(<표 6> 참조).

<표 6> 학생 1인당 연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수혜 금액(2012~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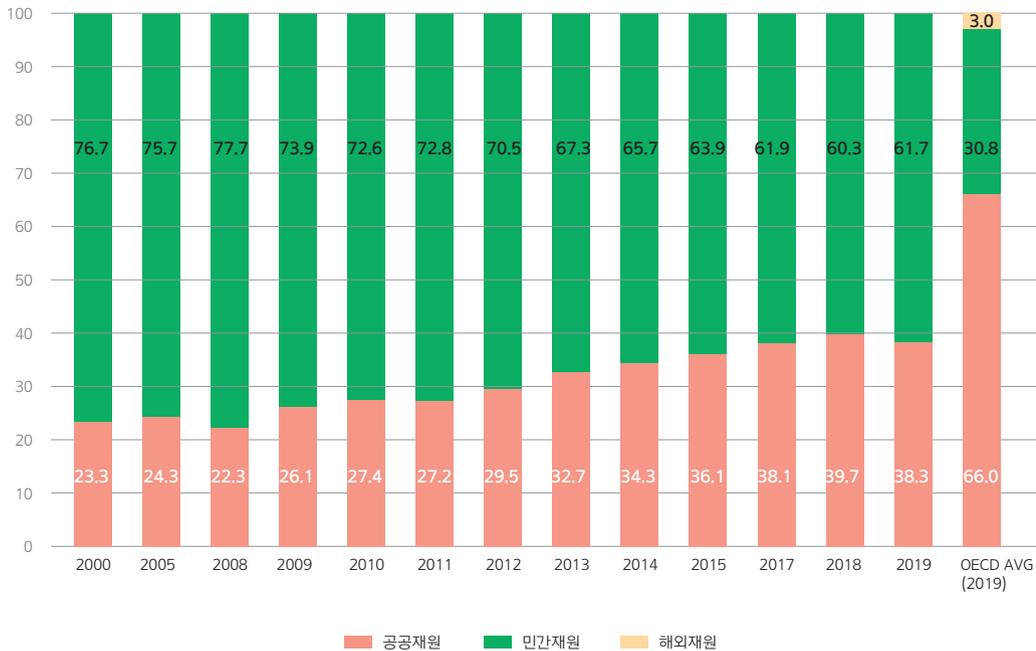
(단위: 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인당 금액	1,693,948	2,229,489	2,711,498	3,099,528	3,104,491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3,189,167	3,425,492	3,340,566	3,316,211	3,313,058

- 주 1.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제공받(2022. 12. 14)
- 2. 대상은 대학 전체(4년제 대학, 전문대학)임
- 3. 수혜 대상은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1유형, 2유형(지역인재 포함), 다자녀)이며, 학기별 중복 제거한 연간 순 인원 기준  
(예: 1학기과 2학기 동시 수혜한 학생은 1명으로 집계함)
- 4. 2014년까지 금액은 지급기준(연중 반환금액 미반영), 2015년부터는 수혜기준(연중 반환금액 반영)임

마지막으로, OECD(2022)에 따르면, ‘고등교육단계 GDP 대비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은 2019년(2022년 발표) 0.6%로 전년과 동일하며, OECD 평균인 0.9%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 공교육비에 대한 정부-민간 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2019년(2022년 발표) 정부지출이 38.3%, 민간지출이 61.7%로 정부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 OECD 평균 고등교육 공교육비에 대한 정부지출 66.0%, 민간지출 30.8%와 반대 양상을 보인다. 이에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등교육 공교육에 대한 정부지출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고등교육단계의 공공 및 민간 재원 비율



출처: OECD(각년도).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 2. 2022년 국내 대학 SDGs 실천사례<sup>10)</sup>

여기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공동 개최한 고등교육전문가 토론회 ‘대학에서 SDGs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국내·외 대학의 사례’(2022. 11. 3)에 소개된 대학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먼저, 고려대의 경우 대학의 SDGs/ESG 실천을 통한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2021년 4월 ESG 위원회와 사회공헌원을 신설하여 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이후 단과대별 SDGs 교육을 위한 교과, 특강, 포럼, 컨퍼런스,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학원에서는 사회공헌원을 중심으로 SDGs 기반 교육 격차 해소라는 목표하에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사회 혁신형 교육 ODA, 지역사회 혁신형 산학협력, 지역사회 환경생태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그림4] 참조).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에는 2021년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숙명 비전 2030(2021.5)을 선포하고, 5개 분야인 교육, 연구, 산학, 재정, 경영을 통해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두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학들은 사회적 역할로서 ESG/SDGs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대학의 교육과 활동을 통해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사례 1) 고려대학교의 SDGs/ESG 실천사례

○ 고려대학교는 지역사회 및 글로벌 문제 해결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Living Labs 으로서의 대학의 리더십 및 솔루션 역할 강화해야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실천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2021년 4월 ESG 위원회와 사회공헌원을 신설하여 SDGs 실천을 위한 조직과 체계를 갖추

○ 고려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의 SDGs기반 활동사례

#### 고려대 단과대별 SDGs 교육: 교과, 특강, 포럼, 컨퍼런스, 아카데미 (2021년도)



##### 법학대학원

- 국제 기후변화 법제 포럼



##### 경영대학

- 고려대-국제ESG협회 글로벌 ESG 렉처 시리즈, 경영대학 기업지배연구소 ESG 해외 석학 초청 포럼, 사회적가치 연구 공모전, 기업경영연구원 KUBS Business Insights(세미나), 스타트업연구원 특강, 고려대-SK SUPEX-사회적가치 경영학 교육혁신 프로그램, 고려대 경영대-KB국민은행 사회공헌 MOU 등



##### 정경대학 & 평화와민주주의 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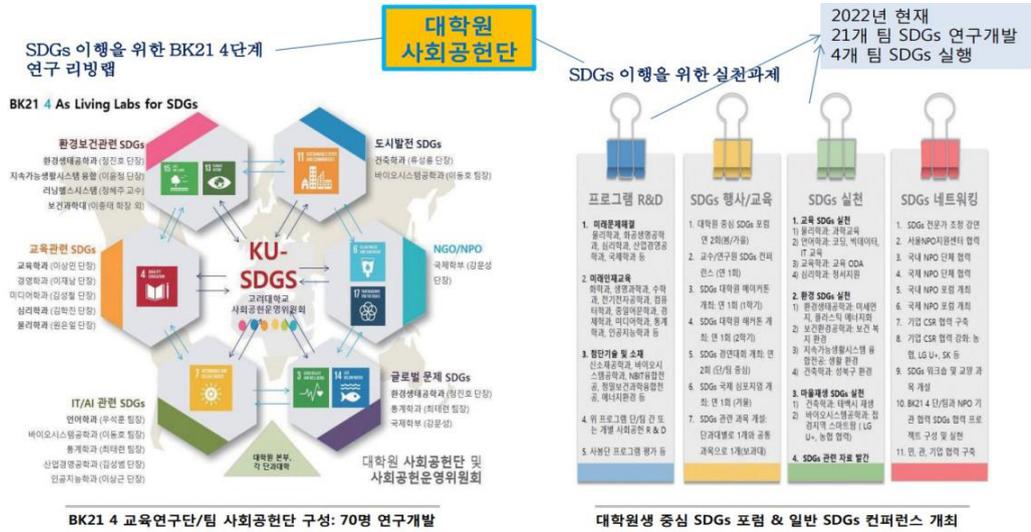
- SDGs 관련 학술행사, 평화와민주주의 연구소 시민교육 Series, 평화와민주주의 연구소 워크숍, 수당 콜로키움 '소득 불평등과 이념, 그리고 대외 원조', 고려대 정경대 시민대학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시민과 세계',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세미나, 경제연구소 심포지엄 등



##### 공과대학

- 고려대 공과대학-삼성전자 친환경에너지연구소 설립, SDGs 관련 공과대 리빙랩 공모전, 고려대 기산학 연 'kt 잘나가게' 컨설팅 공모전, 고려대 기산연 지역상원 활성화 '스마트 풀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등

[그림 4] 고려대학교의 SDGs 실천사례



출처: 어도선(2022). "대학에서의 SDGs 실현: 현황과 전망", 제25회 고등교육 전문가토론회 자료집, 한국대학교육협의회·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사례2) 숙명여자대학교의 SDGs/ESG 실천사례

○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는 ESG/SDGs를 이행하기 위해 숙명 2030 비전을 선포 (2021.5)하고, ‘공유와 상생’이라는 목표하에 5개 분야인 교육, 연구, 산학, 재정, 경영을 통해 ESG/SDGs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함.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숙명 2030 비전



10) 한국대학교육협의회·유네스코한국위원회(2022년 11월 3일)의 '대학에서 SDGs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국내·외 대학의 실천 사례'의 발표 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그림5] 숙명여자대학교의 ESG/SDGs 실천사례



출처: 문형남(2022). "대학에서 SDGs 실천 방안, 국내·외 대학 사례", 제25회 고등교육 전문가토론회 자료집, 한국대학교육협의회·유네스코한국위원회.

### 3. SDG4.3 이행 촉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고등교육분야(SDG4.3)의 목표는 누구나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평생교육 기회까지 보장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기 위해 설정한 우리나라 목표를 중심으로 국내 이행현황을 점검하였고, SDGs를 실천하고 있는 국내 대학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향후 SDG4.3 이행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되어야 과제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K-SDG4.3 지표를 통해 한국의 SDG 이행현황을 살펴보면, 성인의 고등교육 참여는 큰 폭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여전히 고등교육에 대한 인식이 다양화되지 않고, 대학이 사회와 맺고 있는 관계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에서 성인학습자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학위·비학위 과정을 기획하고, 성인학습자의 재교육 및 시설 이용을 위한 전향적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고등교육 이수율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고등교육은 1990년대 양적인 팽창이 급격히 이뤄지면서 이미 보편교육의 단계에 도달해 있다. 향후에는 사회적인 변화에 따른 위기(세계화, 인구 감소와 기후 위기, 신냉전 체제 등)에 대한 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공익적 성격에 더하여 질적 수준의 제고와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평생학습 주기를 반영한 양질의 고등교육 기회 확장, 고등교육 여건의 개선, 양질의 고등교육 격차 해소 등에 보다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최

근 한국 사회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부담이 충분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교육비 내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고등교육재정을 보전하려는 정책적 노력보다는 전체 규모의 증액을 통해 미래사회의 새로운 전환적인 교육 로드맵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국가-민간-대학 차원의 협업 체제가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SDG4의 국내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하는 K-SDG 지표가 현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과 이를 개선한 새로운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행점검을 위한 현재 지표들이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이라는 목표를 고려할 때 대체 지표로서 충분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간의 성과로 제시된 통계에서 지표명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자료 확보 및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SDG 지표는 성별 분석이 필수적인데 현재 K-SDGs 고등교육분야 세부지표에서는 이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총괄하는 조직도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12개월 동안 형식 및 비형식교육·훈련에 참여한 성인 비율 지표와 관련하여 많은 OECD 국가에서는 유럽의 성인교육조사(Adult Education Survey: AES) 자료를 활용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국제성인역량평가(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도 PIAAC에 참여 중이므로 가용한 최근 데이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세계고등교육회의(2022, 5월 개최)에서 진행된 고등교육의 미래에 대한 논의에서도 고등교육의 공평한 접근, 포용성, 교육 격차와 양극화 해소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있었다(김정희, 2022).

셋째, 2022 세계고등교육회의(2022, 5월 개최)에서는 2030년과 그 이후를 위한 고등교육 로드맵이 발표되었다. 여기에서 미래지향적 목표설정과 그 달성을 모니터링하는 체제 구축, 고등교육 질 보장과 지속적 개선을 위한 인증체제 구축, 유연한 학습경로 인정, 이동성과 국제화, 역량개발과 관련된 고등교육의 연구와 혁신, 데이터의 생산 보급 및 활용과제, 고등교육에서의 글로벌 대화 및 협업체제 구축, 공유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체제, 향후 일정 제시의 8대 과제가 발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지금부터 2030 이후를 준비하기 위한 로드맵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국내 대학들의 SDGs 실천 우수 사례의 공유, 확산을 통해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SDGs를 실천하고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대학 현장에서는 SDG4 이행과 확산을 위해서 먼저,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새로운 변화와 접근방식도 함께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외 대학의 실천 사례의 공유·확산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개별 대학 차원에서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김정희, 2022).

## 참고문헌

---

- 교육부·유네스코한국위원회(2021). 2021 대한민국 SDG4 이행현황보고서.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1). 2021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 김정희(2022). “2022 세계고등교육회의에서 확인한 고등교육의 미래에 대한 제언”토론문, 제6회 SDG4-교육2030 포럼 자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pp.103-105.
- 문형남(2022). “대학에서 SDGs 실천방안, 국내·외 대학 사례”, 제25회 고등교육 전문가토론회 자료집, 한국대학교육협의회·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어도선(2022). “대학에서의 SDGs 실현: 현황과 전망”, 제25회 고등교육 전문가토론회 자료집, 한국대학교육협의회·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8). 지속가능발전목표.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22). 제6회 SDG4-교육2030 포럼 자료집.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2.4.26).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보도자료,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보도 첨부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유네스코한국위원회(2022). 대학에서 어떻게 SDGs를 실천할 수 있는가: 국내외 대학의 사례, 제25회 고등교육 전문가토론회 자료집.
- OECD(2021). Education at a Glance, 한국교육개발원 역, OECD 교육지표,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OECD(2022).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 지속가능발전 포털 <http://ncsd.go.kr/ksdgs?content=3>(2022.11.10. 자료인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 <http://www.acdemyinfo.go.kr>(2022.11.10. 자료인출)

# SDG4.4(직무스킬) 이행현황 점검 및 제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류기락 고용능력·자격연구본부장

## 1. 2022년 SDG4.4 직무 스킬 이행현황과 주요 쟁점

SDG4.4(직무 스킬)는 SDG4-교육2030의 세부목표 중 하나로서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을 포함하는 적절한 기술을 지닌 청소년과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늘린다’라는 목표를 제시한다. 이 세부목표는 직무에서 요구하는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인적 역량과 관련되어 있으며, 전문기술과 직업기술을 갖춘 인적 자원의 양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1).

직무 스킬의 세부목표와 지표는 [표 1]과 같다. 여기에는 세 가지 지표가 있는데 첫째, ICT 역량을 보유한 청소년 및 성인 비율(역량 유형별), 둘째, 디지털 리터러시의 최소 숙달 기준을 달성한 청소년 및 성인 비율, 셋째, 연령 집단별, 경제 상황별, 교육 수준별, 프로그램 유형별 청소년/성인의 교육 이수율이 바로 그것이다. 해당 지표와 관련한 국내 통계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며, 세 번째 하위 지표는 주로 ‘평생학습 참여율’과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등이 중점 지표로 설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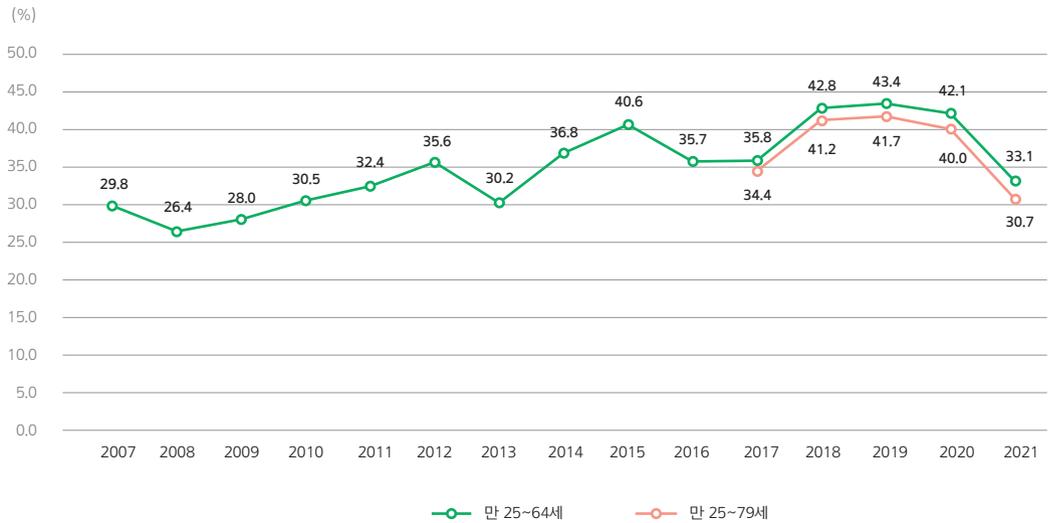
[표 1] SDG4.4 세부목표와 지표

SDG4.4 세부목표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을 포함하는 적절한 기술을 지닌 청소년과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늘린다		
구분	SDG4.4 지표	K-SDG4.4 세부지표
스킬	ICT 역량을 보유한 청소년 및 성인의 비율(역량 유형별) 4.4.1	
	디지털 리터러시의 최소 숙달 기준을 달성한 청소년 및 성인 비율	
	연령 집단별, 경제활동 상황별, 교육 수준별, 프로그램 유형별 청소년/성인의 교육 이수율 <평생학습 참여율>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K-SDGs 중점 지표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9: 37)

[그림 1]은 2007-21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에서 확인된 평생학습 참여율 추이를 제시한 것이다. 평생학습 통계에서 공식 교육을 이수한 이후 25-64세 성인 집단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007년 29.8%에서 2012년 35.6%로 증가하였으며 2015년 40.6%로 증가했다. 2016-17년에는 다소 하락하였다가 2018년에는 42.8%, 2019년에는 43.4%로 증가하였다. 2020년 42.1%로 다소 감소한 이후, 2021년에 33.1%로 약 9%p 감소하였는데,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그림 1] 평생학습 참여율 추이: 2007-2021년



자료: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각 년도

주: 2017년부터 65-79세 성인을 조사 대상에 포함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2021년 국가평생교육통계조사' 결과발표(2022.1.19.)에서 인용

[표 2]는 SDG4.4의 두 번째 지표인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2021년 SDG4 이행보고서는 해당 지표를 구직자 수 대비 직업훈련 참여자 수로 산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산출은 직업교육훈련 참여 대상을 구직자로 제한하기 때문에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의 대상 확대 추이에 따라 개편될 필요가 있다. 사업주 훈련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인원과 예산 규모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직무능력 향상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25-64세 경제활동인구 중 재직자 훈련과 실업자 훈련, 공공 훈련에 참여한 인원을 합하여 직업훈련 참여 인원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25-64세 경제활동인구 대비 직업훈련 참여 인원 비율을 계산하여 직업훈련 경험 비율 지표를 산정하였다.

[표 2]에서 2017년 직업훈련에 참여한 인원은 약 404만 2천여 명으로 경제활동인구(25-64세) 대비 약 17.0%가 직업훈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2018년에는 21.9%로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는 17.8%로 4.1%p 감소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에

는 이 지표가 12.4%까지 대폭 하락하였으며 2021년에는 14.1%로 다소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이는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외부적 충격과 직업훈련 참여 자체의 감소가 중첩된 것이다.

[표 2] 경제활동인구와 직업훈련 참여 인원, 직업훈련 경험 비율 (단위: 천명, %)

연도	경제활동인구* (15-64세: A)	15-24세 경활인구 (B)	경제활동인구 (25-64세: C=A-B)	직업훈련 참여인원(D)**	직업훈련 경험비율 (=D/C) * 100
2017	25,520	1,801	23,719	4,042	17.0
2018	25,515	1,672	23,843	5,224	21.9
2019	25,564	1,641	23,923	4,263	17.8
2020	25,134	1,501	23,633	2,933	12.4
2021	25,198	1,519	23,679	3,340	14.1

주: \* 경제활동인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SIS: <https://url.kr/jow79y>에서 직접 추출, 최종접속일 '22.12.3)

\*\* 직업훈련 참여 인원은 e-나라지표의 '대상별 훈련종류별 훈련현황' 자료의 각 년도 인원을 제시한 것임. 훈련 참여 인원은 실업자 및 취약계층 훈련, 사업주 및 재직자 훈련, 인력 부족 분야 훈련 참여 인원을 합한 것임.

사업주 및 재직자 훈련은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일반훈련, 대중소상생형, 지역·산업맞춤형, 미래유망분야, 산업계 주도 청년맞춤형 포함), 유급휴가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재직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전략형), 중소기업학습조직화사업,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 능력개발지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지원 등 실적 현황을 합한 것임. 실업자 및 취약계층 훈련은 국민내일배움카드(실업자) 실적 현황, 인력 부족 분야 훈련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전문기술과정 양성훈련, 다기능기술자 등 훈련, 직업훈련 교원 및 HRD 담당자 양성훈련 실적 현황을 합한 것임.

자료: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현황, e-나라지표 ([https://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500](https://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500), 최종접속일 '22.12.3)

[표 3]은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결과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직업능력개발 사업 현황의 직업훈련 참여 인원 통계로 SDG4.4 지표에 대한 수치를 제시한 것이자, 2021년 대한민국 SDG4 이행 현황 보고서의 해당 지표를 새로운 자료에 기반하여 업데이트한 것이다. 세부목표에서 평생학습 참여율이나 직업훈련 경험 비율은 모두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 평생학습과 직업교육훈련이 지속가능발전 규범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제도 개선의 여지가 크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표 3] K-SDG4.4 직무 스킬 지표 현황과 목표치

구분	지표명	수치 추이	목표
K-SDGs 세부목표 4.4	(1) 평생학습 참여율*	2019: 43.4% 2021: 33.1%	2030: 50.0% 2040: 지속 확대
	(2)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2019: 17.8% 2021: 14.1%	2030: 40.0% 2040: 지속 확대
	(3) 청소년 및 성인의 ICT 역량 수준	통계 구축 필요	통계 구축 후 확정

주: \*25-64세 기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사업 현황 자료

자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21: 52)의 자료에서 수정, 업데이트함.

## 2. SDG4 이행 촉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제언

지속가능발전 규범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경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위기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우리 사회가 모두를 위한 교육과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영유아 교육이나 초중등 교육 단계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과 평생학습을 거쳐, 일터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공동체에서 여러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역량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디지털 전환에 대처하여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타인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미래 세대와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인지하고 실천하는 능력과 같은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속가능발전 규범은 관련 정책 추진과 집행에 있어 핵심 기제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직무 스킬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 규범 SDG4 이행 촉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크게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지속가능발전 이행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나라의 평생학습과 직업능력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동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의 규범은 글로벌-지역-일국 차원의 조정 기제들이 중첩되어 해당 국가의 정책으로 자리잡거나 단순하게 이식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는 유엔 고위급 정치 포럼 등에 참여하고 자발적 국가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이라는 교육2030의 의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K-SDG를 추진하면서 관계 부처와 민간 작업반,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여 상향식 추진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환경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 부처의 협의체와 실무 TF가 만들어져 실제 지표를 구성하였다. 직무 스킬 분야는 상대적으로 지표 구성이나 참여 주체 간 의견 조정 등이 더딘 편인데 기업을 비롯한 민간 부문에서 환경사회거버넌스(ESG)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는 것과 발맞추어 평생학습과 직업능력 정책도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을 비롯한 복합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지속가능발전 세부 목표의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견고한 데이터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앞서 검토하였듯이 직업훈련 경험 비율 지표의 경우에도 관계 부처나 전문가 간 논의가 부족한 편이며 고용보험 DB나 직업훈련정보망(HRD-Net) 등의 집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입직 단계 구직자 못지않게 재직자에 대한 이직 및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데이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평생직업능력 제고 관점에서 교육훈련 참여 기회의 포용성과 형평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보다 구체적으로 SDG 4.4의 평생학습 참여율이나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을 직업능력 정책의 주요 사업이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성과 모니터링에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관련 사업의 성과 평가가 여전히 단기 사업 성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사회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도출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발전 규범의 목표나 지표 가운데 영향 평가 지표가 다수 있기 때문에 이를 체계화하여 직업능력정책과 일자리 정책 재편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SIS:<https://url.kr/jow79y>(2022.12.03. 자료인출)
- 고용노동부(2022). 직업능력개발 사업현황. 세종: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현황, e-나라지표 [https://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500](https://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500) 2022.12.03. 자료인출
- 교육부(2021). 보도자료 '2021년 국가평생교육통계조사' 결과발표 (2022.1.19.). 세종: 교육부.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21). 2021 대한민국 SDG4 이행현황 보고서. 서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SDG4.5(교육형평성) 이행현황 점검 및 제언

## 1 성평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윤정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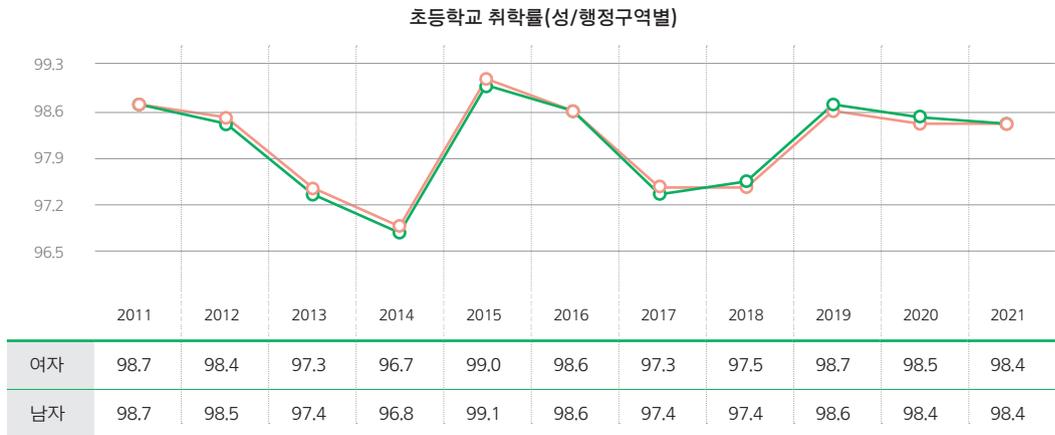
### 1. 2022년 이행현황 점검 (주요 현황, 이슈 등 중심)

#### 가. 주요 교육 지표의 점검

##### 1) 취학률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남녀 학생의 초등학교 취학률은 그 경향이 매우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2017년까지 남학생의 초등 취학률이 일관되게 여학생 수치보다 약간 높고, 2017년 이후 여학생이 약간 높게 나타난다. 다만, 올해 확인된 초등학교 취학률은 2021년 기준 여학생 98.4%, 남학생 98.4%로 동일하며, 2020년(여성 98.5%, 남성 98.4%) 대비 여학생의 초등학교 취학률은 0.1%p 감소하였고, 남학생은 동일하였다.

[그림1] 성별 초등학교 취학률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에서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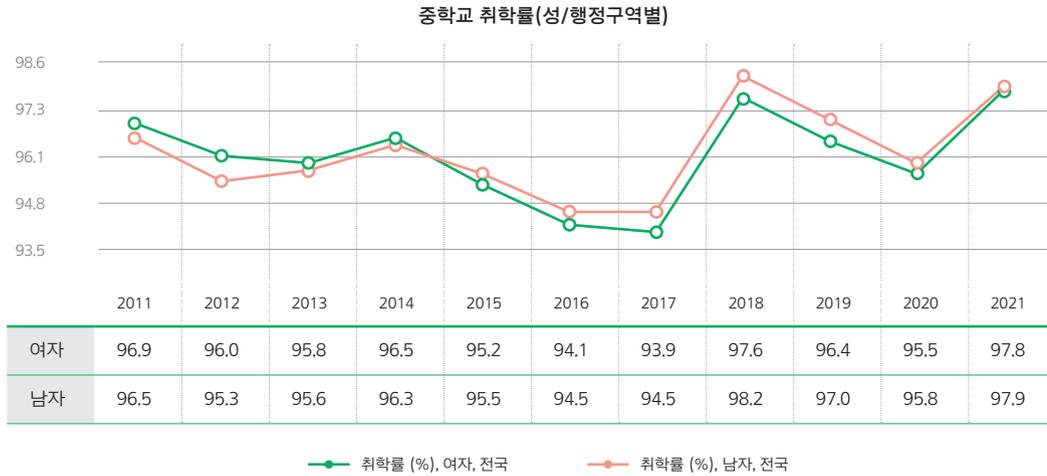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LCD042&conn\\_path=I3](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LCD042&conn_path=I3)

—●— 취학률 (%), 여자, 전국      —●— 취학률 (%), 남자, 전국

중학교 취학률의 경우 전체적인 경향은 남녀학생이 유사하나, 초등학교 취학률에 비해 연도별, 성별별 격차가 좀 더 뚜렷하다. 2014년 이후 남학생의 중학교 취학률이 지속적으로 여학생에

비해 높았다. 2021년에도 여학생 97.8%, 남학생 97.9%로 거의 유사하나, 남학생이 0.1%p 더 높다. 그러나 이는 2020년(여 95.5%, 남 95.8%)에 비해 차이가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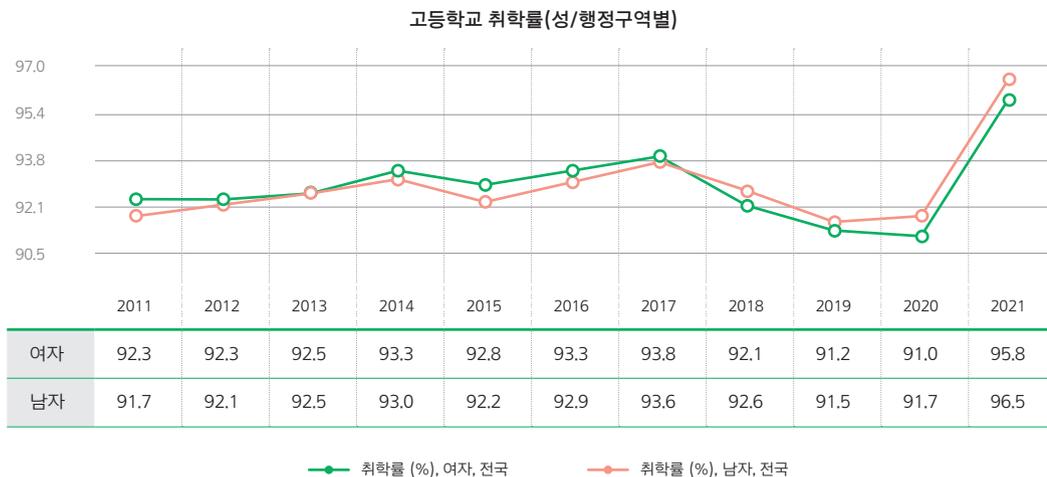
[그림2] 성별 중학교 취학률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에서 인출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LCD043&conn\\_path=I3](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LCD043&conn_path=I3)

고등학교 취학률은 그간 지속적으로 90% 초반대를 기록하였으나, 2021년에는 남녀 수치 모두 급격히 증가하여 95%를 상회한 역대 최고 고등학교 진학률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이후 여학생의 고등학교 취학률은 꾸준히 남학생보다 낮게 나타나며, 2021년에도 여학생의 고등학교 취학률은 95.8%, 남학생은 96.5%로 남학생이 0.7%p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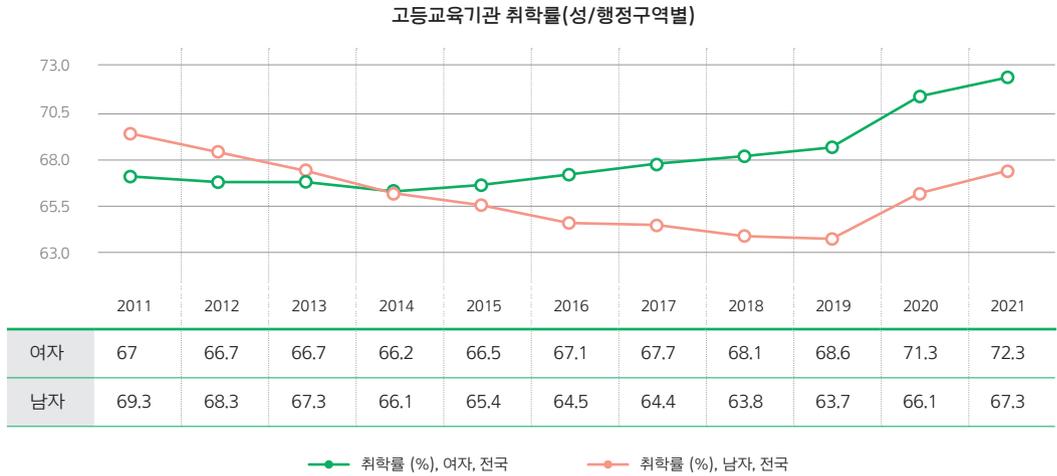
[그림3] 성별 고등학교 취학률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에서 인출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LCD043&conn\\_path=I3](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LCD043&conn_path=I3)

고등교육기관 취학률<sup>11)</sup>은 2014년을 기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월등히 높은 추이를 지속하고 있다. 초·중등교육과 달리 고등교육 취학률은 남녀학생의 경향성이 상이하여 2019년까지 근 십 년 동안 남학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여학생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2019년부터는 남녀학생 모두 상승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2021년 여학생의 고등교육 취학률은 72.3%, 남학생은 67.3%로 여학생이 5%p 더 높고, 이는 2020년 대비 각각 여학생 1.0%p, 남학생 1.2%p가 상승한 것이다.

[그림4] 성별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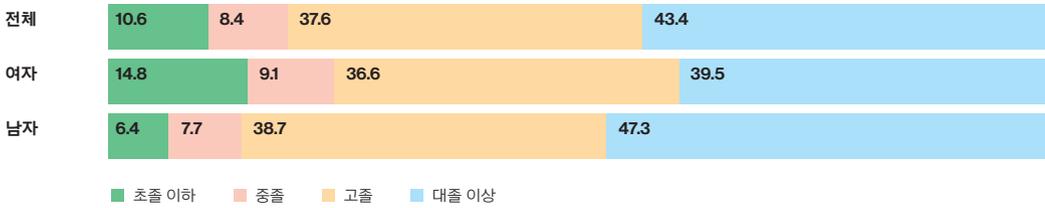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에서 인출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LCD043&conn\\_path=13](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LCD043&conn_path=13)

초·중등교육에 있어 성별 취학률의 격차는 매우 유사한 수준에 있으나, 최근의 경향들은 남학생의 취학률이 여학생보다 미세하게 높은 경향을 꾸준히 보인다. 2021년 지표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격차가 줄어든 것은 긍정적이나,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으므로 추후 관찰이 필요하다. 그러나 젊은 층에서의 학력 격차 해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단기간의 고도성장 및 급격한 교육의 발전으로 여전히 국민 전체에서 여성의 학력은 남성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형국이다. 2020년 기준 대졸 여성의 비율은 39.5%로 남성(47.3%)에 비해 8%p 이상 낮다.

11)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진학을 지표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나, 우리나라 특유의 재수(또는 그 이상) 문화가 강한 것으로 고려하면, 진학률이 고등교육 진입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하기에 한계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취학률 또한 명확한 지표는 아니지만, 적어도 취학 연령대(만 18세~만 21세)가 포진하고 있어 진학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재수의 영향을 덜 받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대학 대학생 중 여학생 비율은 42.7%(2021년 기준)로 여학생 비율이 45%를 상회한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림 5] 국민의 성별 학력 분포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에서 인출,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XC1002&conn\\_path=I3](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XC1002&conn_path=I3)

## 2) 학업중단률

학업중단율의 경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각각 0.4%, 1.1%로 동일하게 나타나나, 중학교는 남학생 0.4%, 여학생 0.5%로 여학생의 학업중단율이 약간 더 높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들어 지속되고 있는데, 2017년부터 여학생의 중학교 학업중단율은 약간의 차이지만 꾸준히 남학생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18년과 2019년 모두 여학생의 학업중단율이 높았으나, 2019년에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최근 들어 중등교육에서 여학생들이 이탈하고, 그것도 비교적 일찍 이탈하는 경향이 관찰되는 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겠다.

[표 1] 성별·학교급별 학업중단률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초등학교	남	0.6	0.6	0.6	0.6	0.5	0.6	0.6	0.7	0.7	0.4
	여	0.6	0.6	0.6	0.5	0.5	0.5	0.6	0.7	0.7	0.4
중학교	남	0.9	0.9	0.8	0.7	0.6	0.6	0.6	0.7	0.7	0.4
	여	0.9	0.9	0.8	0.7	0.6	0.6	0.7	0.8	0.8	0.5
고등학교	남	2.1	2.0	1.7	1.5	1.4	1.4	1.5	1.6	1.6	1.1
	여	1.7	1.6	1.4	1.3	1.2	1.3	1.5	1.7	1.8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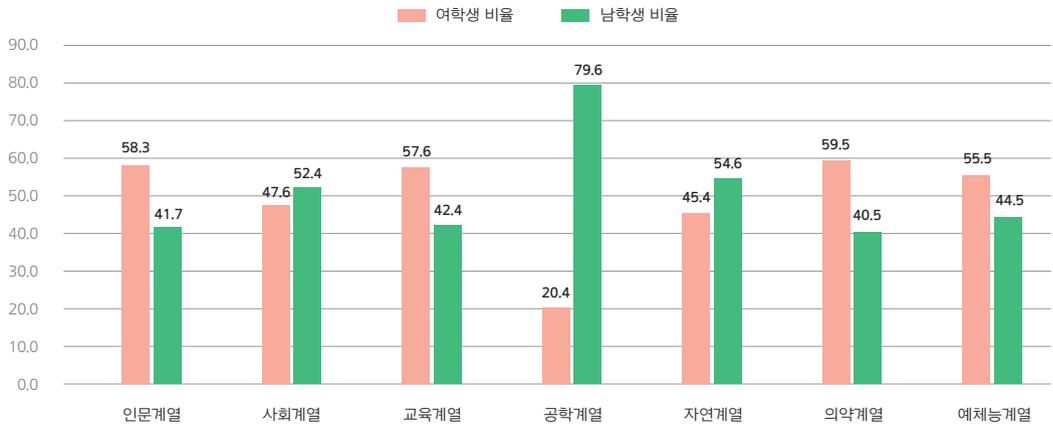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21). 2021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p.70.

## 3) 대학 내 전공계열

한편, 대학 내 남녀학생의 전공계열은 과거에 비해 편차를 줄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열별 및 성별 경향은 남아 있는 상태이다. 남학생들은 여전히 공학계, 자연계에서 비중이 두드러지고, 인문계, 교육계, 의약계, 예체능계는 여학생들이 강세이다. 특히 공학계열은 모든 계열 중에서도 가장 성별 격차가 심화된 영역이다. 정부가 2003년부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추진하고 있으나,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해소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도 더디게 그 격차는 줄어들고 있으며, 2020년 처음으로 여학생 비율(20.1%)이 20%를 상회한 것에 이어 2021년에는 20.4%로 0.3%p 증가하였다.

[그림 6] 성별 대학 전공계열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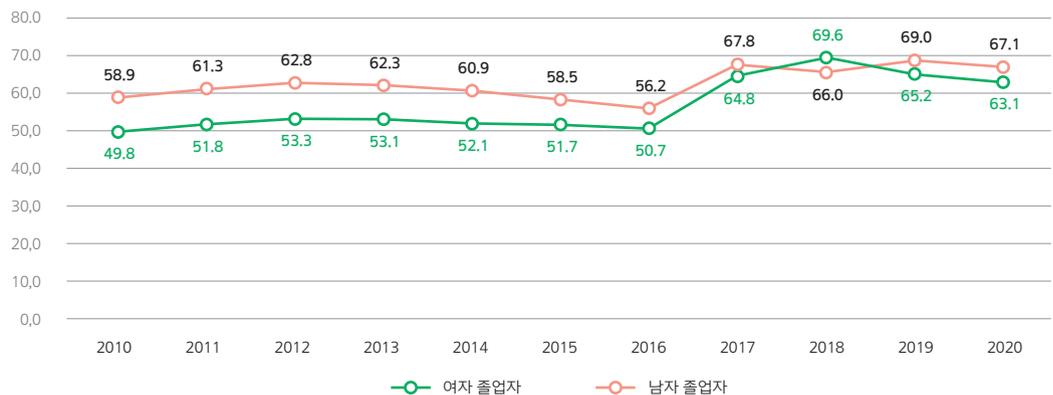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21). 2021 교육통계연보. 재구성

#### 4) 고등교육 이수자의 취업률

고등교육이수자의 취업률은 여성 졸업자가 63.1%, 남성 졸업자가 67.1%로 남성이 4.0%p 더 높다. 대졸 취업률의 남성 우위는 전통적으로 지속된 경향으로 최근 5년간 그 격차가 줄어들어 2018년 일시적으로 여학생의 취업률이 남학생을 상회한 적이 있으나, 그 뒤로는 다시 기존과 같은 남성 우위로 돌아섰다. 2020년 졸업자의 성별 취업률 격차(4.0%p)는 2019년(3.8%p)보다 약간 더 심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여학생의 대학 진입이 남학생을 상회하는 와중에도 졸업 후 고등교육에 대한 수익(return)은 남학생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7] 대졸자의 성별 취업률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에서 인출

[https://g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0D0030&conn\\_path=13](https://g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0D0030&conn_path=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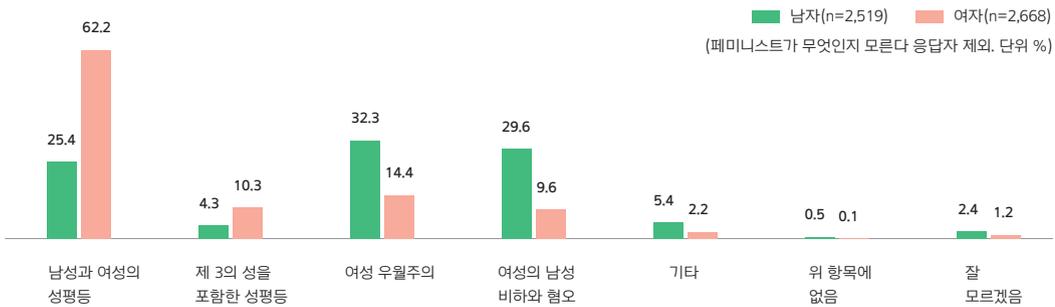
## 나. 청소년의 문화와 성평등 이슈

### 1) 청소년 내 성별 갈등과 젠더폭력 위협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사회 갈등 중 하나는 성별 갈등이며, 이는 청소년층 내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중고등학생의 33.9%가 성차별 경험이 있고, 27.8%가 성희롱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성차별·성희롱 경험 학생의 82.4%(성차별), 87.0%(성희롱)가 학교에서 이를 경험했고(최윤정 외, 2019a: 330-332), 가해자의 상당 비율이 또래 청소년으로 확인된다(최윤정 외, 2019a). 청소년의 성차별·성희롱 경험은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여성 청소년의 성차별 경험률은 40.9%로 남성 청소년(27.5%)보다 13.4%p 높고, 성희롱 경험률은 31.0%로 역시 남성 청소년(24.8%)보다 높아 여학생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최윤정 외, 2019a:51,75). 이는 온라인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된다.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34.4%가 게임 중 성차별이나 혐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최윤정 외, 2020:87). 특히 ‘패드립’은 청소년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혐오 표현으로 이때 ‘패드립’의 대상은 보통 여성인 ‘어머니’로 상정된다(최윤정 외, 2020:88-89).

혐오 표현의 증가와 함께 남녀 청소년 간 성평등 의식의 격차도 뚜렷한 경향의 차이를 보인다. 남학생들은 여학생에 비해 성역할 고정관념이 최소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의 권리 주장에 대해서 여성들이 권리만 내세우며, 우리 사회에서 발언권이 높다고 생각하는 등 여학생들과 큰 시각 차이를 보인다(최윤정 외, 2020:485). 페미니즘을 이해한다고 응답한 남학생<sup>13)</sup>들의 61.9%는 페미니즘을 여성우월주의 또는 여성의 남성 혐오라고 이해하고 있었다(최윤정 외, 2020:336).

[그림8] 자신이 생각하는 페미니스트에 대한 개념



출처: 최윤정 외(2020). 또래문화를 통해 본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과 태도 연구(1), p.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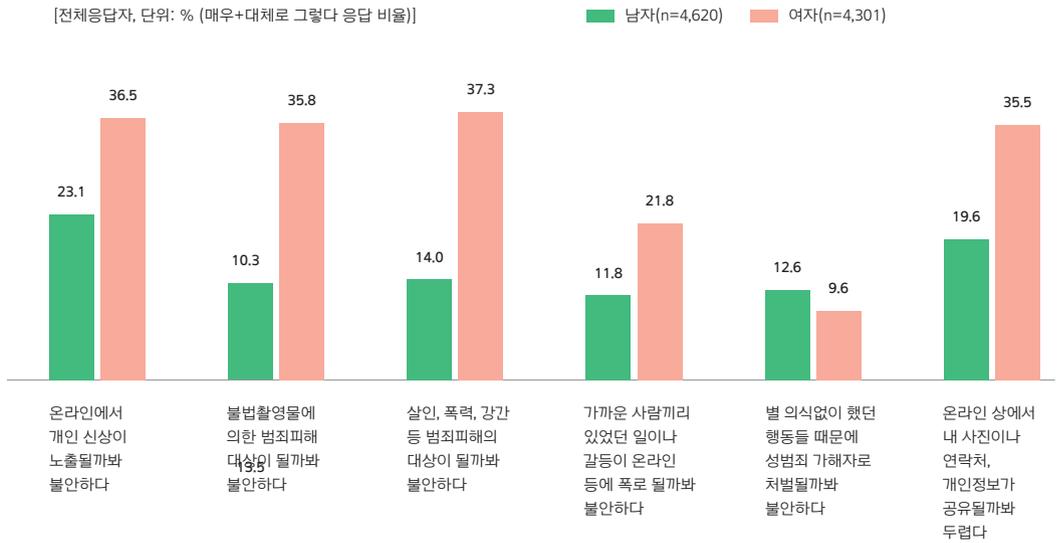
12) '패륜적 드립'의 줄임말로 부모님이나 조상 등 가족을 모욕 거리의 소재로 삼는 혐오 표현의 일종

13) 남학생의 49.7%가 자신은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했고, 45.5%는 페미니스트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했으며, 이를 긍정하는 비율은 4.8%에 불과했다(최윤정 외, 2020:336).

청소년층 내에서도 젠더 의식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에는 이들이 공유하는 온라인상의 문화 자체가 매우 성별화 되어 있고, 성별에 따른 온라인 콘텐츠 향유 방식의 차이가 큰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최윤정 외, 2021). 온라인에서 남성향 콘텐츠와 여성향 콘텐츠가 뚜렷이 구분되며, 여기에는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콘텐츠를 피드(feed)하는 알고리즘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나, 자율 규제 외에 현재까지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형국이다(최윤정 외, 2021).

이러한 온라인 환경은 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진다. 2020년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입법 조치 등이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와 성범죄에 대한 불안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여성 청소년의 삼분의 일 이상이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불법 촬영물이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까봐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최윤정 외, 2020:280).

[그림9] 청소년의 범죄 피해 불안감



출처: 최윤정 외(2020). 또래문화를 통해 본 청소년의 성평등의식과 태도 연구(1), p.280.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적 대안은 뚜렷하게 제시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러 가지로 사회적 논쟁이 되어온 교육부의 「2015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폐기 요구에도 불구하고, 학교 성교육은 수년째 답보상태에 있다. 학생들 또한 학교 성교육과 양성평등 교육에 불만족하며, 오히려 학교 성교육이 성별 편견을 강화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최윤정 외, 2020:284-288). 학생들의 인식과 상황에 맞는 교육의 재구성이 시급하다.

## 2. 2022년 국내 우수사례 소개

### 1) 교육기본법 개정과 학교 양성평등 교육의 의무화

가장 큰 변화는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어 학생 대상 양성평등 교육이 명실상부 의무화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의 「교육기본법」은 교육에서의 성차별 금지와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근거 정도가 명시되었으나, 2022년 3월부터 새로 시행된 법에서는 기존 제17조의4항(건전한 성의식 함양)이 폐지되고, 해당 내용이 제17조의2항(양성평등의식의 증진)에 통합됨으로서 학교 양성평등 교육의 범위가 성교육, 성인지 교육, 성폭력예방 교육을 포괄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기존 법에서는 학생 대상 양성평등 의식을 증진하는 것이 법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양성평등의식과 실천 역량을 고취”하는 것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하였고, 그동안 요구가 높았던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한 진로 선택의 지원 또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었다. 무엇보다 양성평등 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학교장의 의무로 명시하여 개별 학교에서 맥락과 상황에 맞는 양성평등 교육의 의무 시행이 명시된 점은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학교 양성평등 교육의 법적 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6조의 권고 조항 정도라 학교에서의 의무 시행에 대한 근거는 미비하였다. 그 외에도 그동안 요구가 높았던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명칭을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변경하는 것 또한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였다.

〈표 2〉 양성평등교육 관련 교육기본법 개정 사항

법	조문
교육기본법	<p>제17조의2(양성평등의식의 증진)</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의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증진하고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며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양성평등의식과 실천 역량을 고취하는 교육적 방안</li> <li>2.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li> <li>3.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li> <li>4.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한 진로선택과 이를 중점 지원하는 교육적 방안</li> <li>5.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li> </ol>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학교의 장은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교육심의회를 둔다.</p> <p>⑤ 제4항에 따른 양성평등교육심의회 위원의 자격·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양성평등기본법> (2022.8.11.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교육기본법> (2022.8.11. 인출).

## 2) 학교 성희롱 성폭력 실태 파악 강화

스쿨미투가 사회적 파장이 크고 여전히 학교 내에서 교사 등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이 지면을 장식하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학교 교육에서 학생의 성희롱·성폭력을 전수조사한 적은 없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성희롱·성폭력 관련 내용은 문항 한 개도 아닌, 한 문항의 답항 수준으로 들어가 있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에 2021년 교육부는 최초로 초·중·고 학생 전수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만 아쉽게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비공개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의미 있는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 2019년부터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전담 기구(現 인권센터)를 대상으로 매년 종사자 교육, 운영 지침 제공 등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21년부터 대학 정보공시 항목에 성희롱·성폭력 전담 기구 운영현황(조직, 인력, 조사 및 심의위원회 구성, 사건처리 규정 등)을 반영하였다. 중요한 변화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모든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인권센터의 설치가 의무화된 점이다. 기존에는 성폭력 상담센터 등의 이름으로 일부 학교에서만 센터가 설치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전문대를 포함 전체 고등교육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및 기타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가 설치된 것이다.

### 〈표 3〉 대학 인권센터 설치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 사항

법	조문
고등교육법	<p>제19조의3(인권센터)</p> <p>① 학교는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li> <li>2.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li> <li>3.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li> <li>4.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1. 3. 23.]</p>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 (2022.8.11.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 (2022.8.11. 인출).

### 3. SDG4.5 교육형평성: 성평등 분야 이행촉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제언

#### 가. 법 개정으로 인한 후속 조치의 요구

우선적으로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교육기본법」 개정에 맞는 구체적인 교육 운영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정된 법에서는 양성평등 의식교육, 성교육, 폭력예방교육, 성인지교육 등을 모두 양성평등교육의 범주로 묶고 이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의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교육부 내에서도 양성평등교육 및 폭력예방교육은 양성평등 정책 담당관이, 성교육은 학생건강과가 담당하는 등 이원화 되어 있고, 폭력예방교육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관리 주체는 여성가족부이다. 따라서 서로 상이한 조직들이 관리하는 교육에 대해 학교장이 어떻게 체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안내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학 인권센터에 대해서도 비슷하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올해 처음 실시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지침과 안내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대학 인권센터의 경우, 기존에 비슷한 조직을 가지고 있던 경우에는 명칭과 구조를 그대로 들고 가거나 약간의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관련 조직의 운영 경험이 전무한 학교의 경우에는 초기 운영까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인권센터의 의무화만 법으로 명시할 뿐 실질적인 지원이 없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크다. 종사자 처우 등 적극적인 인권센터 지원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 나. 교육과정에서의 성평등 관점 반영

현재 교육부는 2022 개정교육과정을 준비 중이며, 연말에 고시를 앞두고 있다. 학생 대상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일관적으로 교육과정에서의 성평등 관점 반영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목해 왔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의 성평등 관련 내용은 매우 특정 과목에 제한되어 있으며, 그 또한 청소년의 성 건강과 성 윤리 중심의 한정된 특성을 보였다(최윤정 외, 2019b). 이에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과목과 다양한 관점에서 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한 내용 요소의 반영이 매우 중요하다. 범교과 학습을 교과 내로 소화하는 것이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이었으며, 새로운 교육과정 또한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양성평등을 위한 별도 교육을 실시하기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내 충분히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같은 맥락에서 성교육 표준안의 개선 또한 현장의 교육가 높은 이슈이다. 교육부가 2015년에 제정한 성교육 표준안은 발표 즉시 성차별적 관점과 내용으로 세간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한 개선 요구는 계속되고 있으나,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향적인 수정 없이 유지되는 상황이다. UNESCO는 2009년에 이어 2018년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으며, 이를 통해 포괄적 성교육(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의 유용성을 천명, 관련 연령대별 교육과정안을 설계 및 제안하였다. 이는 생물학적, 기능적 성교육에서 벗어나 젠더에 대한 이해부터 문화와 사회적 맥락에서 성을 이해하고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라 하겠

다(UNESCO, 2018). 성교육이 성평등의식과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으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며, 그러한 관점에서 학교 성교육의 개선이 요구되는 바이다.

#### 다. 디지털 환경 개선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학생들의 일상은 이전보다 더욱 온라인에 집중되었다. 오프라인의 많은 활동이 제약되었던 일상에 온라인 활동들이 대신 자리 잡고 있고, 이제 학생들의 일상은 오프라인 보다 온라인의 비중이 더 커진 현실이다. 그러나 온라인 환경은 연령을 따로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며, 성인문화가 가감없이 전달되기 용이하고, 그 과정에서 편협하고 성차별적인 인식과 문화가 자라나는 세대의 대안적 가치로 자리 잡아 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러한 환경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며, 실제 범죄 피해의 대상이 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온라인 공간을 규제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온라인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혐오를 거두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이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자율적 정화 노력을 유도하는 정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 [문헌]

- 최윤정·윤덕경·선보영·장희영(2019a). 중고등학교 양성평등 의식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교육부.
- 최윤정·박성정·장희영·김효경·최윤정(2019b). 초·중등 성평등교육의 요구 현실과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윤정 외(2020). 또래문화를 통해 본 청소년의 성평등의식과 태도 연구(I): 남녀 청소년의 또래문화와 젠더의식 격차 비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윤정 외(2021). 또래문화를 통해 본 청소년의 성평등의식과 태도 연구(II): 디지털 콘텐츠 및 온라인 문화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교육개발원(2021). 2021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 한국교육개발원(2021). 2021 교육통계연보.

### [웹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 (2022.8.11.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교육기본법> (2022.8.11.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양성평등기본법> (2022.8.11. 인출).
- 통계청, 인구총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https://g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XC1002&conn\\_path=I3](https://g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XC1002&conn_path=I3) (2022.8.11. 인출)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https://g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QD0030&conn\\_path=I3](https://g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QD0030&conn_path=I3) (2022.8.11. 인출)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https://g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LCD042&conn\\_path=I3](https://g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LCD042&conn_path=I3) (2022.8.11. 인출)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https://g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LCD043&conn\\_path=I3](https://g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LCD043&conn_path=I3) (2022.8.11. 인출)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https://g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LCD044&conn\\_path=I3](https://g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LCD044&conn_path=I3) (2022.8.11. 인출)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https://g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LCD045&conn\\_path=I3](https://g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LCD045&conn_path=I3) (2022.8.11. 인출)

# SDG4.5(교육형평성) 이행현황 점검 및 제언

## ② 장애학생 교육

강경숙 원광대학교 교수

### 1. 2022년 이행현황 점검 (주요 현황, 이슈 등 중심)

교육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애인 교육의 국내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특히 장애학생의 진학률과 취업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지표들이 UNESCO에서 발표한 주요 지표들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교육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고, 주로 국가 간 장애인의 ‘진학률’과 ‘취학률’, ‘문해율’을 토대로 ‘교육 접근성’이 비교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학생의 문해율은 학령기 이후 평생교육에서 학력인정 문해교육으로 다루고 있으므로(교육부, 2022c), 장애학생의 교육 기회 접근성 및 고용 기회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로는 고등학교 및 전공과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전문대 포함) 및 취업률을 통해 국내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장애인 평생교육, 장애 인권 강화 및 공감 문화 확산, 장애학생 행동 중재가 최근 장애학생 교육 분야에서 주요 추진 방향이므로 이 쟁점을 다루고자 한다.

#### 가. 진학률 및 취업률

장애학생의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률과 취업률 파악을 통해 이들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비롯하여 사회통합 및 독립적 생활 영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특수교육 및 장애인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진학률은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과정 졸업자 중 전공과, 전문대, 대학 등 교육기관에 진학한 학생 비율이고, 취업률은 해당 과정(예: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자에서 진학자를 제외한 학생 수에 대한 취업자의 비율로 산정할 수 있다.

〈표1〉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과 취업률

구분	졸업자수	진학		취업		비진학, 미취업자 수	
		진학자 수 (대학/전공과)	진학률(%)	취업자 수	취업률(%)		
고등학교	특수학교	2,167	1,307	60.3	59	6.9	801
	특수학급	3,497	1,795	51.3	559	32.8	1,143
	일반학급	1,098	698	63.6	53	13.3	347
	계	6,762	3,800	56.2	671	22.7	2,291
전공과	특수학교	2,517	29	1.2	1,096	44.1	1,392
	특수학급	99	2	2	76	78.4	21
	계	2,616	31	1.2	1,172	45.3	1,413
전체	9,378	3,831	40.9	1,843	33.2	3,704	

· 진학률 = (당해년도 졸업자 중 진학자 수/당해년도 졸업자 수) × 100 · 취업률 = {취업자 수/(졸업자 수-진학자 수)} × 100

고등학교 및 전공과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전문대 포함)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2년 2월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6,762명의 대학 및 전공과 진학률을 보면, 특수학교 졸업생은 60.3%, 특수학급 졸업생은 51.3%,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 대상자 졸업생은 63.6%이며 전체 진학률은 56.2%이다(2022a). 2017년 자료에서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7,734명의 진학률을 보면, 특수학교 졸업생은 53.1%, 특수학급 졸업생은 39.9%,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 대상자 졸업생은 53.2%이며 전체 진학률은 36.8%이다(교육부, 2017). 5년 전과 비교하면 전체 진학률은 19.4%p가 향상되었다.

고등학교 및 전공과 학생들의 취업률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2년 2월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 2,167명 중에서 취업한 학생은 59명으로 취업률은 6.9%이고,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 3,497명 중에서 취업한 학생은 559명으로 취업률은 32.8%이다. 특수학교 전공과 이수자 2,517명 중 1,096명이 취업하여 취업률은 44.1%이다(2022a). 2017년 자료에서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 2,546명 중에서 취업한 학생은 145명으로 취업률은 12.2%이고,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 3,989명 중에서 취업한 학생은 790명으로 취업률은 32.9%이다. 특수학교 전공과 이수자 1,942명 중 748명이 취업하여 취업률은 38.8%이다(교육부, 2017). 5년 전과 비교하면 취업률은 5.3%p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의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과 취업률 증가를 알 수 있다. 다만, 진학률이 증가한 속도에 비해 취업률은 많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에 취업률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나.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전문화를 위한 추진 현황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과정을 전문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현장 중심 직업교육 확대를 통해

장애학생 취업역량을 강화하였다. 일반사업장과 유사한 형태의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학생의 현장실습 중심 직업교육을 실시하였다. 특수학교 학교기업(30교)을 내실화하기 위해 교육부 지정 특수학교 학교기업을 25개 운영하였고, 시도교육청 지정 특수학교 학교기업 5개를 운영하였다(경기도교육청 2개, 부산광역시교육청 1개, 충청북도교육청 1개, 경상북도교육청 1개).

교육부에서는 2022년 현재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을 전문화하고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 지정 35교 및 시도교육청 지정 17교의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를 운영 중이다. 장애학생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는 장애학생에게 현장실습 위주의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인근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직업훈련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해당 지역의 장애학생 직업교육 거점학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교육부, 2022a).

또한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복지·고용 관계 부처 윈스톱 취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 이력 관리를 위해 직업평가, 직업교육, 고용지원, 사후관리 등 일원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교육부에서는 2022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운영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2021년에 15개에서 2022년에 32개로 지정·운영하고 있고, 2021년도에는 총 540개 프로그램(지역별 특화, 일자리 연계,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24,058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다(교육부, 2022a).

장애인 친화적 평생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발달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장애인 문해교육 증진 및 학력 인정 체제를 구축하였다.

#### 라.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장애학생의 인권 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인권지원단, 학교폭력 예방 모니터링, 장애공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시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200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운영하기 위해 내외부 위원 2,513명을 구성하였다. 또한 장애학생 인권 보호 및 학교(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일반학교, 특수학교 등 총 4,740교를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지원하였다(교육부, 2022a).

이외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접수를 위한 온라인 지원센터를 국립특수교육원과 17개 시도교육청에 운영 중이고, 통합교육 환경 및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해 장애공감활동 지원자료, 교사용과 학부모용 안내자료 등 유아용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였다.

### 마. 장애학생 문제행동 지원

장애학생의 심각한 위기행동은 학교관리자, 행동지원 전문교사(전문상담교사 등), 교육청 자문위원, 행동지원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학생 위기행동 사례관리 사업(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하였다.

#### < 행동 중재 프로그램 운영 예시 >

- [대 상] 학교 내 심각한 위기행동이 있는 학생
- [중재회기] 중재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학생 개인별 총 15회기 이상
- [내 용] 행동의 기능분석, ABA, 팀사례회의, 교사 및 학부모 상담, 약물치료, 가족지원, 심·휴식·힐링 등 학생 중심의 종합적인 접근을 통한 모든 중재 프로그램 포함

교육청 행동지원 전문가단을 운영하여 행동 중재 방법 등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데, 행동 분석 전문가, 교수, 행동지원 전문교사, 치료사, 상담사, 의사 등으로 구성하고, 행동에 대한 기능평가 등 행동 분석 및 대처방안 지원 교원 연수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 2. 2022년 국내 우수사례 소개

코로나19 장기화로 발달장애학생의 교육 참여 및 일상생활이 제한되어 정서·행동 문제가 심화하여 도전행동이 증가하였다. 도전행동은 행동의 강도, 빈도, 지속시간이나 기간 측면에서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타인에게 신체적 안전을 해할 가능성이 있어 학교생활을 하는 데 심각한 제약을 주는 행동이다. 따라서 이러한 도전행동의 증가는 장애학생의 교육 참여와 삶의 질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장애학생 행동 중재 프로그램을 지원한 것은 시의적절하게 실행된 우수사례로 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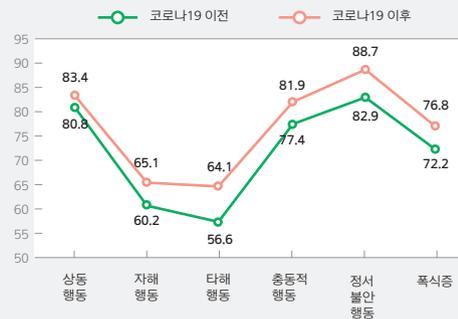
#### <우수 사례: 장애학생 행동 중재 프로그램 지원>

##### \* 코로나19 이후 발달장애인 행동문제 심각도 비교

구분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상동행동	3.32	4.79
자해행동	2.08	3.22
타해행동	1.90	3.04
총동행동	2.78	4.33
정서불안	3.02	4.97
폭식증	2.68	4.27

(9점 만점, 점)

##### <코로나19 이후 행동발생 증감 비교>



출처: 팬데믹시대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서비스 욕구 변화 연구(2021, 한국장애인개발원)

- (주요 실행내용) 행동중재 거점 특수교육센터 5곳을 지정\*하고 특수교사 대상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연수) 과정을 운영하여 150명의 전문가 육성

\* (역할) 전문가 양성, 우수모델개발·보급, 행동의 기능분석, 교사·학부모 교육 등

- 육성된 전문가를 통해 심각한 도전행동을 보이는 약 600명 정도의 학생에 대해 중재 프로그램 지원

### 3. 장애학생 교육 분야 이행 촉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제언

우리나라 장애학생 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을 전문화하고, 성인기 장애 평생교육 확대, 장애학생 인권 보호 강화, 장애학생 행동지원 및 안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 가.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장애학생의 진학률과 취학률이 점증하고 있지만 이를 좀 더 향상하기 위해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을 전문화해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의 안정적 사회 진출을 위해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생애주기별 진로·직업교육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 체계적 이력 관리를 위한 범부처 취업지원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현장 안착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질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현황조사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교육부, 2022c).

‘진로진학상담’ 전문 자격을 갖춘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지원을 통해 특수학교 진로·직업교육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현장중심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및 사회 변화에 발맞춘 직무 개발을 통해 장애학생 진로의 다양화 및 직업역량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후 성과관리 등을 통해 장애학생 진로 및 직업교육의 전문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양질의 일 경험 기회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 부처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 나.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

사회안전망으로서 포용적 평생학습은 평생교육에서 주요한 방향이다. 서울시(2021)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의 보편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확충 및 온·오프 학습지원 서비스 강화를 실시하였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하는 사업을 신규로 실행하였으며 기초문해교육과 생활문해교육, 디지털 생활문해교육을 체계화하여 보완하였다. 장애학

생의 진학률과 취업률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평생교육과의 연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애분야에서는 문해교육 외에 직업기술교육이 필요하므로 중도·중증장애인이나 발달장애 성인에게는 별도의 기초생활기술을 비롯한 특수교육적 요소를 포함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시청각장애, 지체장애 성인의 경우 별도 시설보다는 일반 평생교육 시설에서 해당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안정망을 좀 더 촘촘히 형성할 수 있다.

#### 다.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유·초·중·고 장애이해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 내 장애학생 인권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장애인권 핵심 교원 및 행동지원 전문교사 양성 등 관련 연수를 확대하고, 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에 따른 인권침해 주요 현황을 진단·분석하고 예방·대응책을 마련하여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교육부, 2022c).

또한 장애학생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상별(교직원, 학생 등) 인권감수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역할 강화를 위한 전담 인력을 확대하고 유관 기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라. 장애학생 행동지원 및 안전 강화

가족, 학교, 전문가의 협력으로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조기에 대처하기 위해 학교(특수교사, 일반교사), 가정과 연계한 행동지원 방안 등의 정보와 상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학생의 안전한 이동 및 위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및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통학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보건 등 관련 부서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공단지역 악취·소음·먼지 등 피해, 송전탑 설치 지역 등 학교 주변 위험 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장애학생의 성공적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2022년도 장애학생의 교육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질의 특수교육을 보장하고,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학생의 핵심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가정·학교·사회의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장애학생 교육 지원 환경을 조성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발달장애학생의 교육 참여 및 일상생활이 제한되고 정서·행동 문제가 심화되어 문제(도전)행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행동중재 거점 특수교육센터’를 지정하고 특수교사 대상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연수) 과정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또한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해 장애학생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배제와 분리로부터 모든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차별 없이 일반교육 환경에서 통합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일반학교 및 유치원에 대한 학생지원체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진학률과 취업률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원격 학습 공공 플랫폼의 웹 접근성 확보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정서행동 문제를 지닌 사각지대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개별화된 특별지원교육을 확대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4. 참고문헌

---

- 교육부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22a). 특수교육 연차보고서(2022.9).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22b). 2022 특수교육 통계(조사기준일 2022.4.1.).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22c). 2022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2022.3). 세종: 교육부.
- 서울시(2021). 서울시 평생교육 2030 기본계획(안). 서울: 서울시청.

# SDG4.5(교육형평성) 이행현황 점검 및 제언

## ③ 탈북학생 교육

남북하나재단, 북한대학원대학교

신호숙 박사

### 1. 2022년 이행현황 점검 (주요 현황, 이슈 등 중심)

#### 가.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중도탈락을

공평하고 양질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를 통해 모든 학습자는 적합한 지식, 기술, 역량을 습득해야 한다. 탈북청소년은 다른 모든 국민과 동일하게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를 보장받고 있고, 중국 등 제3국이나 북한 출생이라는 그들의 특성을 고려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을 지원받는다. 탈북학생의 학업중단율은 일반학생에 비해서는 다소 높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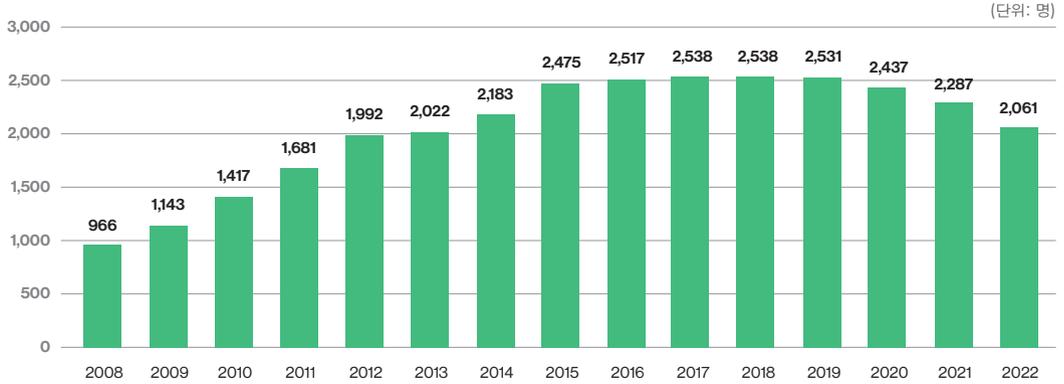
탈북청소년이란 부모 중 최소한 한 명이 북한 출생으로 북한 혹은 제3국에서 출생한 후 한국으로 입국한 만 6-24세 이하인 자를 일컫는다. 이들은 북한에서의 교육 경험, 탈북 과정에서의 학습 공백 기간, 개인적 특성, 가정환경 등으로 인해 초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북한 및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북한 출생 청소년은 관련 법령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지침」(통일부 지침), 「초·중등교육법」 규정에 의거해 무상 초중등교육에 대한 접근 및 이수를 보장받고 있다. 만 24세 이하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은 학교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등을 면제받는다. 또한 고입 및 대입 특별전형제도,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고등교육 기회와 교육권 또한 보장하고 있다.

탈북학생 교육 현황<sup>14)</sup>을 살펴보면, 2022년 4월 기준 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 수는 2,061명이다. 2017년까지 증가하다가 감소 추세에 있다. 이는 2020년 코로나로 인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자 수의 확연한 감소가 탈북학생 수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자 수는 2019년 1,047명에서 2021년에는 63명, 2022년 9월 말 현재 42명으로 확연한 감소를 보였다.

14)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의 탈북학생 현황 자료

<그림1> 연도별 탈북학생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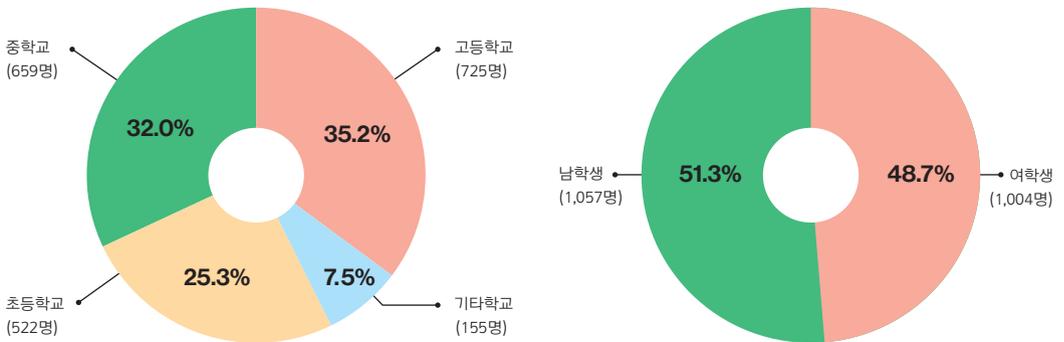


출처: 교육부(2022). 2022년 탈북학생 통계현황('22.4 기준')

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특수학교, 각종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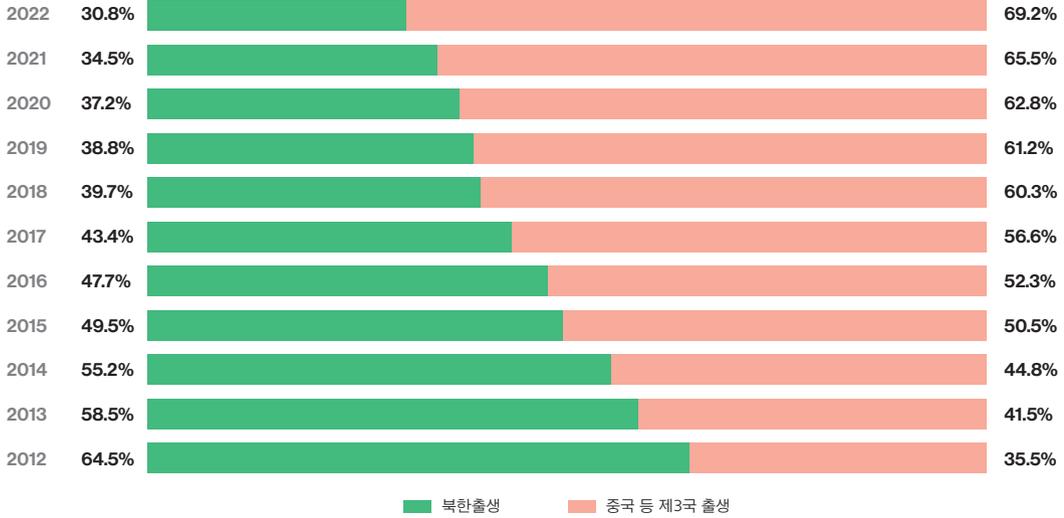
2022년 4월 기준 학교급별 탈북학생 수는 초등학교 522명, 중학교 659명, 고등학교 725명, 기타학교 155명으로, 고등학교 35.2%, 중학교 32.0%, 초등학교 25.3%, 기타학교 7.5%의 비율로 재학 중이다. 성별로는 탈북 남학생 1,057명(51.3%), 여학생 1,004명(48.7%)으로 남녀의 성비가 비슷하다.

<그림2> 교육기관별, 성별 탈북학생 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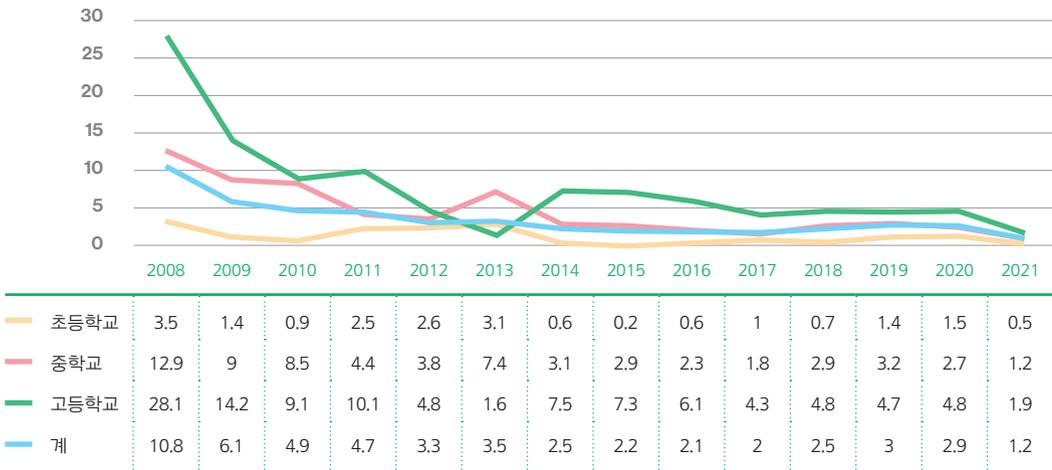
2022년 4월 기준 탈북학생 중 북한 출생은 635명(30.8%), 중국 등 제3국 출생은 1,426명(69.2%)이다. 제3국 출생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부터는 북한 출생보다 제3국 출생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3〉 출생지별 탈북학생 수 변화



탈북학생의 학업중단율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학업중단율은 2008년 10.8%였으나 2013년 3.5%에서 2021년 1.2%로 감소하다가, 2022년 1.6%로 미미하게 증가하였다. 2022년 학업중단율이 전년 대비 0.4%p 올랐지만, 중도 포기 탈북학생 수 자체는 작아 유의미한 변화(27명에서 34명으로 증가)라고 보긴 어렵다. 물론 그럼에도 지속적인 관찰과 관심은 필요하다. 또한 탈북학생의 학업중단율은 학교급별로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일반학생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이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림4〉 탈북학생 학업중단율 추이(2008-2022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21). 2021년 탈북학생 통계현황,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주: 학업중단율 = (해당연도 학업중단자수) / (전년 재학생 총 수) × 100  
 - (2017년 이전) 전년도 재학생 수 및 해당연도 학업중단자 수에 기타학교를 포함하여 산출  
 - (2018년 이후) 유초중등교육통계 학업중단율 산출 방법\* 준용  
 \* 재학생 및 학업중단자에 기타학교(각중학교, 공민학교 등) 학생 제외

## 나. 탈북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지원(affirmative action)을 실시하여 교육형평성을 제고하고 있다. 취약계층인 탈북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학습 지도 멘토링, 심리상담, 한국어 교육지원, 진로진학지도 등을 통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탈북청소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탈북청소년이 학교생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로는 ‘학교 수업 따라가기’라고 응답하였으며, 북한 출생과 제3국 출생 학생 모두 정체성 혼란, 친구 관계, 가정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북한이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초적 의사소통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각종 용어나 교육문화의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이나 교과 수업 내용의 이해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일반학교에 편입한 탈북청소년은 자신이 북한이나 중국 등 제3국에서 온 학생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탈북청소년이 건강한 정체성을 갖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탈북청소년들은 탈북 과정에서 부모 및 가족들의 사망이나 이혼, 이별 등을 경험하게 되고 중국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형성하게 되면서 한국에서 한부모 가정인 경우가 많다. 즉 탈북학생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 입국 후에도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탈북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형평성을 제고하고 있다. 탈북학생들의 재북 및 탈북과정, 중국 체류 경험, 그리고 남한사회에서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학교에서는 탈북학생과 교사 간에 1:1 맞춤형 멘토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탈북학생이 다수 재학하는 학교에는 ‘심리상담사’가 파견되어 있다. 2016년부터 맞춤형 교육으로 삼죽초, 한겨레중고등학교는 ‘심리상담사’를 파견하고 있으며, 일반학교에는 외부 자원과 연계해 심리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 출생 및 제3국 출생의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과 학업을 지원하며 통일전담교육사를 배치하고 있다. 남북하나재단은 재북교사경력을 지닌 통일전담교육사를 ’22년 9월 현재 24개교에 20명을 파견하고 있다. 또한 정착지 학교 편입 초기 일반학교와 대안교육시설에 중국어 구사가 가능한 한국어 강사를 파견하여 한국어 교육과 초기 적응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탈북학생에 대한 올바른 진학·진로지도를 위해서 정책연구학교, 수업연구회 등과 연계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진로상담, 직업체험활동 등 맞춤형 진로·직업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탈북학생의 직업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탈북학생 특별입학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 출생, 제3국 출생의 각자의 관심과 요구가 다르므로 이에 따른 진학지도,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

또한 탈북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대안교육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일반학교 통합교육을 기본 방향으로 탈북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대안적 학습교육 형태가 운영 중이

다. 탈북학생의 학업 중도 탈락률을 낮추고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 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탈북학생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학교, 드림학교), 비인가 대안교육 시설, 그룹홈 등이 운영되고 있다.

### 다. 북한이탈주민 가정 배경에 따른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학생의 맞춤형 지원 필요성 증가

OECD는 교육형평성 지표로 가정 배경의 영향력, 가정 배경에 따른 성취 격차, 역경을 극복한 학생들의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가정 배경의 영향력, 가정 배경에 따른 성취 격차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교육형평성의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정 배경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부모 학력, 가구 소득, 가족 구조 등 가정 배경에 따른 학업 성취 격차를 진단하고 이를 좁히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탈북학생의 한국 사회 학교 적응에는 개인의 적응 능력뿐만 아니라 가정 배경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고, 이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북한과 중국에서의 성장 환경, 탈북 및 남한 입국 경험,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 가족의 경제적 및 심리·정서적 환경, 가족 구성 형태 등이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과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 배경이 탈북학생의 교육 기회 및 학업 성취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 지원 정책에서는 북한 출생/ 제 3국 출생/ 국내 출생 등 출생에 따라 교육지원이 다르다. 북한이탈주민 부모들은 같은 자녀를 두고 지원 내용이 왜 다른 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출신지에 따라 법적 지위와 내용에 차이를 두는 것은 차별적 인식과 대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제3국 출생이든 국내 출생이든 자녀들은 북한이탈주민 부모가 안고 있는 어려움의 직간접적인 영향권 하에 있다. 북한이탈주민 부모는 경제 자본과 사회적 지위, 심리·정서적 자원, 교육문화 자본 등에 있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부모의 좋지 못한 가정 배경이 그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탈북 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탈북학생의 교육형평성 제고를 위한 가정 배경을 고려한 지원방안은 1) 심리·정서적 안정과 지원체계, 2) 사각지대 위기학생 지원체계, 3) 역량개발과 학습격차 해소(장학금 등 포함)로 대별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은 소수집단, 취약계층 집단 교육지원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교육부(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2022년부터 북한 출생, 제3국 출생에 이어 국내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진로·진학 지도뿐 아니라 심리, 학습, 잠재 역량 개발, 위기학생 발굴 등의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통일부(남북하나재단)에서는 북한 출생 및 제3국 출생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생계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학업성취도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매년 약 5억 원의 정부출연금 및 10곳 이상의 외부 기관으로부터 기부 장학금 유치와 연계를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매년 약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초학습 능력을 향상하고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습지 및 영어 화상 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sup>15)</sup>

<그림5> 2022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대상자 모집 안내 홈페이지



## 2. 2022년 국내 우수사례소개

### 가.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

최근의 주요 이슈는 탈북학생의 범주에 중국 등 제3국 출생을 법적으로 포함 여부이다. 국회 차원에서 입법 활동과 연구자들 간 학술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제3국 출생은 현재 북한이탈주민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지원 측면에서 북한 출생과 달리 정원의 대학 특례입학 및 대학교 학비 지원의 수혜대상이 아니다. 한편 탈북학생의 통계에 따르면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북한 출생보다 제3국 출생의 비중이 더 높다. 이는 후자 그룹이 고등교육 또는 취업 단계로 들어서는 연령대의 증가추세를 의미한다. 즉 중·고등학교 단계에서 북한 출생 및 제3국 출생 학생들의 진학·진로지도를 내실있게 진행하고 이들의 자립·자활을 보다 잘 준비해야한다.

제3국 출생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2년 2월 22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에게는 북한 출생과 동일하게 정원의 대학 특례입학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었고, 후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원 내 특례입학제도가 신설되었지만 일부 대학에서만 적용되었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4년도부터 사회통합전형의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및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명기함으로써 모든 일반대학에서 정원 내 특례입학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이제 중·고등학교 차원에서 탈북학생에 대한 진로 진학지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교육부(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 통일부(남북하나재단)에서는 탈북학생에 대한 진로·진학 멘토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15) 남북하나재단(2020), 『남북하나재단 10년사』, 남북하나재단, 69-70쪽, 81-82쪽.

### 3. SDG4.5 탈북학생 교육 분야 이행 촉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제언

북한 출생, 중국 등 제3국 출생이라는 그들의 특성상 탈북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탈북학생의 학업중단율은 일반학생에 비해서는 다소 높지만 맞춤형 멘토링 등 지속적인 학교현장의 관심과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다양한 취약 집단의 교육환경 약화가 보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북한이탈주민 부모의 부정적이거나 어려운 가정 배경이 최소한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탈북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교육형평성 제고를 위해 탈북학생의 가정 배경을 고려한 지원방안으로는 우선, 북한 출생, 제3국 출생, 남한 출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심리·정서적 안정과 지원체계 제공, 사각지대 위기학생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이들의 역량개발과 학습격차 해소 등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탈북학생의 가정 배경을 고려한 교육형평성의 문제와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조사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탈북청소년의 가정 배경에 따른 교육 격차 추이를 면밀히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서는 탈북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과정을 장기 추적 관찰하는 탈북청소년교육 중단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탈북청소년의 성장단계별 분석 및 출생국과 가족 환경, 성별 등으로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분석하여 성장단계별로 학교 적응, 사회적응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sup>16)</sup> 이에 더하여 향후 가정배경에 따른 교육 격차 추이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중도탈락률 감소를 위한 학습 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등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출생은 북한에서의 교육 경험, 탈북 과정에서의 학습 공백 기간, 개인적 특성, 가정환경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중국출생은 중국에서의 교육 경험과 학습 기간, 한국어 능력, 개인적 특성, 가정환경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남한 출생의 경우에도 북한이탈주민 부모의 가정 배경을 고려한 교육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탈북학생들의 정착지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을 강화하면서 다양한 수준의 대안적 학습 형태와 교육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탈북학생들에게 정착 단계별로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되 정착지 일반학교로의 편·입학을 유도하고 학교 적응 및 학업 지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탈북학생 특성화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는 전환기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인가대안학교인 여명학교와 하늘꿈학교, 드림학교도 학령 초과자, 학교 부적응자 등을 위한 특화프로그램교육을 진행하는 식으로 대안형 교육기관으로 특화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탈북학생 수가 감소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16) 김정원 외(2019),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중단연구(IV)』, 한국교육개발원.

17) 신효숙 외(2015), 『탈북청소년, 남과 북 통합의 미래』, 남북하나재단, 123-124쪽.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일반학생과 탈북학생이 함께 다니는 통합형 특성화학교, 통합형 인가대안학교의 운영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sup>17)</sup> 남북의 학생이 함께 공부하며 통일을 준비하는 통합형 교육과정에 기반한 대안학교 구상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이다.

## 참고문헌

---

- 김정원 외(2019).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종단연구(IV).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2018). 2018 소외계층 교육지원 사업 : 탈북학생 교육지원 계획. 교육부.
- 남북하나재단(2020). 남북하나재단 10년사. 남북하나재단.
- 남북하나재단(2020).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
- 신호숙 외(2015). 탈북청소년, 남과 북 통합의 미래. 남북하나재단.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22). 2021 대한민국 SDG4 이행현황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통일부(2021).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통일부.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 SDG4.6(성인 문해·수리력) 이행현황 점검 및 제언

SDG 4.6 워킹그룹 구성원

길혜지 충북대학교 교수, 박영도 수원제일평생학교 교장,  
이지혜 한림대학교 교수, 이희수 중앙대학교 교수, 허준 영남대학교 교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외협력실

서헌주 실장, 박민선 전문원

## 1. 2022년 이행현황 점검 (주요 지표 현황, 이슈 등 중심)

### 2022 SDG4.6 이행현황 점검

SDG4.6(성인문해, 수리력)과 관련된 문해교육 실시에 있어서 팬데믹을 겪으며 교육 현장이 거의 붕괴 수준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 특히 중·고령 학습자들은 비대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 채, 교육 현장에서 멀어져 갔고 디지털 전환에 미처 준비가 안 된 다수의 교육기관들은 교육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는 문해 교사와 학습자 모두가 교육의 장으로부터 단절 되도록 하여, 학습의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사회활동이 취약한 문해학습자들에게 학습 기회 상실은 곧 관계와 건강 상태 약화의 부작용으로 이어진다. 이는 일시적 영향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민사회의 손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 2. 2022년 국내 우수사례 소개

### 가. 안동시 사례

안동시의 성인문해교육은 1977년 개교한 마리스타학교를 중심으로 시작된 야학이 그 시초라고 할 수 있으며, 2004년 안동시 문해교육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2022년 현재 5개의 문해교육 전담 기관이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안동시에서는 한글배달교실(15개 읍/면)과 한글교실(20개 집집)을 운영 중이다.

2022~2023년 지방소멸기금 사업 디지털 문해교육 실시를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안동시 찾아가는 한글배달 교실’은 2014년부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매년 300~400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다. 또한 2023년 상반기부터 디지털 리터러시 강사양성 및 문해교실 운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디지털 학습생태계 구축을 통해 3년간 90명의 강사를 양성하고 5년간 1,500명의 교육생을 배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3. SDG4 이행 촉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제언

#### 문해교육의 포스트 코로나 지원 방향과 과제

##### 1. 코로나 이후 현장 회복을 위한 특별 지원 필요

코로나로 인한 상실과 단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특단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초중등교육에서는 교육부의 종합계획하에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교육회복 정책에 대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막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 사업은 통합적 관점에서 기초학력 보장, 사회정서 역량 함양, 건강역량 보장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문해교육의 영역에서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문해교육센터에서 종합계획을 세워 방향을 제시하고, 각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광역문해교육센터에서 각 시도의 여건에 맞추어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정책과제 추진을 제안한다.

첫째, 문해교육기관의 존립을 위한 특별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기관들이 기본 시설과 장소를 유지하고, 나아가 새로운 교육환경 구축에 필요한 교육장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특별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문해학습자는 교육적 결손 뿐만 아니라, 소통 및 관계 역량에서도 집중적인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 개별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조 인력을 고용하고, 학습자 간 다양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문해교사들 역시 코로나로 인한 정신적 취약과 교육 단절 뿐만 아니라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였다. 교사들의 회복을 위한 지원 상담과 재연수를 통한 전문성 확보, 그리고 보조 인력 확보를 통한 심 기회 제공과 같은 배려가 필요하다.

##### 2. K-문해교육 모델의 구축과 확산

해방 이후 역사적 토대 위에 발전해 온 문해교육은 분명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이루어왔다. 무엇보다도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법적 근거를 가진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성인문해교육은 현재의 지원체제에서 아래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 국가문해교육센터와 광역문해교육센터로 이어지는 사업 추진체제 정립
- 교육청이 주도하는 학력 인정 문해교육 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문해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 (예: 안동시)
- 민간 단체 및 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거버넌스 체제
- 체계적인 문해 교·강사 연수 및 양성체제
- 국가 주도 하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성인문해력 조사 실시
- 전문적인 콘텐츠의 연구개발, 제공

국내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난제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인문해교육은 거버넌스형 지원모델의 전범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K-문해교육의 확대를 통한 글로벌 확산은 역으로 국내 문해교육의 활성화 동인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K-문해교육의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 추진이 필요하다.

첫째, K-문해교육 모델의 개념과 정책 집행 과정을 국외 전이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제도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성공과 실패 요인을 포함한 체계적인 모델 정립이 가능하다.

둘째, 공공과 민간에서 이루어진 우수사례의 진행 과정과 성과를 상세하게 기록하여 축적해야 한다. 국가문해교육센터의 성과, 민간기관에서는 수원제일평생학교, 안양시민대학, 푸른시민학교 등의 사례, 안동시와 논산시 등의 기초자치단체 사례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셋째, 현재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성인문해능력 조사는 매우 선도적인 정책이나, 조사 규모와 주기, 조사 내용 범위 등에서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 정책에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각 시도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하고 해당 자료를 지역의 문해교육 관련 행정자료(예산, 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강사 등)와 연계하여 분석해 나가야 한다.

넷째, K-문해교육 확산에 앞서, 법령과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개선된 행·재정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문해교육센터에서 관련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여, 새로운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문해교육의 발전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K-문해교육 확산을 위한 국가 간 교류체제 및 글로벌 교류 활동 기회를 대폭 활성화해야 한다. 예컨대, 유사한 문해교육 학력 인정 체제를 갖춘 덴마크와의 사례 교류 또는 성인문해교원 및 관련 전문가들의 해외 ODA사업 직접 참여기회 확대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 3. 문해교육 디지털 전환의 적정화

코로나 이후, 문해교육 현장은 급박한 상황 변화에 준비가 안 된 대응으로 큰 혼란과 난관에 봉착하였다. 갑작스러운 디지털 비대면 수업상황에서 문해학습자들은 낮은 디지털 문해력으로 수업에 접근하기 어려웠고, 각 교육기관들에서도 시설, 장비 뿐만 아니라 교사 역시 준비되지 못한 채 디지털 수업상황을 맞이해야 했다.

코로나를 계기로 에듀테크(EdTech)가 전면 부상하면서, 학교 교육은 이미 AI교육서비스 등 고도화된 수준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엔데믹의 시대에 접어들며 교육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예상되며, 성인문해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제대로 준비할 것인지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문해교육의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적정화한 형태로, 문해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디지털 전환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문해교육은 다른 교육 부문에 비해 전반적으로 디지털 문해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문해교육 분야 내에서도 지역과 연령, 학습 기간과 단계 등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있다. 따라서 일괄적인 목표와 속도의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각 집

단별 특성을 반영한 속도 조절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한다.

둘째, 학습자 친화적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장비와 소프트웨어, 콘텐츠 제공 매체 등에서 중·고령층 학습자의 접근성을 최대한 반영한 디지털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교사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 전문 연수를 강화하여야 한다. 문해학습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핵심은 교사의 전문성이며, 교사들의 디지털 교수 역량 제고를 통해 교사들의 교수 효능감을 높이고 문해교육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코로나 시기 동안 발생한 디지털 교수-학습 경험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과 분석을 담은 문해교육 코로나 백서를 발간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는 문해교육기관 폐쇄 비율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교육기관-교사-학습자들이 직면해 온 코로나 시기의 경험에 대하여 양적 질적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은 직면한 필요에 부응하여, 다양한 자료와 교수법을 개발하여 활용하였으나, 나아가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전파 가능한 자료로 업데이트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문해학습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교육생태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4. 문해교육의 질적 제고 도모

우리나라의 성인문해교육 지원체제는 기본적인 틀은 갖추었으나, 실천 과정에서의 지속가능성 및 질적 수준의 담보는 아직까지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학력인정 여부 같은 프로그램 유형별 격차, 지역 간 및 지역 내 격차는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의 문해교육이 다음 국면으로 진전하기 위해서는, 교육 인프라 개선을 통한 질적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문해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누적 관리하여, 조직이나 지역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학사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기존의 학습계좌제를 활용하여, 학력인정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학력미인정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된 개인 학습자들의 학습활동을 누적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문해교육의 지역 격차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각 권역별 교육 여건의 차이, 특히 시설을 비롯한 전문 교원 인력 확보 측면은, 문해교육의 질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 지원 확대와 더불어 해당 지역의 문해교육사업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의 확보와 운용이 필요하다.

셋째, 문해교육의 핵심인 교강사 및 관련 활동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교강사의 전문성 확보는 그들의 처우 개선과 연결되어 있으며 전문 연수 확대와 더불어 교강사들이 학습자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넷째, 문해교육 콘텐츠 유연성과 다양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개발한 교과서 중심 교육은 성인문해교육의 최저 수준 유지에는 도움이 되지만, 교과서의 틀을 벗어난 교육의 다양성은 위축시킬 수 있다. 학습자들의 다채로운 생활문해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정·건강·문화예술 등 다양한 콘텐츠의 연구개발이 동반되어야 한다. 교재의 형태도 다양화하여, 주교재 외에 보조 교재와 교·강사용 자료 개발도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은 문해교육의 행·재정적 지원 제도의 안정화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거버넌스형 문해교육 지원체제를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광역 및 기초 자치 단위에서의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대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SDG4.7(지속가능발전·세계시민교육) 이행현황 점검 및 제언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김지현 선임전문관

## 1. 2022년 이행현황 점검

### 가. SDG 4.7 주요 지표 현황

SDG4.7은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 확산, 세계 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 습득’을 목표로, 교육의 제공과 지식 습득 수준에 관한 5개의 세부 지표를 두고 있다.

교육 기회 보장이나 교육여건 개선 등 대상과 목표가 비교적 명확한 SDG4의 다른 세부 목표와는 달리 SDG4.7은 지속가능발전,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 등 미래 교육의 방향과 가치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수준의 공통지표 개발과 모니터링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학습자 역량 개발의 발판이 되는 교육 정책, 교육과정, 교사 교육, 학생평가 등의 영역에 해당 교육의 충분한 반영 여부나 반영 비율의 증감 추이를 살핌으로써 SDG4.7 이행을 조사하고자 한다. 주기적으로 조사할 글로벌 지표로 SDG4.7의 지표 중에서는 SDG4.7.1을 설정하였으며, SDG12.8.1 및 SDG13.3.1과 공통지표로 관리되고 있다. (박환보 외, 2022)

2017년 유엔 결의안을 통해 확정된 SDG 4.7의 글로벌 지표(4.7.1)는 현재 유네스코에서 4년마다 시행하는 “1974년 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the 1974 Recommendation concerning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eace and Educ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의 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하여 2020년부터 4년 주기로 회원국의 이행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지식에 관한 지표인 SDG4.7.4와 SDG4.7.5는 3년 주기로 조사하는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를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에는 글로벌 역량 조사를 통해 SDG4.7.4의 측정을 시도하였다(박환보 외, 2021). 그러나 이러한 측정 도구들은 매우 개략적인 글로벌 모니터링만 가능하게 할 뿐, 각 국가별 구체적 이행현황을 파악하거나 정책 및 프로그램 환류에 유의미한 모니터링 결과를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수립 당시부터 이행 및 검토에 있어 각 국가의 오너십을 강조해 왔으며, 각 국가의 맥락에 맞춘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이를 통한 성과 공유를 장려하고 있다. (박환보 외, 2022)

〈표 1〉 SDG4.7 지표<sup>18)</sup>

개념	번호	유형	세부지표
제공	4.7.1	글로벌	i)세계시민교육, ii)지속가능발전교육이 (a)국가교육정책, (b)교육과정, (c)교사교육, 그리고 (d)학생평가 등 모든 영역에서의 주류화되어있는 정도
	4.7.2	주제별	삶의 기술(life skills) 기반의 HIV 및 성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비율
	4.7.3	주제별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World Programme on Human Rights Education)이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정도 (유엔총회 결의 59/113(UNGA Resolution 59/113)에 따라)
지식	4.7.4	주제별	세계시민 및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보이는 중학생 비율
	4.7.5	주제별	환경과학 및 지구과학에 관한 숙달된 지식을 보이는 중학생 비율
	4.7.6		국가 교육시스템 내에서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폭넓은 기술을 각국 교육 정책 및 교육분야 계획이 인식하고 있는 정도

### 나. 국내 이행현황 및 주요 이슈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에서는 2018년부터 일련의 연구를 통해 글로벌 지표(SDG 4.7.1)에 부합하면서도 국내 맥락과 실효성이 반영된 국내용 모니터링 도구를 마련하고, 세계시민교육의 주류화 정도를 시범적으로 조사 분석한 바 있다.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의 관련 연구는 크게 ‘세계시민교육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체제 구축 연구’와 ‘세계시민교육 이행 실태 조사 연구’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대부분 세계시민교육 정책 현황 파악을 위한 도구 개발과 이행 실태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2022년에는 선행 연구에서 마련한 세계시민교육 지표 체계를 활용하여 시도교육청의 세계시민교육 정책 현황과 이행 실태를 분석하고, 세계시민교육의 실행 과정 측면에서 교사의 세계시민교육 역량,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성취의 측면에서 학습자의 세계시민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였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조직 구성 및 담당 업무, 정책 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연도별 이행현황을 비교한 결과 세계시민교육 관련 조직 구성원은 전체의 5.0% 정도 차지하며, 지역별로 전담부서나 전담 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6개 주제영역별로는 인권, 세계시민성, 성평등, 지속가능발전, 문화다양성, 평화 영역을 담당하는 조직 순으로 많이 분포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시민교육 정책 사업에는 지역 간 편차는 다소 컸으나 사업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개 주제영역별로는 지속가능발전, 세계시민성, 인권, 성평등, 문화다양성, 평화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6개 주제영역별 세부 이행현황 조사 결과로는, 세계시민성 영역과 관련한 정책 사업들은 민주시민교육이 주요하였

18) 출처: 유네스코통계원 (2022년 11월, [https://tcg.uis.unesco.org/wp-content/uploads/sites/4/2020/09/SDG4\\_indicator\\_list.pdf](https://tcg.uis.unesco.org/wp-content/uploads/sites/4/2020/09/SDG4_indicator_list.pdf)), 최근 새로운 지표 4.7.6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 본 지표의 목표는 교육이 추후되고 계획되고 실행되는 모든 단계에 있어서, 그리고 교수·학습, 평가·책임, 활성화 환경 측면 모두에 걸쳐 학습자들에게 제공되는 세계시민성과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역량 함양의 기회를 포착해내고자 한다(박환보 외, 2022).

고, 이에 국제교류, 글로벌 역량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성평등 영역의 정책 사업들은 지역별로 유사하게 구성된 경향이 있었으며, 평화 영역은 주로 평화·통일을 주제로 한 사업이 구성되어 있었다. 인권 영역의 정책 사업들은 다양한 대상을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강화를 강조하였다. 문화다양성 영역에서는 다문화교육 관련 사업이 대부분이었으며, 지속가능발전 영역은 특히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에너지, 생태환경 등의 다양한 주제의 정책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박환보 외, 2022)

세계시민교육 국내 이행현황 연구를 통해 17개 시·도 지역이 각 지역별 특성과 현황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와 규모, 내용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국내 세계시민교육 정책이 조직 구성이나 정책 사업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고 점점 그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더불어, 시·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세계시민교육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시·도 교육청 직속 기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직속 기관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지역 사례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세계시민교육 정책 사업이 주류화 되었고 이를 다져나가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세계시민교육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들이나 관련 업무가 여전히 분산되어 추진되는 점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으로, 담당 조직이나 업무 담당자 간의 보다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용이하게 하여 세계시민교육 사업의 주제영역 간 균형 잡힌 운영과 세계시민성, 성평등, 평화, 인권, 문화다양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각각의 교육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도모해나가야 할 것이다. (박환보 외, 2022)

<표2> 세계시민교육 주제영역 및 개념들<sup>19)</sup>

주제영역	관련 주제어
세계시민성	세계시민의식, 세계시민, 세계시민교육,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성, 상호연결, 국제협력, 글로벌 역량, 공동체의식, 민주시민
성평등	성평등, 성평등 교육, 젠더, 성인지, 성정체성, 성불평등, 성차별, 성폭력
평화	평화, 평화교육, 비폭력, 분쟁, 갈등해결, 민간안보
인권	인권, 인권교육, 권리, 민주주의, 정의, 자유, 평등, 존엄성, 관용, 차별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교육, 다양성, 다문화교육, 문화이해, 문화존중, 문화감수성, 문화예술, 문화정체성, 상호문화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속가능, 환경, 환경문제, 환경보호, 생태,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기후위기, 재생에너지

19) 출처: 박환보 외(2020), "2020 세계시민교육 국내 모니터링 체제 구축 연구"

세계시민교육 정책 이행현황 조사와 더불어 올해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의 이행 과정 측면에서 교사의 세계시민교육 역량을 종합적으로 보기 위한 문항과 학습자의 세계시민성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개념 모형과 두 가지 유형의 문항 또한 개발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교사 교육 영역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성과 측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된 문항을 활용한 예비조사 결과 학습자 대상의 각 유형의 최종 문항은 세계시민 역량을 안정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학습자의 관련 교육 경험에 따른 차이도 나타내었다. 또한 세계시민 역량 측정 문항이 주제영역별로 지식, 태도, 실천으로 흐르는 개념 모형을 바탕으로 한 모듈형으로 개발되어 조사나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나아가, 사회 변화나 교육 현장의 맥락을 반영한 새로운 조사 문항을 추가 보완하며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원활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앙 정부 또는 시·도 교육청과의 보다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세계시민 역량과 교사의 세계시민교육 역량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정책 환류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박환보 외, 2022)

## 2. 2022년 국내 우수사례 소개

###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중앙연구회

유네스코 아태교육원과 한국 교육부는 SDGs 이행 및 세계시민교육의 국내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까지 전국에서 총 5,000명 이상의 선도교사를 배출하여 전국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활동을 펼쳤으며 국내 세계시민교육의 확산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성공적인 우수사례이다. 이는 중앙정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함께 실시하고 있는 유일한 SDG4.7 분야 정책 사업이기도 하며, 정부 주도로 시작하여 이제는 현장의 교사가 중심이 되어 교사 연수뿐만 아니라 중앙연구회 운영을 통해 동료 선도교사 간의 교류와 네트워크를 공고화하는 전문 학습 공동체를 결성하고, 심화 학습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도 실시하며 창의적인 세계시민교육 콘텐츠를 직접 개발하는 보다 깊이 있는 세계시민교육 전문가로 발전해나간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에서는 이러한 교사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에도 세계시민교육 아카데미를 통해 세계시민교육이 다루는 다양한 사회적, 교육적 현안에 관한 교사들의 성찰적 관점을 확대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 개발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책 쓰기, 보드게임 개발 등의 콘텐츠 개발 전문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들의 자발적 주제별 분과 모임을 지원하여 연구 기회를 확대하면서 산출물은 다른 교사들과도 공유하여 활용도도 높이고 동기부여에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 지자체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sup>20)</sup>

지자체에서 직접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수사례로는 대구 수성구청과 인천 연수구청의 활동이 있다.

대구 수성구에서는 2016년부터 지역 내 세계시민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의 형태로 세계시민교육 추진 전략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수성 세계시민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학생 대상 세계시민교육과 미래기술교육을 접목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최근에는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신청을 받아 교육을 진행하는 형태로도 운영하고 있다. 국제기구 진로 프로그램, 모의 유엔 회의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학생들의 여러 활동은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이 주최하는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에서 발표나 전시를 통해 공유되기도 하였다. 한편, 인천 연수구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가입 구로서, 클러스터 회원 도시로 2021년까지 활동하기도 하였으며, 유네스코 아태교육원과 “학교 밖에서 세계시민교육 실천하기” 평생교육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연수구는 지역 특성상 러시아, 고려인 이주민들이 대단위로 거주하는데, 지역사회에서 차별이나 편견, 소통 단절의 문제가 있어 문화다양성에 중점을 둔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후에도 세계시민교육 활동가 양성이 계획에 있으며, 지역 내 성인, 학부모, 어린이, 노년 등 다양한 연령대 및 내용을 다루는 세계시민교육 챌린지를 운영 중이기도 하다.

이처럼 각 지자체에서 지역적 특성과 맥락을 반영하여 자체 개발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지역 내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및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 또한 장기적으로 SDG4.7 이행에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3. SDG4 이행 촉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제언

SDG4의 이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통합적·거시적·중장기적 국내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거시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 근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SDG4는 교육부 내 중점 목표로서 교육부가 주도하는 세부목표별 이행 중장기 정책이 요구되며, 특히 SDG4.7은 교육목표 안에서도 주변화 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관련 주제영역들이 포괄된 목표라는 점에서 해당 목표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비전과 이행 의지가 담긴 중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엄정민, 2020)

20)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이 주관한 SDG4-교육2030협약체 세부목표 4.7 워킹그룹 협의회(2022.10.7.) 회의 내용 정리.

더불어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SDG4.7의 경우에는 국가 수준의 법적 추진 근거나 활성화 방안이 아직 없기 때문에, SDG4.7 추진 관련 기관 및 모니터링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세계시민교육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 수집과 분석 등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에 관심이 높은 지자체나 시·도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니터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나아가, 세계시민교육 이행의 정기적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사된 자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해보고, 중앙 및 지방정부, 시·도 교육청, 단위학교 등에 모니터링 결과를 적극적으로 환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세계시민교육 모니터링 지표의 지속적인 수정·보완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지표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박환보 외, 2022).

## 참고문헌

- 박환보·박경희·최원석·길혜지·조대훈·엄정민(2022). "2022 세계시민교육 국내 모니터링 체제 구축 연구",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연구보고서. 서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박환보·조대훈·박경희·엄정민(2020). "2020 세계시민교육 국내 모니터링 체제 구축 연구"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연구보고서. 서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엄정민(2020). "6. 세계시민교육". 유네스코 한국위원회(편). SDG4 관점에서 한국의 COVID-19 대응 진단 및 Post COVID-19를 위한 제언 : 교육 2030. 140-148. 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SDG4-교육2030협약체(2022). "2021 대한민국 SDG4 이행현황보고서".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UNESCO(1974). Recommendation Concerning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eace and Educ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at Its Eighteenth Session, Paris, 19 November 1974. Paris: UNESCO.
- UIS. [https://tcg.uis.unesco.org/wp-content/uploads/sites/4/2020/09/SDG4\\_indicator\\_list.pdf](https://tcg.uis.unesco.org/wp-content/uploads/sites/4/2020/09/SDG4_indicator_list.pdf) (2022.11.27. UIS 'Official List of SDG 4 Indicators 자료인출)

# SDG4 모니터링 이행현황 점검 및 제언

한국교육개발원

김나영 교육조사·지표연구실 부연구위원

## 1. 2022년 이행현황 점검

### 가. 우리나라 SDG4 지표 2025/2030 벤치마크 설정 현황

SDG4 이행 및 모니터링 촉진을 위한 벤치마크(benchmarks) 설정과 관련하여, 2020년에는 권역별 벤치마크를 설정하였으며, 2021년에는 3분의 2 이상의 국가에서 국가별 벤치마크 설정을 완료하였다. SDG4 벤치마크는 국가별 교육 정책목표와 이행 여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설정된 벤치마크 수치는 미달성한 세부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도 기준점 역할을 수행한다. 2015년과 비교하여 2025년 및 2030년 기준 주요 SDG4 지표의 벤치마크 설정 결과는 「SDG 4 Data Digest 2021」 보고서(UNESCO, 2021a)에 수록되었다. 구체적으로 각 지표별 우리나라의 벤치마크와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권역의 벤치마크 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우리나라 및 동아시아·동남아시아 권역의 SDG4 벤치마크

지표명		우리나라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권역		
		2015	2025	2030	2015	2025	2030
초등학교 공식 입학 연령 1년 전 아동의 조직화된 학습 참여 비율		90.4	95.9	95.9	82.8	97.3	97.9
학교 밖 아동/청소년 비율	초등학교	1.4	0.9	0.8	3.8	0.5	0.4
	중학교	0.2	2.7	2.6	7	2.5	2.1
	고등학교	2.5	3.9	3.8	22.6	13.2	9.6
교육 완수율	초등학교	100	99.9	99.9	95.6	98.4	98.8
	중학교	100	99.5	99.5	85.3	95.1	96.1
	고등학교	98.3	99	99	63.4	80.8	84.8
성별에 따른 형평성 지수 (gender gap) <sup>21)</sup>		-0.5	0.3	0.3	9	5.1	4.2
학업성취도	읽기 분야 최소 숙달 기준을 달성한 아동/청소년 비율	86.3	86	87	60.5	67.3	67.7
	학업성취도수학 분야 최소 숙달기준을 달성한 아동/청소년 비율	96.9	96	97	84.5	86	87
최소 요구 자격을 갖춘 교사 비율	유치원	-	100	100	99.1	94.8	95.2
	초등학교	-	100	100	-	98.3	99
	중학교	-	100	100	99.7	98.2	99.3
	고등학교	-	100	100	99.7	98.6	98.7
정부 지출 교육비 <sup>22)</sup>	정부 총 지출 대비 교육비 비율	-	14.8 (‘10)	-	16.6 (‘15)	-	-
	GDP 대비 교육비 비율	4.3 (‘15)	4.5 (‘18)	-	3.6 (‘15)	-	-

\*권역별 벤치마크는 해당 권역 국가 벤치마크의 중앙값을 활용하여 추정한 수치임.

\*출처: UNESCO(2022)을 참조하여 표로 재구성함.

21) 후기 중등교육 완수율의 성별 차이로 산출되며, 해당 값이 음수일 경우에는 남학생의 완수율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을 의미함.

22) 정부 지출 교육비의 경우 2025년과 2030년 벤치마크 설정값이 아닌 가장 최신 연도와 해당 값을 의미함. 한편, 「교육 2030 인천선언과 실행계획」에서는 '정부 총 지출 대비 교육비 비율'과 'GDP 대비 교육비 비율'의 아시아-태평양 권역 벤치마크를 각각 4%~6%와 15%~20%로 설정하는 데 합의(UNESCO, 2021b).

분석 결과, 국가별 벤치마크를 기초로 할 때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교육 여건, 교육 기회, 교육 참여, 교육성과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지속가능발전목표(SDG4)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SDG4 지표에서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권역의 벤치마크 수준을 이미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공식 입학 연령 1년 전 아동의 조직화된 학습 참여 비율’과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의 ‘학교밖 아동/청소년 비율’ 지표의 경우 우리나라의 2025/2030 벤치마크가 권역별 2025/2030 벤치마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가 향후 SDG4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유아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업 중단 학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 나. 주요 지표 현황

최근 SDG4와 관련된 주요 지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보다 신뢰성 있고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OECD 교육지표사업(INES)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SDG4 지표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다. 구체적인 예시로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협력 그룹(Technical Cooperation Group, TCG)에서는 인구자료로 기존의 UN 인구 데이터(UNPD) 대신 국가별 인구 데이터(DEM)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다음으로, ‘상대적인 교사 임금(4.c.5)’ 지표의 경우, OECD NESLI 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교사 전문성 개발활동(4.c.7)’ 지표와 관련하여 TALIS 자료를 사용할 것을 제안되었다. 또한, SDG4 데이터 및 산출 지표의 검증(validation) 과정에서 지표의 정합성(harmonization)을 높이기 위해 유네스코 통계원(UIS)과 OECD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검증 작업은 유네스코 통계원(UIS)이 각 국가에 UOE(UNESCO/OECD/Eurostat)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SDG4 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formula 파일을 보내고, OECD는 원자료와 산출된 SDG4 지표를 비교할 수 있는 엑셀 파일을 제공하여 교차 검증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둘째, SDG4 지표의 질 제고와 더불어 미제공 지표의 산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단계별 최소 요구조건을 갖춘 교사비율(4.c.1)’ 지표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원양성체계가 잘 갖춰진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OECD 국가에서 UIS와 OECD 측에 지속적으로 해당 지표값을 100%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자격을 갖춘 교사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없다는 인식하에 해당 지표 값은 UIS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꾸준한 요청에 따라 올해 3월 post-TCG 회담에서 회원국들은 예비 교사 실습 기간, 학력 기준 등 훈련된 자격을 갖춘 교사에 대한 국가별 정의와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기로 합의하였다. 향후 관련 수시 조사 결과가 반영될 경우 데이터 가용성 및 지표의 활용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최근 들어, 구체적인 교육정책 모니터링을 위해 지역, 성별, 가정배경 등에 따른 분리 통계 수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23 OECD 교육지표(EAG)」의 주제가

직업교육 및 훈련(VET)으로 정해지면서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지표 4.3.3.)’을 교육 수준 및 프로그램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2023 EAG에 수록할 예정이다. 또한,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형평성 지수도 함께 보고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표에서 지역, 성별,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에 따른 형평성 지수가 개발될 것이며, 이를 위해 데이터 수집 및 자료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OECD INES네트워크에서는 교육지표의 국제적 비교와 시각화를 목적으로 형평성과 COVID 19를 중심으로 OECD 교육지표(EAG)의 대시보드를 개발·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다양한 교육 주제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유네스코 통계원(UIS)과 TCG를 중심으로 SDG4 목표 이행을 위한 대시보드 개발과 활용에 관한 논의 진행이 예상된다.

## 2. 2022년 국내 우수사례 소개

한국교육개발원은 SDG4 지표의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기관으로서 각 목표별 담당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가능성 확대, 미산출 지표 제공 및 지표의 질 제고 방안 마련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SDG4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표를 신뢰할 수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문항 개발과 정기적인 데이터 수집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표적으로 올해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과의 협업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SDG4 목표 4.7과 관련하여 SDG4 모니터링 워킹그룹에서는 2021년 APCEIU에서 수행한 「국내 세계시민교육 모니터링 체제 구축 연구」에서 개발한 교사와 학생의 세계시민교육 역량 측정 문항을 검토하고, 이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 중인 「국가수준 교육현안 진단 및 공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구축」 연구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가수준 교육현안 진단 및 공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구축」 연구는 교육 현안 진단 및 공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조사 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 중인 연구로서 향후 다양한 SDG4 세부 목표의 담당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 공동연구를 통한 문항 개발 및 활용 등에 관한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3. SDG4 이행 촉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제언

SDG4 이행 촉진을 위한 권역별, 국가별 벤치마크 설정이 완료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은 설정된 벤치마크와 국가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벤치마크 설정·이행활동·평가 및 피드백의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데이터 수집을 위한 조사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는 각 세부목표별로 담당 기관이 국내 이행목표와 지표 설정 등을 진행하며, 모니터링 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SDG4 지표의 검증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올해 한국교육개발원과 APCEIU와의 협업 사례는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지표 모니터링과 데이터 수집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 미산출 지표를 중심으로 지표 개발이나 데이터 연계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SDG4 목표 설정, 데이터 수집, 국가 교육정책 목표 및 계획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SDG4 이행을 위한 추진 체계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우선, 교육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SDG 4-교육 2030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은 여전히 중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나 다른 국가 정책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통계청, 교육부, 환경부를 넘어선 범부처 차원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목표 수립, 이행, 성과관리 및 피드백의 전 과정에서 시민단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그룹, 교수나 연구기관 관계자 등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수렴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 UNESCO(2021a). SDG4 Data Digest 2021: National SDG4 benchmarks: fulfilling our neglected commitment.
- UNESCO(2021b). Summary Report of Asia and Pacific Regional Technical Consultations on Regional Benchmarks for SDG. [https://tcg.uis.unesco.org/wp-content/uploads/sites/4/2021/08/Summary-report\\_-\\_Regional-benchmarks\\_AsiaPacific\\_FINAL-Outcomes\\_20210723.pdf](https://tcg.uis.unesco.org/wp-content/uploads/sites/4/2021/08/Summary-report_-_Regional-benchmarks_AsiaPacific_FINAL-Outcomes_20210723.pdf)(2022.11.24. 자료인출)
- UNESCO(2022). Setting Commitments: National SDG4 Benchmarks to transform education.

# 교육ICT 이행현황 점검 및 제언

## SDG4 달성을 위한 학교의 디지털 접근성 및 역량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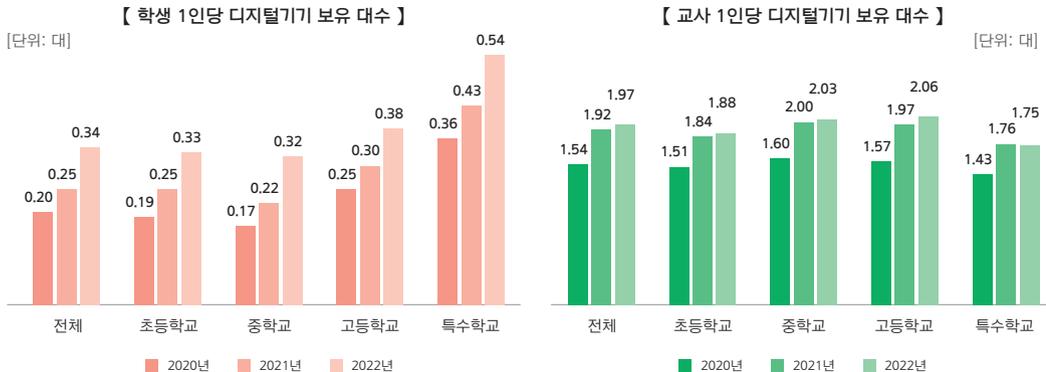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계보경 글로벌정책연구부장

SDG4-교육2030 목표에서 ICT는 유아, 초중등, 고등, 직업기술 교육훈련, 평생교육을 아우르는 교육 전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SDG 4.4.1은 얼마나 많은 청소년과 성인이 정보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정도와 더 나은 일자리를 연계해 다루고 있는데, 이제는 비단 일자리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기본적인 삶을 위한 역량으로서의 ICT의 영향력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사회 각 부문의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디지털 역량 격차는 단순한 정보 접근성의 격차를 넘어 인식의 격차, 경제·문화적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격차는 점차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구조적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 1) 우리 학교의 디지털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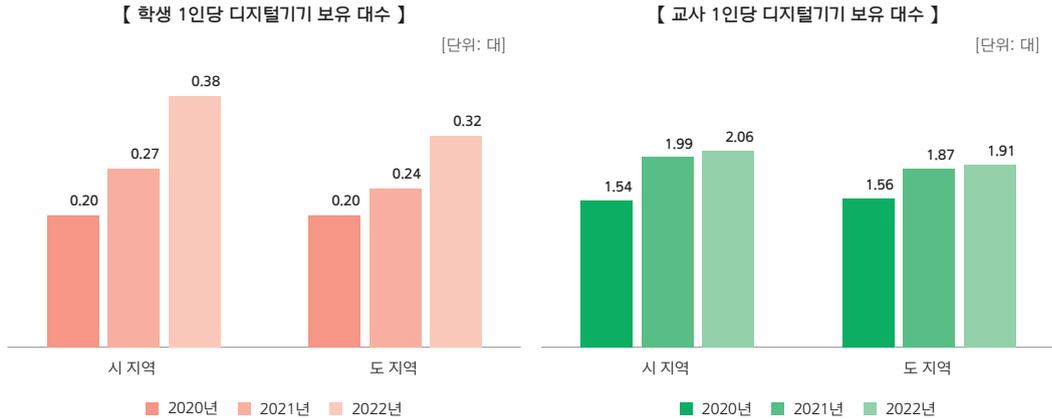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는 매년 학교의 디지털 교육 전환 현황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통계 및 교육정보 통계시스템(EDS)을 활용하여 분석한 2020-2022년 1인당 디지털 기기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학생 1인당 디지털기기 보유 대수는 2020년 0.20대, 2021년 0.25대, 2022년 0.34대이고 교사 1인당 디지털기기 보유 대수는 2020년 1.54대, 2021년 1.92대, 2022년 1.97대로 나타나 코로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1] 교육수준별 디지털기기 보유 대수 변화 추이



한편 지역별 학생 1인당 디지털기기 보유 대수는 2020년에는 시 지역과 도 지역이 동일한 수준이었으나 2021년과 2022년에는 모두 시 지역의 디지털기기 보유 대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교사 1인당 디지털기기 보유 대수 역시 2020년을 제외하고는 시 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나 지역별로 디지털기기 보급에 있어 차이가 발생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시/도 디지털기기 보유 대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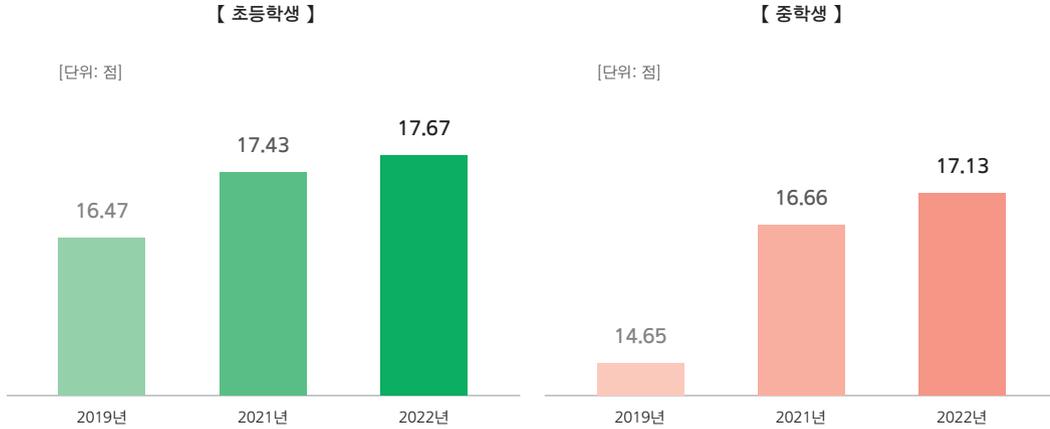
아울러 학교 현장의 디지털 교육 관련 인적 지표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데 반해 학교의 커리큘럼 변화는 더딘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 2) 우리나라 초·중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초·중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 및 디지털 역량 강화 정책 지원을 위해 매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수준 디지털 리터러시 검사는 크게 ICT 영역과 CT(Computational Thinking) 영역으로 구성되며, ICT 영역은 5개의 하위 영역(정보의 탐색, 정보의 분석 및 평가, 정보의 조직 및 창출, 정보의 활용 및 관리, 정보의 소통), CT 영역은 2개의 하위 영역(추상화, 자동화)으로 구성된다. 국가수준 초·중학교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측정 연구는 매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지역 규모, 성별, 학급당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전체 학생 수의 약 1%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유층 무선 표집하여 실시하는데, 올해 검사에는 총 229개 초등학교에서 학생 11,595명과 총 217개 중학교에서 학생 14,770명이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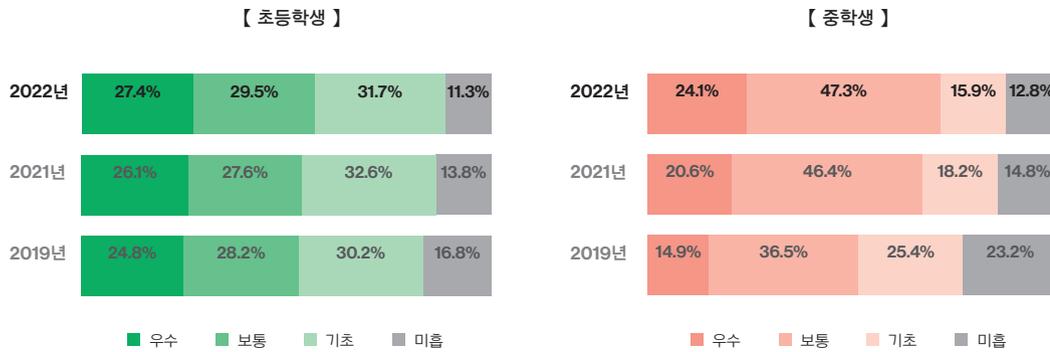
조사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점수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디지털 리터러시 평균 점수(동등화 점수)는 초등학교생 17.67점, 중학생 17.13점으로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초등학교생과 중학생 모두 2019년과 2021년에 이어 2022년 검사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검사 점수가 높게 나타나 학생들의 리터러시 수준의 꾸준한 증가를 알 수 있다.

[그림 3] 학생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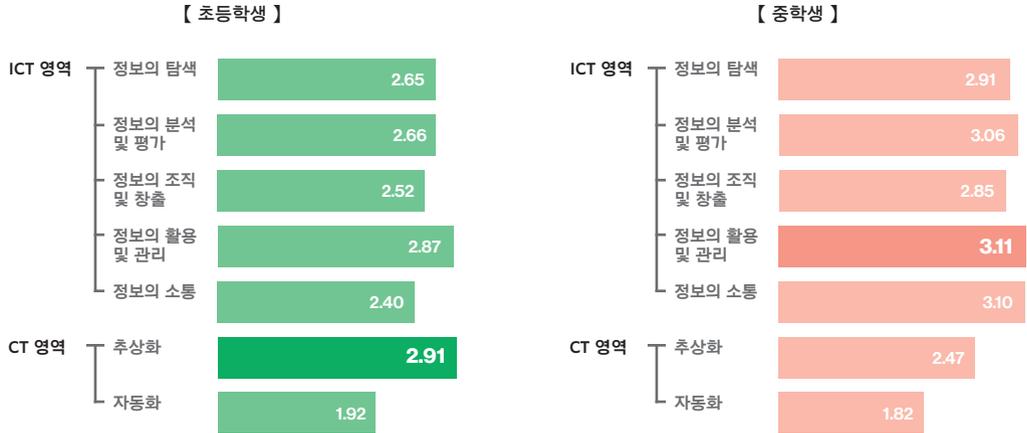
아울러 3개년 간 디지털 리터러시 성취 수준 분포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우수 수준 학생 비율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미흡 학생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디지털 리터러시 성취 수준 분포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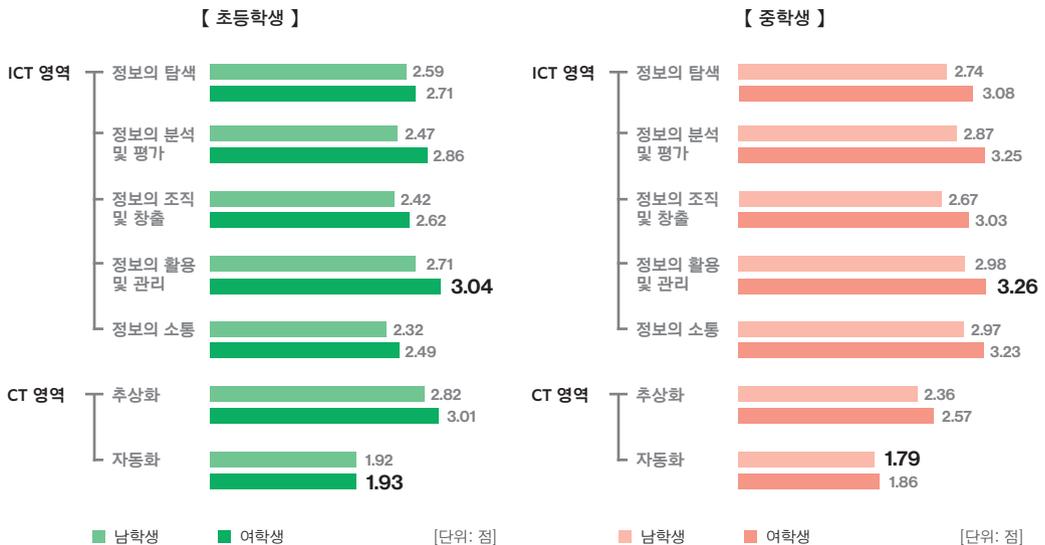
디지털 리터러시 검사의 하위 요소별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정보의 활용과 관리’와 ‘추상화’의 평균 점수가 다른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동화’의 평균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타 요소에 비해 ‘정보의 활용 및 관리’와 ‘정보와 소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타났으며, ‘추상화’와 ‘자동화’ 요소의 점수가 다른 요소에 비해 낮았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자동화’ 요소의 점수가 다른 요소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는 점과 이러한 경향이 이전 연도의 검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학생들이 ICT 기기와 컴퓨팅적 사고를 적용하여 효과적인 문제해결 방법 및 절차를 자동화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5] 학교급에 따른 하위영역별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의 차이



성별에 따른 초·중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은 2018년에 디지털 리터러시 검사가 실시된 이래로 여학생 수치가 남학생보다 높은 경향이 일관되게 관찰되었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자동화’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여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고, ‘자동화’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중학교에서는 전 영역에서 여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지난해까지 ‘자동화’ 영역에서는 성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디지털기 활용 효능감에 대한 성별 차이는 ‘코딩’ 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았으며, ‘코딩’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그 효능감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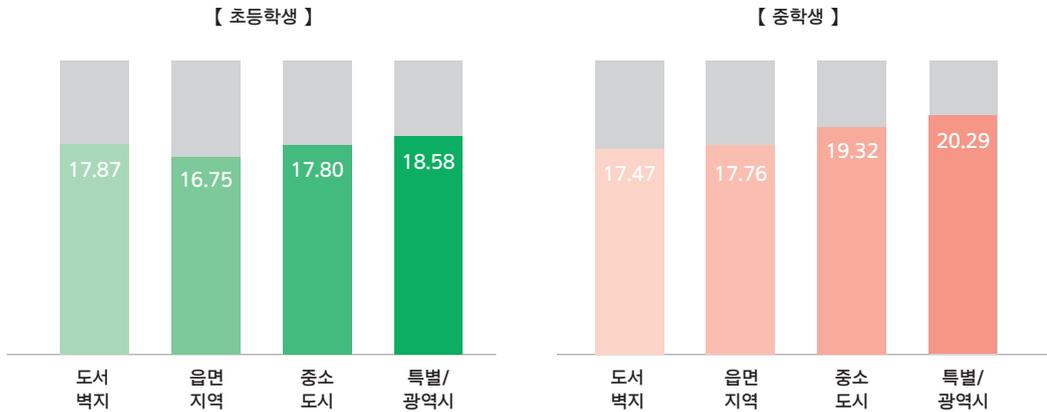
[그림 6] 성별에 따른 하위 영역별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의 차이



반면 디지털기기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흥미’, ‘도구적 동기’, ‘자율성’ 요소에서 모두 남학생의 평균 점수가 여학생에 비해 높았으며, 중학교에서는 ‘흥미’와 ‘도구적 동기’ 요소 점수는 남학생이 높았고, ‘자율성’ 요소 점수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성별에 따른 차이는 ICILS(International Computer and Information Literacy Study)와 같은 국제비교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데, 컴퓨팅 사고력 영역에서는 남학생이 근소하게 높거나 성별 차가 나타나지 않는 경향성을 지속적으로 보인다. 이는 성차에 따른 역량 강화 전략이 차별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지역 규모별 비교에 있어서는 대도시(특별/광역시)에 소재한 학교 학생들의 점수가 중소도시, 읍면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도서·벽지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꾸준히 향상이 확인되었지만, 중학교의 경우 읍면 지역과 도서·벽지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역 규모별 격차는 해마다 점차 심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다차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림 7] 지역 규모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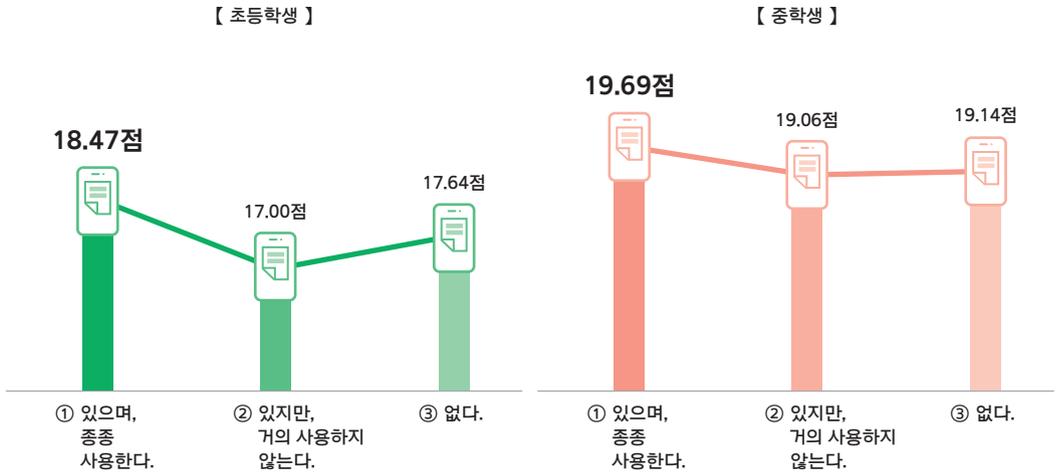


**3) 디지털 접근성과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한편 디지털 접근성과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관계에 있어, 학교의 인프라 접근성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대체로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의 인프라 접근성이 높을수록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도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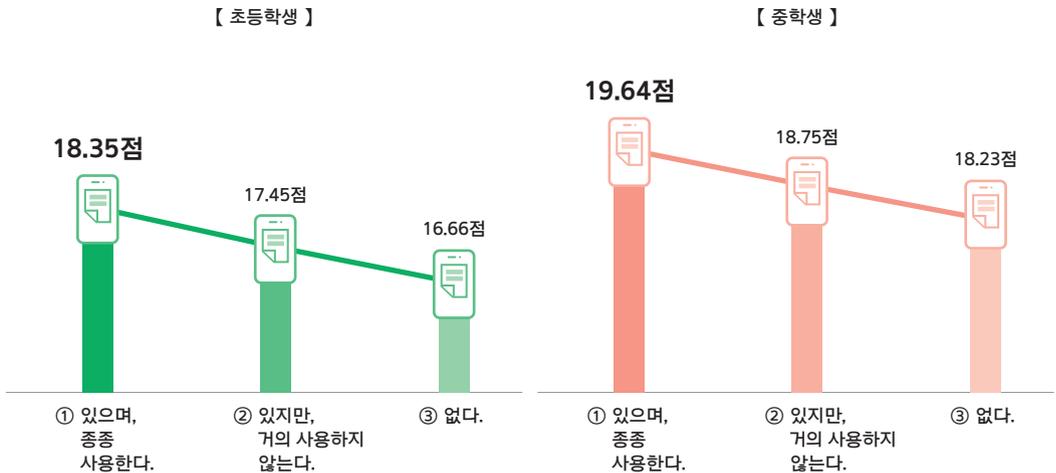
보다 구체적으로 학교급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학교의 디지털기기 접근성(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사용가능한 디지털기기가 있고,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이 높을수록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8] 수업 시간 내 개별 사용 가능한 디지털기기 유무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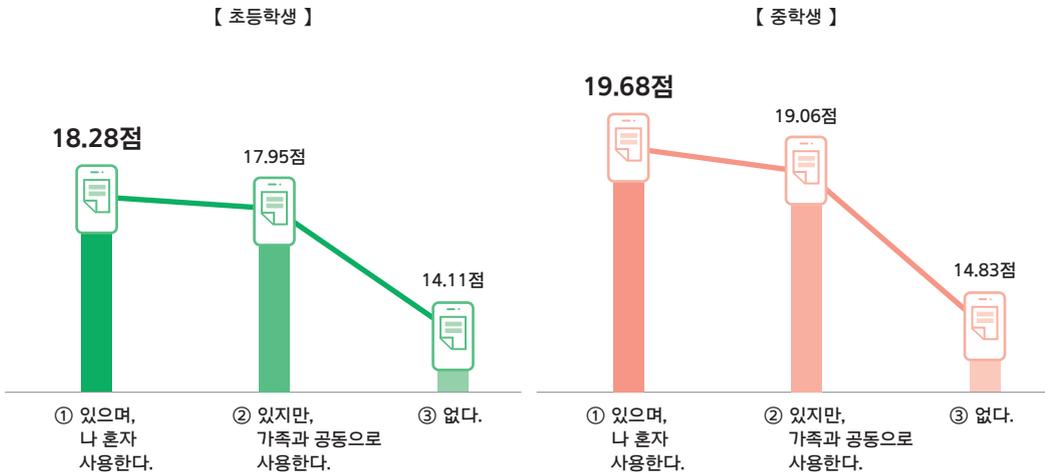
또한, 일반 교실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은 인터넷이 연결된 환경에서 학습했을 때가 그렇지 않았을 때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디지털 접근성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학습 경험 차이에서 기인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9] 일반 교실 내 인터넷 연결 여부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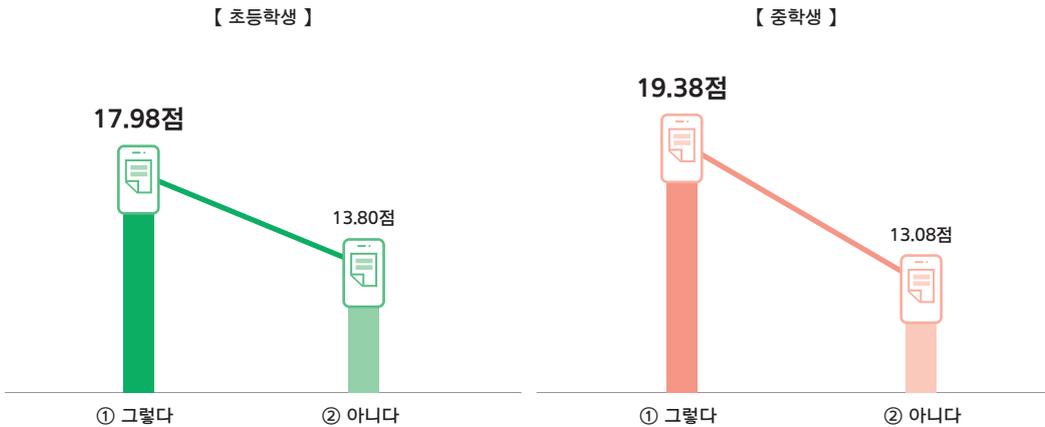


가정의 접근성에 있어서는, 가정 내 디지털기기를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 디지털 기기 사용을 위해 독립적인 공간이 확보된 경우, 그리고 인터넷이 연결된 학습 환경을 갖춘 경우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현격히 높게 나타났다.

[그림 10] 가정 내 기기 보유 여부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의 차이



[그림 11] 가정 내 인터넷 연결 여부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의 차이



지역 규모별로 학교의 디지털 접근성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도서·벽지 소재 학교가 다른 지역 규모의 학교에 비해 디지털 접근성이 더 높았던 반면, 가정에서의 디지털 접근성은 특별·광역시와 중소도시가 도서·벽지에 비해 약간 높았다. 특별·광역시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다른 지역 규모의 학생들에 비해 높은 점은 학교의 디지털 접근성보다 가정의 디지털 접근성이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에 더 중요한 요인임을 뜻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디지털 접근성( $R=0.42$ ), 교육 경험( $R=0.68$ ), 독해 역량( $R^2=0.63$ ) 등을 꼽은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2018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며, 가정과 학교의 디지털 접근성이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에 중요한 요건이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 요구에 있어서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모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네트워크 및 기기 등 인프라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았으며, ‘디지털 리터러시 교과서·교육자료(콘텐츠, 앱 등) 개발 및 무료 보급’과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연수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디지털 역량은 이제 미래 노동 시장 및 산업 수요에 대한 대응의 차원을 넘어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현재의 리터러시로 그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급격한 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격차 이슈도 접근성 격차에서부터 활용 격차, 질적 격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 앞선 연구 결과에서 드러나듯 새로운 시대의 리터러시로서의 디지털 역량을 고르게 함양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디지털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및 가정의 디지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교육과정을 재편하며,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교사에게 요구되는 교원 디지털 역량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디지털 접근성과 디지털 역량의 수준 격차의 발생 원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학생과 교사의 디지털 역량을 고르게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 문제가 불편함에서 불이익, 나아가 생존의 문제로 번지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공의 자산으로서의 디지털 기술과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디지털 역량에 대하여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때다.

## 참고문헌

---

- KERIS(2022). 2022년 디지털 교육 인프라 및 학생 디지털 역량 현황.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KERIS(2022). 2022년 초·중등학교 디지털전환 실태조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KERIS(2022). 2022년 국가수준 초·중학생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측정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KERIS(2021). 2021년 국가수준 초·중학생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측정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OECD(2021). 21st-Century Readers: Developing Literacy Skills in a Digital World. PISA.
- UNESCO(2018). Quick Guide for Education Indicator for SDG4.

## V. SDG4 국내 주요 연구 및 발간물

분야	제목	저자	발행기관
SDG4 교육 일반	2021/22 세계 교육 현황 보고서 요약본 : 비국가 행위자의 교육 참여	유네스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a href="https://www.unesco.or.kr/assets/data/report/ycf0FvHWAH0HBtJTIFdmY4908FLGRC_1656036015_2.pdf">https://www.unesco.or.kr/assets/data/report/ycf0FvHWAH0HBtJTIFdmY4908FLGRC_1656036015_2.pdf</a>
	미래교육 전망: UNESCO 교육의 미래와 OECD 교육 2030을 중심으로 (RRO 2022-1)	김미경 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a href="https://www.kice.re.kr/resrchBoard/view.do?seq=940&amp;s=kice&amp;m=030109">https://www.kice.re.kr/resrchBoard/view.do?seq=940&amp;s=kice&amp;m=030109</a>
	미래 사회 메가트렌드에 따른 학교지식의 구상과 교육과정 재구조화 (II) (RRC 2022-2)	정영근 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a href="https://www.kice.re.kr/resrchBoard/view.do?seq=980&amp;s=kice&amp;m=030109">https://www.kice.re.kr/resrchBoard/view.do?seq=980&amp;s=kice&amp;m=030109</a>
	[제6회 SDG4-교육2030포럼 자료집] 2022 국제 교육 동향과 한국의 교육 전환(2022. 11. 24)		유네스코한국위원회 <a href="https://www.unesco.or.kr/assets/data/report/tkJtuHbm5JcPk7OcHqBaNOjbqm40vu_1670476655_2.pdf">https://www.unesco.or.kr/assets/data/report/tkJtuHbm5JcPk7OcHqBaNOjbqm40vu_1670476655_2.pdf</a>
	[2022 국회포럼 자료집] 유네스코 미래 교육 전환을 위한 국회포럼(2022. 8. 26)		교육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a href="https://www.unesco.or.kr/assets/data/report/VbJoR07DYkseVhhKVOnGUxrpA3v47i_1661469421_2.pdf">https://www.unesco.or.kr/assets/data/report/VbJoR07DYkseVhhKVOnGUxrpA3v47i_1661469421_2.pdf</a>
SDG4.1 초·중등교육	[2022 KICE-유네스코한국위원회 SDG4.1 포럼 자료집] (2022. 8. 3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코로나-19로 인한 중·고등학생의 수학교육 실태 및 개선 방안 탐색: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권정례 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a href="https://www.kice.re.kr/resrchBoard/view.do?seq=984&amp;s=kice&amp;m=030109">https://www.kice.re.kr/resrchBoard/view.do?seq=984&amp;s=kice&amp;m=030109</a>
	[2022 KICE 이슈페이퍼]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한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학업성취도 영향 요인 비교 분석	김미림 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a href="https://www.kice.re.kr/resrchBoard/view.do?seq=978&amp;s=kice&amp;m=030109">https://www.kice.re.kr/resrchBoard/view.do?seq=978&amp;s=kice&amp;m=030109</a>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활용한 교과별 학업성취 유형 분석 및 맞춤형 피드백 제공 방안 연구	김인숙 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a href="https://www.kice.re.kr/resrchBoard/view.do?seq=975&amp;s=kice&amp;m=030109">https://www.kice.re.kr/resrchBoard/view.do?seq=975&amp;s=kice&amp;m=030109</a>

	TIMSS/ICILS에 기반한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과학 성취 및 컴퓨터·정보 소양 변화 추이	서민희 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학교	심경아 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2 KICE 이슈페이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의 사회·정서적 역량 정보 제공 방안 연구	김인숙 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SDG4.2 영유아 보육·교육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단계적 추진 방안	최은영 외	육아정책연구소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모형개발 기초연구	도남희 외	육아정책연구소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V): 2021~2022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김나영 외	육아정책연구소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방안 연구 (I)	최은영 외	육아정책연구소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구축연구	최윤경 외	육아정책연구소
	평등한 돌봄권 보장을 위한 자녀돌봄 시간정책 개선방안 연구 (I): 고용형태별 돌봄 격차 해소를 중심으로	박은정 외	육아정책연구소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시도교육청 행정 조직과 기능 개선 방안 연구	문무경 외	육아정책연구소
SDG4.3 고등교육	[KCUE Higher Education Issue] SDGs 고등교육분야 국내 이행 현황과 과제 (2022년 제2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25회 고등교육 전문가토론회 자료집] 대학에서 SDGs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국내·외 대학의 사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2 고등교육) 현안분석 자료집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21회 고등교육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전략과 과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a href="http://library.kcue.or.kr/subhomepage1/usmn292.jsp">http://library.kcue.or.kr/subhomepage1/usmn292.jsp</a>
	[국회 포럼 자료집] 새로운 고등교육 패러다임과 윤석열 정부의 역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a href="http://library.kcue.or.kr/subhomepage1/usmn292.jsp">http://library.kcue.or.kr/subhomepage1/usmn292.jsp</a>
	평생직업교육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미래역할과 발전방안	이상훈 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a href="https://www.krivet.re.kr/ku/da/kuBAAVw.jsp?lpgn=7&amp;gk=ALL&amp;gv=&amp;div=A&amp;orderBy=NEW&amp;gn=E1-E120230002&amp;target=list_63">https://www.krivet.re.kr/ku/da/kuBAAVw.jsp?lpgn=7&amp;gk=ALL&amp;gv=&amp;div=A&amp;orderBy=NEW&amp;gn=E1-E120230002&amp;target=list_63</a>
SDG4.4 직무스킬	직업계고 기초학력 신장 지원 체제 구축 연구(II): 하이점프 시스템 개편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김미경 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a href="https://www.kice.re.kr/resrchBoard/view.do?seq=841&amp;s=kice&amp;m=030109">https://www.kice.re.kr/resrchBoard/view.do?seq=841&amp;s=kice&amp;m=030109</a>
	2022년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구축 사업	김상진 외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a href="https://www.krivet.re.kr/ku/da/kuBAAVw.jsp?lpgn=1&amp;gk=ALL&amp;gv=&amp;div=A&amp;orderBy=NEW&amp;gy=2022&amp;type=0&amp;gn=E1-E120230206&amp;target=list_1">https://www.krivet.re.kr/ku/da/kuBAAVw.jsp?lpgn=1&amp;gk=ALL&amp;gv=&amp;div=A&amp;orderBy=NEW&amp;gy=2022&amp;type=0&amp;gn=E1-E120230206&amp;target=list_1</a>
	디지털 전환과 사회불평등에 대응하는 직업능력정책	류기락 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a href="https://www.krivet.re.kr/ku/da/kuBAAVw.jsp?lpgn=1&amp;gk=ALL&amp;gv=&amp;div=A&amp;orderBy=NEW&amp;gy=2022&amp;type=0&amp;gn=E1-E120230157&amp;target=list_8">https://www.krivet.re.kr/ku/da/kuBAAVw.jsp?lpgn=1&amp;gk=ALL&amp;gv=&amp;div=A&amp;orderBy=NEW&amp;gy=2022&amp;type=0&amp;gn=E1-E120230157&amp;target=list_8</a>
	국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정재호 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a href="https://www.krivet.re.kr/ku/da/kuBAAVw.jsp?lpgn=1&amp;gk=ALL&amp;gv=&amp;div=A&amp;orderBy=NEW&amp;gy=2022&amp;type=0&amp;gn=E1-E120230158&amp;target=list_7">https://www.krivet.re.kr/ku/da/kuBAAVw.jsp?lpgn=1&amp;gk=ALL&amp;gv=&amp;div=A&amp;orderBy=NEW&amp;gy=2022&amp;type=0&amp;gn=E1-E120230158&amp;target=list_7</a>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 연구	김성남 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a href="https://www.krivet.re.kr/ku/da/kuBAAVw.jsp?lpgn=1&amp;gk=ALL&amp;gv=&amp;div=A&amp;orderBy=NEW&amp;gy=2022&amp;type=0&amp;gn=E1-E120230160&amp;target=list_5">https://www.krivet.re.kr/ku/da/kuBAAVw.jsp?lpgn=1&amp;gk=ALL&amp;gv=&amp;div=A&amp;orderBy=NEW&amp;gy=2022&amp;type=0&amp;gn=E1-E120230160&amp;target=list_5</a>
	UNESCO Regional Center 사업 (2022)	윤수린 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a href="https://www.krivet.re.kr/ku/da/kuBAAVw.jsp?lpgn=2&amp;gk=ALL&amp;gv=&amp;div=A&amp;orderBy=NEW&amp;gn=E1-E120230155&amp;target=list_10">https://www.krivet.re.kr/ku/da/kuBAAVw.jsp?lpgn=2&amp;gk=ALL&amp;gv=&amp;div=A&amp;orderBy=NEW&amp;gn=E1-E120230155&amp;target=list_10</a>
	2022년 지역 훈련수요조사	전재식 외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연구원 <a href="https://www.krivet.re.kr/ku/da/kuBAAVw.jsp?lpgn=4&amp;gk=ALL&amp;gv=&amp;div=A&amp;orderBy=NEW&amp;gn=E1-E120230094&amp;target=list_31">https://www.krivet.re.kr/ku/da/kuBAAVw.jsp?lpgn=4&amp;gk=ALL&amp;gv=&amp;div=A&amp;orderBy=NEW&amp;gn=E1-E120230094&amp;target=list_31</a>

	제3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정윤경 외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a href="https://www.krivet.re.kr/ku/da/kuBAAVw.jsp?lpgn=8&amp;gk=ALL&amp;gv=&amp;div=A&amp;orderBy=NEW&amp;gn=E1-E120220219&amp;target=list_70">https://www.krivet.re.kr/ku/da/kuBAAVw.jsp?lpgn=8&amp;gk=ALL&amp;gv=&amp;div=A&amp;orderBy=NEW&amp;gn=E1-E120220219&amp;target=list_70</a>	
	2021년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구축 사업	김상진 외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a href="https://www.krivet.re.kr/ku/da/kuBAAVw.jsp?lpgn=11&amp;gk=ALL&amp;gv=&amp;div=A&amp;orderBy=NEW&amp;gn=E1-E120220174&amp;target=list_92">https://www.krivet.re.kr/ku/da/kuBAAVw.jsp?lpgn=11&amp;gk=ALL&amp;gv=&amp;div=A&amp;orderBy=NEW&amp;gn=E1-E120220174&amp;target=list_92</a>	
SDG4.5 교육형평성	교육 분야 양극화 추이 분석 연구(III): 고등 및 평생교육을 중심으로	김태준 외	한국교육개발원
		<a href="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a>	
	교육의 출발선 평등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체제 구축 (II)	노원경 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a href="https://www.kice.re.kr/resrchBoard/view.do?seq=981&amp;s=kice&amp;m=030109">https://www.kice.re.kr/resrchBoard/view.do?seq=981&amp;s=kice&amp;m=030109</a>	
	취약청소년의 자립과 취업지원 방안 (2022): 다문화청소년	변숙영 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a href="https://www.krivet.re.kr/ku/da/kuBAAVw.jsp?lpgn=2&amp;gk=ALL&amp;gv=&amp;div=A&amp;orderBy=NEW&amp;gn=E1-E120230152&amp;target=list_13">https://www.krivet.re.kr/ku/da/kuBAAVw.jsp?lpgn=2&amp;gk=ALL&amp;gv=&amp;div=A&amp;orderBy=NEW&amp;gn=E1-E120230152&amp;target=list_13</a>	
	취약청년의 자립과 취업 지원 방안(2021): 시설보호청소년	변숙영 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a href="https://www.krivet.re.kr/ku/da/kuBAAVw.jsp?lpgn=13&amp;gk=ALL&amp;gv=&amp;div=A&amp;orderBy=NEW&amp;gn=E1-E120220047&amp;target=list_113">https://www.krivet.re.kr/ku/da/kuBAAVw.jsp?lpgn=13&amp;gk=ALL&amp;gv=&amp;div=A&amp;orderBy=NEW&amp;gn=E1-E120220047&amp;target=list_113</a>	
	2021 한국의 성인지 통계	송치선 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a href="https://www.kwdi.re.kr/publications/reportView.do?p=5&amp;idx=130533">https://www.kwdi.re.kr/publications/reportView.do?p=5&amp;idx=130533</a>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의 성평등 ODA 전략 연구	윤지소 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a href="https://www.kwdi.re.kr/publications/reportView.do?p=4&amp;idx=130437">https://www.kwdi.re.kr/publications/reportView.do?p=4&amp;idx=130437</a>		
학습자 중심 관점에서 본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 연구: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김지혜 외	한국교육개발원	
	<a href="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a>		
2022년 성평등추진전략사업: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성평등 의제 확산	김원정 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a href="https://www.kwdi.re.kr/publications/reportView.do?cg2=0010210&amp;s=searchAll&amp;p=1&amp;idx=130464">https://www.kwdi.re.kr/publications/reportView.do?cg2=0010210&amp;s=searchAll&amp;p=1&amp;idx=130464</a>		

SDG4.6 평생교육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현황 분석 및 운영 방안 탐색	권정례 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a href="https://www.kice.re.kr/resrchBoard/view.do?seq=840&amp;s=kice&amp;m=030109">https://www.kice.re.kr/resrchBoard/view.do?seq=840&amp;s=kice&amp;m=030109</a>	
	성인 진로교육 수요 분석 및 정책 수립 방안 연구	이재열 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a href="https://www.krivet.re.kr/ku/da/kuBAAVw.jsp?lpgn=8&amp;gk=ALL&amp;gv=&amp;div=A&amp;orderBy=NEW&amp;gn=E1-E120220212&amp;target=list_71">https://www.krivet.re.kr/ku/da/kuBAAVw.jsp?lpgn=8&amp;gk=ALL&amp;gv=&amp;div=A&amp;orderBy=NEW&amp;gn=E1-E120220212&amp;target=list_71</a>	
	2021 평생교육백서(제21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a href="https://www.nile.or.kr/ebook/2022/02/index.html">https://www.nile.or.kr/ebook/2022/02/index.html</a>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 평생교육 연계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a href="https://www.nile.or.kr/contents/contents.jsp?bkind=report&amp;bcode=CAHAAAA&amp;bmode=view&amp;idx=BCJDFCECEDCCH&amp;pageNo=3">https://www.nile.or.kr/contents/contents.jsp?bkind=report&amp;bcode=CAHAAAA&amp;bmode=view&amp;idx=BCJDFCECEDCCH&amp;pageNo=3</a>	
코로나19 이후 평생교육 인식 변화 조사 결과보고서	심명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a href="https://www.nile.or.kr/contents/contents.jsp?bkind=report&amp;bcode=CAHAAAA&amp;bmode=view&amp;idx=BCJDFCECEDCED&amp;pageNo=2">https://www.nile.or.kr/contents/contents.jsp?bkind=report&amp;bcode=CAHAAAA&amp;bmode=view&amp;idx=BCJDFCECEDCED&amp;pageNo=2</a>		
제7차 세계성인교육회의의 마라케시 실행계획	유네스코평생학습연구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a href="https://www.unesco.or.kr/assets/data/report/sWGnQ0DWCICTRUghBbJcJ9tIvXvRMT_1670476553_2.pdf">https://www.unesco.or.kr/assets/data/report/sWGnQ0DWCICTRUghBbJcJ9tIvXvRMT_1670476553_2.pdf</a>		
청소년 및 성인 문해력 향상을 위한 원격개방교육 지침	유네스코평생학습연구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a href="https://www.unesco.or.kr/assets/data/report/FCD8a5eppR7nm6s17mFc7yUCdmUlr_1656036434_2.pdf">https://www.unesco.or.kr/assets/data/report/FCD8a5eppR7nm6s17mFc7yUCdmUlr_1656036434_2.pdf</a>		
평생학습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평생교육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김태준 외	한국교육개발원	
	<a href="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a>		
SDG4.7 지속가능발전· 세계시민교육	초·중등학교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배주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a href="https://www.kice.re.kr/resrchBoard/view.do?seq=967&amp;s=kice&amp;m=030109">https://www.kice.re.kr/resrchBoard/view.do?seq=967&amp;s=kice&amp;m=030109</a>	
	[2022 KICE 이슈페이퍼] 디지털 사회의 자아정체성과 시민교육적 함의	이소연 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a href="https://www.kice.re.kr/resrchBoard/view.do?seq=934&amp;s=kice&amp;m=030109">https://www.kice.re.kr/resrchBoard/view.do?seq=934&amp;s=kice&amp;m=030109</a>	
세계시민교육 국내 모니터링 체제 구축 연구	박환보 외	유네스코아태국제이해교육원	
	<a href="http://www.unescoapceiu.org/post/4677">http://www.unescoapceiu.org/post/4677</a>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연구(VI):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SDGs 범분야 실천 전략	윤종혁 외	한국교육개발원
			file:///C:/Users/UNESCO/Downloads/RR2022-24.pdf
	제190차 KEDI 교육정책포럼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file:///C:/Users/UNESCO/Downloads/+RM2022-17.pdf
SDG4 모니터링	2022 OECD 교육지표	OECD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22&publSeq=19&menuSeq=3648&itemCode=02&language=en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22&publSeq=2&menuSeq=0&itemCode=02&language=en
	간추린 교육통계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22&publSeq=3&menuSeq=0&itemCode=02&language=en
	한국의 교육지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22&publSeq=90&menuSeq=0&itemCode=02&language=en
	교육통계지표(1999-2022)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22&publSeq=92&menuSeq=0&itemCode=02&language=en
교육통계분석자료집-유초중등교육통계편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22&publSeq=43&menuSeq=0&itemCode=02&language=en	
교육통계분석자료집-고등교육통계편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22&publSeq=44&menuSeq=0&itemCode=02&language=en	
교육통계분석자료집-평생교육통계편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22&publSeq=45&menuSeq=0&itemCode=02&language=en	
평생교육통계자료집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22&publSeq=23&menuSeq=0&itemCode=02&language=en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22&publSeq=24&menuSeq=0&itemCode=02&language=en	

	[2022 KICE 이슈페이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문해력, 수리력 진단도구 개발 및 활용 방안	박성화 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a href="https://www.kice.re.kr/resrchBoard/view.do?seq=987&amp;s=kice&amp;m=030109">https://www.kice.re.kr/resrchBoard/ view.do?seq=987&amp;s=kice&amp;m=030109</a>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문해력, 수리력 진단도구 개발(III): 진단도구 개발 및 타당성 검토	박성화 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a href="https://www.kice.re.kr/resrchBoard/view.do?seq=979&amp;s=kice&amp;m=030109">https://www.kice.re.kr/resrchBoard/ view.do?seq=979&amp;s=kice&amp;m=030109</a>
	국가수준의 교육현안 진단 및 공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구축(I)	박성호 외	한국교육개발원
			<a href="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 selectPubForm.do</a>
교육ICT	[2022년 유네스코 이슈 브리프 제3호] 코로나19 대응으로서의 원격교육 확대와 국제협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외교부
			<a href="https://www.unesco.or.kr/assets/data/report/zNvC40RUKCorgdlhfhfSansbYzAHuqN_1669714777_2.pdf">https://www.unesco.or.kr/assets/data/report/zNvC40RUKC orgdlhfhfSansbYzAHuqN_1669714777_2.pdf</a>
	[2022 KICE 이슈페이퍼] 디지털 대전환(DX) 시대 선도를 위한 교사 및 학생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방안	서민희 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a href="https://www.kice.re.kr/resrchBoard/view.do?seq=983&amp;s=kice&amp;m=030109">https://www.kice.re.kr/resrchBoard/ view.do?seq=983&amp;s=kice&amp;m=030109</a>
	2021년 국가수준 초·중학생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측정 연구	계보경 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a href="https://www.keris.or.kr/main/ad/pblcte/selectPblcteRRInfo.do?mi=1138&amp;pblcteSeq=13539">https://www.keris.or.kr/main/ad/pblcte/selectPblcteRRInfo. do?mi=1138&amp;pblcteSeq=13539</a>
	수행형 기반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도구 개발 연구	계보경 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a href="https://www.keris.or.kr/main/ad/pblcte/selectPblcteRRInfo.do?mi=1138&amp;pblcteSeq=13557">https://www.keris.or.kr/main/ad/pblcte/selectPblcteRRInfo. do?mi=1138&amp;pblcteSeq=13557</a>
	지속가능한 ACU 프로젝트를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장상현 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a href="https://www.keris.or.kr/main/ad/pblcte/selectPblcteRRInfo.do?mi=1138&amp;pblcteSeq=13618">https://www.keris.or.kr/main/ad/pblcte/selectPblcteRRInfo. do?mi=1138&amp;pblcteSeq=13618</a>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술 적용 방안 연구	정영식 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a href="https://www.keris.or.kr/main/ad/pblcte/selectPblcteRRInfo.do?mi=1138&amp;pblcteSeq=13642">https://www.keris.or.kr/main/ad/pblcte/selectPblcteRRInfo. do?mi=1138&amp;pblcteSeq=13642</a>
	교육과정 연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김진숙 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a href="https://www.keris.or.kr/main/ad/pblcte/selectPblcteRRInfo.do?mi=1138&amp;pblcteSeq=13665">https://www.keris.or.kr/main/ad/pblcte/selectPblcteRRInfo. do?mi=1138&amp;pblcteSeq=13665</a>
	2022 교육정보화백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a href="https://www.keris.or.kr/main/na/ntt/selectNttInfo.do?mi=1244&amp;nttSn=39582&amp;bbsId=1104">https://www.keris.or.kr/main/na/ntt/selectNttInfo.do?mi=12 44&amp;nttSn=39582&amp;bbsId=1104</a>

## VI. 2022년 SDG4 국제 주요 문서 (국문번역본)

- 제2차 아태지역 교육장관회의(APREMC II) 결과문서: 방콕 성명
- 유엔 교육정상회의(TES) 유엔사무총장 비전성명
- 제7차 세계성인교육회의 (CONFINTEA VII) 결과문서: 마라케시 실행계획
- 제2차 세계영유아교육회의 결과문서: 타슈켄트 선언

## 제2차 아태지역 교육장관회의(APREMC II) 결과문서

### ❖ 2022년 방콕 성명

모두를 위한 효과적인 학습회복과  
아태지역의 교육 전환을 향하여

#### 전문(前文)

---

1. 우리 아태지역 교육장관, 정부 고위급 공무원과 지역단체, 시민사회단체, 교원단체, 유엔기구, 개발파트너, 청년, 학계, 민간부문의 대표들은 2022년 6월 5일부터 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2차 아태지역 교육장관 회의(APREMC II)에 모였다.
2. 이 중요한 행사를 주최하고 따뜻하게 환영해 준 태국 정부와 이 회의의 개최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일본 정부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3. 우리는 교육이 포용적이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발전, 평화의 문화, 세계시민의식, 건강과 안녕에 필수적이며 아태지역과 전 세계의 경제 회복과 성장에 필수적인 그 밖의 권리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 인권임을 재확인한다.
4. 우리는 아태지역에서 SDG4에 대한 진전과 이행의 격차, 특히 형평성, 포용성 및 학습을 진전시키는 데 주요한 도전과제를 검토하였고 UN ESCAP이 주최한 2022년 3월 29일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포럼에서 재확인하였던 완전한 SDG4-교육 2030 의제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5. 우리는 APREMC II 이전에 수행된 소지역 협의 결과와 회의 중에 발표된 NGO 성명서 및 청소년 성명서를 주목한다.
6. 우리는 특히 지리, 인구통계학적 경향, 문화, 언어, 종교, 경제 발전 수준, 교육 시스템의 구조, 교육 참여 및 학습 결과 측면에서 아시아·태평양 평양 지역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7. 우리는 우리 사회와 경제의 상호의존성과 공동의 미래, 그리고 그에 따른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8. 우리는 이 성명이 글로벌 안보 우려, 이주의 증가, 환경 악화 및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특히 취약한 기후변화와 더불어, 세계와 아태지역이 코로나19가 학생들의 학습, 건강 및 안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기존의 학습위기는 더욱 악화되고 글로벌 및 지역에 경제 위기가 발생하며,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역사적인 순간에 나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9. 우리는 학교를 안전하게 재개하고, 모든 학습자, 특히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들을 재등록하여, 모든 학습자들이 학습을 회복하고 건강과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인식한다.
10. 우리는 교육과 그 시스템이 보다 공평하고 포용적이며 적절하고 유연하며 높은 회복력을 갖추고, 현재의 학습위기를 해결하며, 보다 평화롭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고, 청소년들이 유의미하게 참여하는 교육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4)를 실현 하도록 교육과 그 시스템을 재구성하고 전환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한다.
11. 따라서 우리는 아태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우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우선순위

---

### ◎ 우선순위 1: 안전한 학교 재개, 학습회복 및 학습의 연속

12. 아태지역의 학교 폐쇄는 교육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기존 학습위기를 심화시켜 취약한 학습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많은 학생들이 학습 중단을 경험했으며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이 계속 열려 있을 경우의 수준으로 학습하지 못했다. 따라서 모든 학습자가 잃어버린 학습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학교를 재개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 특히 중점을 둔 효과적인 학습회복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 안전한 학교 복귀 및 모든 학습자를 위한 학습환경 조성

13. 즉각적인 조치로서, 우리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 중점을 두어 학교 및 기타 학습 기관의 모든 학습자가 안전하게 복귀하고 유지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한 재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유연한 대안 학습 및 그와 동등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학습자와

교사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복귀하지 못할 위험이 가장 높거나 학교 밖에 있는 대상자를 겨냥한 대책과 함께 모든 학습자가 학교 및 그 밖의 기관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코로나19 또는 기타 비상사태로 인해 학교가 휴교하는 경우, 우리는 품질 기준에 따라 모두를 위한 학습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 학습회복전략

14.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매우 칭찬할 만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학교 폐쇄로 인해 아태지역 전역에서 학습결손이 발생하고, 기존의 불평등이 확대되었으며, 가장 취약한 학습자들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우리는 모든 학습자가 적절한 수준에서 학습에 다시 참여하고 학습을 지속해야 한다고 다짐하였고, 따라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초점을 맞춘 증거기반의 상황에 맞는 학습회복전략의 구현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이는 학교 폐쇄가 장기화된 국가와 모든 학습자에게 평등하게 양질의 원격 교육을 제공할 수 없었던 국가에서 특히 중요하다. 여기에는 개별 학생의 학습 및 사회 정서적 요구를 식별하기 위한 평가 프로세스 및 도구 개발과 관련 보충 및 복원 조치의 배치가 포함된다. 교사, 학교 및 가족이 학습회복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우리는 이들을 지원하고 필요한 자원, 지도와 훈련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학습회복전략은 국가별로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학습위기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전략 개발과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 ◎ 우선순위 2: 교육과 교육 시스템의 전환

15. 교육과 그 시스템은 회복력을 갖추고 미래의 충격에 대비하며, 불평등과 학습위기를 해결하고, 인류와 지구의 평화롭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하도록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 영역에서 협의 및 참여 프로세스를 통해 정책, 계획, 자금조달 및 구현 전반에 걸쳐 상호 연결된 구성요소를 검토하고 강화하는 전체적인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 형평성, 포용성 및 성평등

16. 아태지역에서 학습 불평등과 격차가 심화되고 빈곤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 시스템을 전환함에 있어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연령, 성별, 성인지, 사회 경제적 지위, 언어, 국적, 종교, 신분, 지리적 위치, 장애, 문화, 시민권 지위와 건강 상태에 근거한 교육 및 학습 접근에 대한 모든 형태의 배제, 불균형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여기에는 소녀들과 여성들의 교육권 보호가 포함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안전 보장 및 성별기반 폭력 해결을 포함하여 가장

취약한 계층의 학습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이를 겨냥한 대책은 물론 보다 포괄적이고 형평성 중심적이며 성인지적인 부문 계획 및 예산 책정이 필요하다.

#### 교육의 질과 관련성(relevance)

17. 우리는 교육과정, 학습자료 및 교수법이 학습자 중심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하며 우리의 다문화, 다언어 및 지식기반 사회를 반영하고 학습자가 아태지역의 사회통합, 평화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경제, 노동시장 및 기후변화의 영향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역량을 구축해야 함을 인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시민의식 및 직업 세계, 혁신적이고 유연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학, 교수방법과 보조 기기와 도구 등 도구의 사용, 학습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증거기반 정보를 제공하는 학습평가 시스템의 강화를 포함하여 변화하는 사회적 및 경제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교육과정 내용 및 교육학적 접근방식을 재고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모든 학습자가 잘 배우고 잘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질 수 있도록 안전, 건강 및 양성 평등을 촉진하는 포용적인 학습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삶, 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학습과 기술

18. 전환된 교육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이 17개의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핵심요소로서 중요함을 인정하고, 유아 보육·교육(ECCE)에서 고등 및 성인 교육에 이르기까지 학습과 기술 습득에 대한 전체론적인 수명주기 접근방식을 요구한다. 이는 유년 시절에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 십대에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전환을 준비시키고 뒷받침해주는 것의 중요성, 노동시장의 취약성 및 높은 청년 실업률, 변화하는 기술 요구사항과 새롭게 부상하는 부문과 기회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진화하는 노동시장과 새롭게 부상하는 녹색 및 청색 경제의 요구에 부합하는 21세기, 디지털, 고용 가능성 및 삶의 기술에 초점을 둔 ECCE에 대한 추가 투자와 청소년 학습 및 청소년 기술 개발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평생학습 관점에서 모든 연령 및 교육 수준에서 새로운 기술의 습득(re-skill) 및 숙련도 향상(up-skill) 기회를 포함하여 공인된 인증으로 이어지는 다양하고 유연한 학습 및 기술 습득 경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 고도로 숙련된 교사세대의 육성

19. 교사는 교육 전환의 중심에 있다. 교육을 효과적으로 전환하려면 동기부여가 높고, 사회에서 가치를 인정받으며, 경력과 교육 수준 전반에 걸쳐 잘 훈련되고 뒷받침을 받는 전문 교사가 필요하다. 교육 시스템은 교직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지식 전달자에서 학습 및 기술 습득 촉진자로 교사와 교육자의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 자격기준을 개혁하고, 혁신적인 예비 및 현직 교사교육을 제공하며, 전문 학습 커뮤니티와

동료 네트워크를 포괄하고, 디지털 기술의 사용을 최적화하는 학습자 중심의 차별화된 교육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채용과정과 근무여건의 개선,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및 능력에 기반한 직업 경로를 통하여 교직을 보다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디지털 전환

20. 코로나19 교육 대응은 모두를 위한 향상된 학습을 지원하고 학습자들이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과 변화로 특징지어지는 세상을 탐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학습자 중심 디지털 전환의 잠재력과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이를 위해서는 품질기준에 의해 뒷받침되는 포괄적이고 상황에 맞는 디지털 교육 생태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모두를 위한 온라인 교육에 대한 자유롭고, 포용적이며, 공평한 접근성, 양질의 e-러닝 프로그램, 관련 교사 교육 및 디지털 학습을 주류화하고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는 정책이 포함된다. 모든 학습자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저기술 및 무기술 원격학습 솔루션도 제공되어야 한다.

#### 계획, 거버넌스 및 모니터링

21. 전환된 교육 시스템은 시스템의 모든 수준에서 거버넌스, 책무성 및 모니터링의 개혁 및 강화뿐 아니라 회복력을 위한 계획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시스템 회복력 구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또한 공립 및 사립 교육기관에 대한 강력한 교육의 질 기준을 설정하고 책무성을 개선할 뿐 아니라 모든 학습자의 요구와 현지의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의사결정에서 학습자와 학교 관리 위원회를 포함하여 국가하위 수준, 지방 및 학교 수준 행위자에 대한 권한 부여와 유연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나아가 우리는 강화된 데이터 및 모니터링 시스템과 이의 효과적인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및 개선

22. 우리는 가장 취약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투자로 보완된 교육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국내외 투자가 지극히 중요함을 인정한다. 우리는 교육을 위한 국내 재정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보호하며, 확대하기 위한 이전의 행동 요청, 특히 정부가 교육을 위한 국내 자원을 늘리고 이 자원들을 효과적이고 공평하게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파리 선언: 교육의 미래에 대한 투자를 위한 글로벌 요청'을 기반으로 한다. 우리는 국가 상황에 따라 국내총생산의 최소 4-6% 및/또는 교육에 대한 전체 공공지출의 최소 15-20%라는 벤치마크를 준수하고,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추가 투자와 더불어 전체 정부지출 내에서 교육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자원의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할당과 지출, 그리고 학습성과의 질을 개선하고 형평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개입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또한, 우리는 현재 아태지역의 경제 위기로 인한 국내 자금조달의 감소를 고려하여 국제 파트너들이 교육 자금조달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

## 지역 협력

---

23. 우리는 아태지역의 아동, 청소년, 성인들이 세계 공동체의 생산적이고 건강한 시민으로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확고한 공동의 의지로 이들 우선순위 영역을 추구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협력과 상호 교류가 필요함을 인식한다.
24. 따라서 우리는 개별 국가의 고유한 도전과 우선순위를 인정하면서 서로의 경험에서 배우고, 지식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양자 및 지역 차원에서 공동 구상을 개발함으로써 공통의 도전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지역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 앞으로 나아갈 방향

---

25. 우리는 아태지역에서 학습회복과 교육 및 교육 시스템의 심대한 전환을 달성하고 SDG4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 이 성명에서 확인한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6. 우리는 유네스코가 유니세프, 아태지역의 학습·교육2030+네트워크그룹과 더불어 SDG4·교육2030 의제의 이행 및 모니터링의 조정을 계속 주도하고, 회원국의 역량 구축 및 진전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SDG4 벤치마크에 관련한 것을 포함하여 회원국의 이행을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27. 우리는 유네스코가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습회복 및 교육 전환에 있어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한 아태지역 프로그램을 수립함으로써 이 성명의 권고사항에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28. 또한 우리는 아태지역 회원국들이 2023년까지 SDG4의 중간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지원을 유네스코에 요청한다.

29. 우리는 2022년 9월 뉴욕에서 소집되는 교육 전환 정상회의뿐 아니라 2022년 6월 파리에서 개최되는 교육 전환 정상회의 사전회의에 아태지역 회원국들의 핵심 기여로서 이 성명을 제출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 아태지역 회원국들의 참가를 권고한다.

## 부속서

---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학습회복과 교육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 시행 분야

국가적 상황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2022년 방콕 성명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정책 옵션을 승인하는 데 동의한다.

#### 1. 안전한 학교 복귀 및 학습회복

##### 1.1 안전한 학교 복귀 및 모든 학습자를 위한 학습환경 조성

- 적절한 공중보건 및 사회안전 조치를 갖추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훈련된 교직원을 두어 학교, 돌봄센터, 지역사회 학습센터, 중등과정 이후 및 고등 교육기관을 재개관하고 계속 개방한다.
- 학교에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고 포괄적이고 통합된 사회적 보호, 학교 건강 및 영양 프로그램,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며 인터넷 연결성, 저렴한 기기 및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실현가능한 학습환경을 구축한다.
- 학습회복 캠페인을 실시하고 미복귀 위험에 처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재등록 모니터링과 조기경보 시스템 및 적절한 대응 메커니즘 구축을 포함하는 장벽 극복을 위한 조치를 수립한다.
- 학교를 중퇴했거나 교육기관에 등록한 적이 없는 아동과 청소년에 다가가기 위한 비정규 교육을 포함하는 공평하고 유연한 학습 경로 및 대안 학습 프로그램을 수립 또는 강화한다.
- 코로나19 또는 그 밖의 긴급상황으로 인해 여전히 휴교 상태인 경우, 우리는 공평한 품질의 대안교육 및 원격학습을 통해 학습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이 가정에서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 1.2 학습회복전략

- 인지적, 사회 정서적 학습 격차를 식별하여 적절하고 차별화된 교수 및 교정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개별 학생의 학습 수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 학부모와 지역사회 구성원을 참여시킨다.

- 각 수준에서 기초 및 핵심 역량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조정하고, 필요에 따라 미뤄진 학사일정을 만회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수업시수를 연장한다.
- 교사와 비정규 교육자에게 접근 가능한 디지털 기술 및 콘텐츠는 물론 IT 지원 교육 및 혼합형 학습에서 전문 역량 개발을 제공하고 이들의 안녕을 보장하며 학습회복전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 및 지원한다.
- 모든 학습자를 위한 혼합형 교수·학습을 제공하고 학교와 그 밖의 학습기관 내에서 미래의 비상사태와 돌발상황에 대한 대비와 회복력을 강화한다.

## 2. 교육 및 교육 시스템의 전환

### 2.1 형평성, 포용성, 성평등

- 법적 기본틀을 강화하고 교육부문 계획, 정책 및 전략이 형평성기반 예산배정과 더불어 포용적이고 공평하며 젠더변혁적이 되도록 보장한다.
- 극심한 빈곤 상태 및/또는 오지에 거주하는 장애인, 소수민족 및 언어적 소수자, 소녀, 아동과 난민 및 이주자 가족의 자녀의 교육 및 학습 접근에 대한 장벽을 제거한다.
- 모든 연령대와 교육 수준에서 다양한 재진입 지점을 갖춘 유연한 학습 경로를 구축하고, 특히 학교 밖 아동,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대안 교육을 인정, 인증 및 검증한다.
- 다양한 인종적, 언어적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조정하고 초기 문해력 및 모국어 추가 학습에 대한 접근을 촉진한다.
-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들의 교육 참여에 대한 진전상황을 추적하기 위해 취약집단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타당하고 시기적절한 자료의 가용성을 강화한다.

### 2.2 교육의 질과 타당성

- 학습자에게 기초·디지털·21세기·사회 정서 역량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재설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세계시민의식 및 포괄적인 성교육을 위한 교육의 전달을 강화한다.
- 학습자 중심적이고 여러 영역(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에 걸쳐 학습을 촉진하며 협력과 연대의 원칙에 기반하도록 교육학을 전환한다.
- 학습을 위한 평가의 효과적인 활용을 강화하고 고부담 시험의 부정적인 영향을 개선한다.
- 명확한 역량기반 학습성취기준을 수립하고, 학습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교수·학습 정책 및 관행의 개혁을 알리기 위해 국가 및 지역 대규모 평가를 강화한다.

-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잘 배우고 잘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학습자의 건강과 심리사회적 안녕을 촉진하는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젠더 정의적이고 기후를 보호하며 자극을 제공하는 학습환경을 조성한다.
- 가족과 지역사회가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교사, 학부모 및 학습자가 학습 콘텐츠를 학습자의 필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한다.

### 2.3 삶, 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학습과 기술

- 취학 전 교육의 제공 및 투자 확대를 통해 취학 전 교육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학교를 넘어 가정 참여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혁신적인 조기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 모든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전용성 기술과 21세기 기술을 포함하는 더 광범위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보다 모듈화된 접근방식과 중등 프로그램 간의 유연한 전환을 개발하고 중등교육 수료 인증방식을 개혁함으로써 중등교육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과 중등교육의 타당성을 강화한다.
-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 과학 혁신 및 경제의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내용과 교육학적 접근방식을 청소년의 포부, 노동시장의 필요 및 사회 경제적 요구에 맞추어 삶의 기술과 취업능력(employability skill), 창의성, 디지털 리터러시, 기업가 정신에 중점을 둔 청소년 기술 개발을 강화한다.
- 모든 연령대와 교육 수준에서 다양한 재진입 지점을 갖춘 유연한 학습 경로를 구축하고, 특히 학교 밖 아동,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대안 교육을 인정, 인증 및 검증하며, 마이크로 자격증(micro-credentials)을 통해 온라인 및 혼합형 학습으로 취득한 자격을 인정하고, 평생학습 관점에서 새로운 기술의 습득(re-skill) 및 숙련도 향상(up-skill) 기회를 제공한다.
-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 수준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을 촉진하고 교육 프로그램에서 현지 지식 및 토착 지식을 활용한다.

### 2.4 고도로 숙련된 교사세대의 육성

- 교사가 혁신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수기술, 디지털 리터러시 및 디지털 및 혼합 생태계에서 가르칠 수 있는 역량과 교실 내 다양성을 관리하고 학습자의 사회 정서적 안녕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수기준 및 역량 프레임워크를 검토·개혁한다.
- 예비 및 현직 교사교육에 투자하고, 교사교육이 교육 표준 및 역량 프레임워크에 대해 최신 상태를 유지하며 효과적인 교수·학습 접근방식에 대한 증거에 부응하도록 보장한다.
- 가장 유망한 후보자를 유치하기 위해 교직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교사 선발과정을 개선하며, 성과기반 경력구조를 개발한다.

- 교사들에게 디지털 플랫폼을 포함한 강력한 지원 구조와 동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고, 협력 학습을 촉진하며, 전문적인 학습 커뮤니티를 통해 실무관행을 개선한다.
-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건강, 안녕 및 노동권을 보장한다.

## 2.5 디지털 전환

- 학교를 연결하고 특히 외딴 지역과 작은 섬 개발도상국에서 디지털 플랫폼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한다.
- 가장 불우한 학습자들을 위해 학교와 가정에서 연결 및 장치에 대한 양질의 무료 접근성을 제공한다.
- 온라인 교육 및 개방형 교육 자원에 대한 자유롭고 포용적이며 공평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파트너십을 개발한다.
- 교육부문 계획 및 보다 광범위한 국가 ICT 정책에 부합하는 교육 기술 통합을 위한 일관성 있고 비용이 드는 정책을 개발한다.
- 대면 학습을 지원하고 교육 제공의 타당성, 회복력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을 활용한다. 여기에는 모든 학습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양질의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저기술 및 무기술 솔루션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도 포함된다.
- 디지털 기술의 안전하고 보안되는 사용과 개인정보의 보호를 통해 교육이 모든 학습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재로 남도록 학습 기술에 관한 규정과 안전장치를 개발한다.

## 2.6 계획, 거버넌스 및 모니터링

- 학교와 가정 환경 간의 학습 연속성은 물론 미래의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체계적인 위험 분석을 수행하고 계획을 수립한다.
- 학교에서 교수 및 학습과 그 밖의 핵심 부문 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지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공립 및 사립 교육기관에 대한 강력한 교육의 질 기준을 설정하고 책무성 구조를 개선한다.
- 특히 긴급상황에서 지역 상황에 맞는 대응을 개발하고 실행하며 학교의 품질과 회복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수준에 의사결정 및 계획 권한을 부여하고 역량을 제고한다.
- 학교 관리 및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 수준에서 자율성, 유연성, 리더십 및 계획을 강화하고 학교지도자들을 훈련한다.
- 학교 안팎에서 포용적이고 보호적인 학습환경을 보장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후변화 및 기타 인도주의적 재난을 포함한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 교육 및 그 밖의 관련 부처, 지방 정부, 지역사회 및 학부모 간의 부문 간 협력을 제고한다.

- 다양한 품질 데이터를 교육관리정보시스템, 가구설문조사 및 학습평가에서 얻어진 개선된 세분화와 통합하는 동시에 적절한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거버넌스를 갖춘 기술, 빅 데이터 및 AI를 활용함으로써 강화된 데이터 시스템 및 그 활용을 통해 모니터링 및 평가를 개선한다.

## 2.7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및 개선

- 국가 예산에서 공교육 재정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보호하고 교육 재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국가상황에 따라 최소기준인 국내총생산(GDP)의 4-6% 및/또는 전체 공공지출의 15~20%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 국가, 지역 및 글로벌 수준에서 혁신적인 자금조달 메커니즘을 모색하는 것을 포함하여 코로나19에서 회복하고 SDG4를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투자를 보장한다.
- 경제위기가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학습자를 위한 중요한 사회적 지출을 보호하고 확대할 것을 약속한다.
- 인천에서 한 약속을 이행함에 있어 교육의 질과 형평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지출의 효율성을 높인다.
- 교육지출이 불평등을 해소하고 아동에 대한 강화된 사회적 보호제도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형평성기반의 빈곤층을 위한 예산배정을 확립한다.
- 정부가 공교육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자금조달을 위한 주요 의무자이기 때문에, 교육을 위한 국내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과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 파트너와의 파트너십을 촉진한다.

### ❖ 교육 전환: 인류 공동의 미래를 위한 긴급한 정치적 과제

#### 가. 사무총장 교육전환 비전성명문

교육은 기본적 인권이다. 교육은 오랫동안 전 세계인의 마음 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해 왔으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역사를 통틀어 교육은 개인의 존엄성 및 권한 부여의 원천이자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심화되는 불평등에 직면하고 21세기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위기의 영향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타나며 때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클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 수십년 동안 이를 체감하게 될 것이다.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구상한 대로 세계를 전환시키려면 국제사회가 확신과 상상력을 가지고 연대 속에서 결단력 있게 대응해야 한다. 우리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준비과정을 통해 준비한 이 비전선언문을 집단행동을 위한 선언문으로 제시함으로써 회원국과 전 세계 시민들이 전환을 향한 우리의 공동 노력을 지지하고 다가오는 미래정상회의에 기여하게 하고자 한다.

#### 1.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육 위기

교육은 발전의 원동력이지만, 오늘날 많은 경우에서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교육 위기는 전 세계적인 도전과제이지만 비상 상황과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을 보장하겠다는 국제 사회의 약속 이후 약 3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아동의 절반에 달하는 수가 아직도 취학 전 교육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빈곤국 아동 중 약 최대 70%가 10세가 되도록 최소 수준의 문해력을 성취하지 못한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서 거의 절반의 학생이 중등교육을 마치지 못하며, 성인 7억명이 비문해자이고 그중 대다수가 여성이다. 선진국에서는 소득, 인종, 성별과 관련된 교육격차가 특권을 강화하고 빈곤의 고착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공통된 점은 이미 소외되거나 불우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 특히 여성청소년과 장애인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바로 교육 시스템에서 제도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교육의 위기는 형평성과 평등의 문제를 넘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진행되고 있다. 거듭된 연구와 여론조사는 항상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 교육 시스템이 더 이상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소년과 성인 모두 공통적으로 교육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성공에 필요한 지식, 경험, 능력,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현재의 학습과정은 문제해결, 비판적 사고, 공감과 같은 능력을 충분히 다루지 않는다. 고용주들은 직무능력 불일치(skills mismatch)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성인들은 적정 비용으로 이용가능한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일자리 전환 교육(re-skilling)의 기회를 거의 찾기 힘들다. 교사들은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하며 과소평가되고 저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고, 시대에 뒤떨어진 역할, 방법 및 교육 도구로 인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부모와 가족들은 교육과 자녀에 쏟아 붓는 투자에 대한 가치나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비난한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이러한 위기를 악화시키는 동시에 조명하는 기회가 되었다. 코로나 19는 심각한 학습 손실과 광범위한 교육예산 삭감을 초래하여 2030년까지 양질의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4의 핵심 목표 달성에 큰 타격을 주었다. 오늘날 수백만 명의 학습자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는 기후 후 혼란, 빈곤, 불평등 증가, 문화적·정치적 양극화, 신뢰 부족, 갈등 등 인류 공동의 미래를 위협하는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 모든 것은 바뀔 수 있고,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제일 먼저 우리는 코로나 19로 발생한 학습손실, 특히 소외계층의 학습손실 회복을 위해 신속한 선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실행하면서 과거의 교육 모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교육 시스템을 재정립하고 교육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우리는 학습을 통해 개인과 사회가 현재를 다시 만들어가고 보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을 갖춘 평화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 2. 21세기 교육의 목적 및 내용 재고

교육의 위기에 직면하여 우리는 교육의 목적과 교육과정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 에디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 사흘레워크(Sahle-Work Zewde) 대통령이 이끄는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회가 작성한 중요한 보고서가 확실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 보고서는 평생 동안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의 노력이자 공동체로서 교육을 강화한다는 두 가지 원칙에 근거한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회원국과 청년의 참여, TES 중점주제별 자문회의 등으로부터 정보와 의견을 수렴하여 이러한 원칙이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정의했다.

진정한 전환을 가져오는 교육은 지역사회, 가족, 부모와 아동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요구와 문화 및 역량에 대응해야 한다. 또한 모든 학

습자가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가족, 지역사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평생 동안의 전인적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환적 교육은 다음 4가지 핵심 영역에서 학습자를 지원해야 한다.

### 학습하기 위해 배우기:

이를 위해서 모든 학습자는 읽고 쓰는 능력과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의미를 파악, 이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모든 학습자의 수리, 디지털, 과학적 능력의 습득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학습자에게 호기심, 창의성, 비판적 사고 능력을 심어주고 사회적, 정서적 기술, 공감능력과 친절을 함양시킨다.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면 그러한 학습이 인생의 가장 이른 단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유아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은 정부와 가정에 세대 간 불평등을 예방하고 역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를 제공하며, 교육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 중 하나이다.

### 더불어 살기 위해 배우기:

긴장이 고조되고 신뢰가 무너지고 실존적 환경 위기가 발생하는 세상에서 교육은 우리 모두가 함께 더 잘 살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자연과도 더 잘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사회적 결속력이 크게 약화되고 가정 내, 지역사회 간, 그리고 국경을 넘는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진실, 사실, 민주적 제도에 대한 공격은 온라인과 실생활에서 더 널리 퍼지고 있다. 교육은 학습자가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 국가 및 세계에서 활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되도록 준비시킬 수 있으며, 인권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 다양성 존중 및 글로벌 연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평화의 문화를 정착시킬 수 씨앗을 뿌릴 수 있다.

젊은 세대는 또한 인류가 전 지구적 위기인 기후변화, 환경오염, 생물다양성이라는 세 가지 형태의 실존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정상회의 과정 내내 그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하며 해결에 동참하기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세계 각국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 과제를 실행해 나감에 따라, 이제는 각 국가가 교육과정과 교수법(pedagogy)을 통해 변화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인식, 가치, 태도 및 기술을 어떻게 학습자에게 함양시킬 수 있을지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성평등 및 여성과 소녀의 권리 추구는 여전히 국제사회의 중요한 목표이며, 교육은 이러한 노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교육 시스템은 소녀들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인 형평성 있고 포용적이며 비차별적인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막대한 고통을 야기하고 있는

여아 대상 중등교육 금지와 같은 모든 법적 장벽과 기타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모든 학습자를 대상으로 성별에 기반한 편견, 규범 또는 고정 관념을 없애고 학습자가 여성에 대한 폭력과 맞서 싸우고 성·재생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지식과 권한을 부여하는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연령에 맞게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 **활동하기 위해 배우기:**

직업의 세계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기술 발전으로 직업이 새롭게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녹색, 디지털, 돌봄 경제로의 전환은 경제 활동을 사회적·환경적 결과와 일치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다. 교육은 근로자가 이러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열쇠이다. 따라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집중적인 직업훈련(focus skilling), 리스킬링(reskilling), 및 업스킬링(upskilling)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시스템이 평생 학습의 개념을 수용해야 하며, 보다 유연한 경로와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학습자가 평생 동안 여러 차례 교육 시스템에 재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공식 경로, 캐치업(catch-up) 프로그램, 연결(bridging) 프로그램, 가속 학습, 디지털 플랫폼 사용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이 제공되어야 한다. 일하기 위한 학습을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금융 스킬, 신기술 및 STEM 스킬을 포함한 완전히 새로운 기술 세트 습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전환된 교육 시스템은 유연한 경력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 창의성, 기업가 정신을 촉진해야 하며, 정규 교육을 넘어 평생 동안 기술, 업무 경험 및 지식을 인정하는 자격증 제도도 필요하다.

### **존재하기 위해 배우기:**

이는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고, 그 삶을 향유하며, 충만하게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가치와 역량을 심어주는 것이 교육의 가장 심오한 목적임을 함축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이것은 배우고, 함께 살고, 일하기 위한 학습의 부산물이다. 학습을 위해서는 모든 학생의 창의성과 혁신을 위한 잠재력을 개발해야 한다. 예술을 통해 즐기고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 역사와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신체 활동, 게임, 스포츠에 참여하며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성향 등은 우연히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개인과 사회적 정체성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이 단순히 교육과정에 추가되는 것이 아닌 21세기 교육의 필수 구성요소가 되도록 교육과정과 사고 방식의 진화가 필요하다.

### 3. 더 높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 전환

이러한 더 높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영역에서 교육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 모든 학습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학습 환경 보장

미래의 학교는 공식, 비공식, 물리적 또는 가상이든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더욱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건강하고 고무적인 학습 장소로 발전해야 한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권이 축소된 오늘날의 상황은 그러한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소외 위기의 가장 첨예한 끝에는 난민과 비상사태, 갈등 및 장기화된 위기로 인해 실향민이 된 사람들이 있다. 다른 상황에서는 거주지, 가족의 소득이나 지위로 인해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은 또한 성별, 장애, 민족, 종교, 언어,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 및 법적 지위를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다. 폭력, 괴롭힘, 따돌림은 모두 너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문화적·인간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법을 배우는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건설하려는 우리의 집단적 노력을 약화시킨다.

법률과 정책은 권리 보호, 포용 촉진, 모든 형태의 폭력, 낙인, 차별, 소외의 예방 및 해결에 필수적이다. 학교 상담 및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습자의 영양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포용성이 반드시 교육과정과 학습 자료에 반영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평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유해한 고정관념, 규범, 태도, 관행에 맞서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오늘날 위기와 갈등으로부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위기를 예방, 대비, 대응,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전환하려면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 교사가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

교사는 모든 훌륭한 교육 시스템의 중추이다. 그러나 미래의 교육 시스템에서 교사에게 맡겨진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교사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방식과 교사가 자신의 역할에 접근하고 책임을 수행하는 방식 모두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교사는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는 데 있어 지식 생산자, 촉진자,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수동적인 것에서 능동적인 것으로, 수직적이고 단일방향에서 협력적인 것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훈련받고 권한을 가져야 한다. 교사는 경험, 탐구, 호기심을 바탕으로 학습을 촉진하고, 문제 해결 역량, 만족감, 학습법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을 촉발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영역에서 조치가 필요하다.

교사의 역량, 주체성, 자율성은 확대되어야 하며, 교사가 교과과정을 설계, 해석, 관리하고 내용 및 교수법을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여기에는 하이테크에서 로우테크, 그리고 비기술적 맥락에 이르기까지 상황에 맞는 학습 옵션, 교수법과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 평가 전략 및 예상되는 학습 결과를 실행하고 주류로 편입시키는 것이

포함된다. 전 세계적인 교사 부족 문제는 젊은 세대가 교직을 선호하도록 만드는 등 정면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와 유사한 수준의 자격을 요구하는 직업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과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포함하여 좋은 근무 조건과 교사의 지위 향상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 채용과 승진 방식도 여성, 취약집단 및 소외집단을 위한 기회를 보장하면서 보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통합 교사 경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교수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는 책무성을 뒷받침하고 효과적인 학습 결과와 교육 투자의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시스템은 교과 과정 및 교수법 혁신을 포함하여 교육 정책 수립에 교사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교사의 단결권은 기본적인 권리다.

### 공교육을 위한 디지털 혁명 활용

제대로 활용한다면 디지털 혁명은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가르침과 배움의 방식 전환에 있어 가장 유용한 도구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학습 성과를 저해할 수 있다. 이는 팬데믹 상황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났다.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에서는 학습자와 교사의 대다수가 디지털 연결 또는 자원에 접근할 수 없었다.

이 문제에 대처하려면 연결성, 역량, 콘텐츠라는 디지털 학습의 세 가지 '열쇠'를 풀어야 한다. 연결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사, 학생, 학교 및 기타 교육 환경이 광대역 인터넷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결국 기존의 전기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역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 및 기타 권한 부여 목적을 위한 보편적인 디지털 리터러시를 보장해야 하며, 특히 교사가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콘텐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개방형 공공 디지털 학습 플랫폼과 콘텐츠가 필요하고 디지털 학습 자원이 글로벌 공공재이자 공동재로 취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각 국가는 완전한 교육 연결성을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이들 국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가(Giga) 이니셔티브의 지속적인 확대를 뒷받침해야 한다. 또한 모든 행위자들이 포괄적인 디지털 학습 플랫폼과 콘텐츠를 만들고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멀티파트너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고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기존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 이니셔티브는 고품질 공공 디지털 학습 콘텐츠의 자금 조달, 설계, 제작 및 무료 배포에 대한 솔루션을 찾고 추진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공동 의제"에 대한 보고서에서 제안한 글로벌 디지털 콤팩트(Global Digital Compact) 실행을 보다 광범위하게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여요소이다.

### 교육에 대한 더 많은, 더 공평한, 더 효율적인 투자

양질의 교육은 국가가 자국의 미래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사람과 우리의 공동 미래에 대한 투자로, 도덕적, 정치적, 경제적 의무이다. 간단히 말해서 교육 자금을 조달하지 않는 비용이 교육 자금 조달 비용보다 훨씬 더 높다.

교육 지출에서 나타나는 세계적인 불평등은 특히 충격적이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학령 인구 1인당 연간 평균 단 50달러를 지출하는 데 비해 고소득 국가에서는 약 8000달러를 지출한다. 이러한 격차는 교육 투자의 혜택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거의 미치지 못하는 국가 내 교육 불평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교육을 바라보는 방식을 재구성하고 세 가지 중요한 방향으로 행동해야 한다.

첫째, 우리는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무부와 정부가 교육을 바라보고 다루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 지출은 단순한 소비 지출이 아니라 중대한 국가적 투자이다. 이러한 변화는 GDP 대비 교육 예산 비율과 정부가 교육에 투자하는 총 공공 지출의 증가를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국가와 지역의 상황에 따라 수립된 야심 찬 국가적 기준을 목표로 학생 1인당 그리고 학령인구당 실질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조세 제도의 점진적인 개편, GDP 대비 세금 비중 확대, 사회 보장 기준 설정이 필요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 정부가 교육 지출을 늘리면 국제 파트너들은 훨씬 더 큰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의 공동 의제" 보고서에 요약된 바와 같이, 개도국이 인적자원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인하경쟁(race to the bottom) 전략을 피하고, 불법적인 금융 흐름에 대응하고, 부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글로벌 딜(New Global Deal)이 필요하다. 공여국은 또한 ODA의 15~20%를 교육에 할당하고, 기존 교육 기금에 투자하고, 그러한 기금이 가장 취약한 인구와 국가에 전달되도록 보장하는 등 개발 협력에서 차지하는 교육의 비중을 재설정함으로써 현재의 추세를 역전시킬 수 있다. 국제금융기관은 정책과 실행을 통해 교사 채용을 포함한 정부의 교육 지출 확대 계획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교육 채무 스왑과 혁신적인 자금 조달 방안 모색 등을 통해 현재 교육 포트폴리오를 두 배로 늘리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제교육금융기구(IFFE)의 설립은 환영할 만한 진전이다. IFFE는 완전한 자금 조달 및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력 증진을 통해 앞으로 몇 년 동안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민간 자선단체도 이 분야의 초기 진전 징후를 기반으로 교육 전환에 대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다.

둘째, 교육에 더 공평하게 투자해야 한다. 우리는 교육 투자가 그 동안 양질의 교육에서 배제되어 온 사람들에게 확실히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교육 투자는 농촌, 원거리 지역 및 비상 사태에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가 적절한 기반시설, 우수한 교사 및 학습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리적 측면에서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교육투자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빈곤층 가정에서도 양질의 공교육이 제공하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과 소녀, 소수민족, 장애인, 원주민, 장기화된 위기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러한 기회에 대한 접근에서 차별받는 모든 집단과 부문에 대해서도 공평해야 한다. 우리는 교육 투자가 모든 사람과 모든 지역사회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에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우리는 교육 투자가 학습자의 삶과 사회의 미래를 변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증가한 자원이 의도한 대상에 반드시 도

달하고 교육 정책에 설정된 기대 학습 결과가 산출되도록 하기 위해 교육 투자의 영향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공공 재정 관리 시스템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전환적 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는 필수적이다.

#### 4. 우리 모두의 집단적 리더십: 약속 이행

교육 전환을 위해서는 비전을 가진 정치지도자, 학부모, 학생, 교사 및 일반 대중의 집단적 헌신과 행동이 필요하다.

국가책임서약서(National Statement of Commitment)를 등록한 국가들은 그러한 약속을 교육 전환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으로 만들어, 지방(local), 지역(regional), 국가 수준의 모든 교육 부문 지도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이것은 비전, 약속, 자원, 행동, 결과 사이의 책임 범위가 분명한 새로운 교육 생태계를 필요로 하는 정부 전체 노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삶이 완전히 변모되는 것을 그 결과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하면 사회 전체의 접근 방식도 새롭게 바뀌어야 하며, 전환적 교육이 요구된다. 젊은이들은 그들의 목소리, 경험, 지식 및 선택의지를 활용하여 이러한 노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국가적 전환 노력과 함께 가며 안내하는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메커니즘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학생, 학부모, 교사, 노조, 고용주, 학계 및 시민 사회는 변화에 열린 태도를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One Million Conversations’, ‘Youth Flagship’ 이니셔티브 및 정상회의에서 출범한 일련의 연합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함께 일하며 그러한 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정상회의는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고 교육의 전환을 위한 대중 운동의 씨앗을 뿌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교육 전환은 전 세계의 학습자와 교사가 주도하고 시민 사회에서 영감을 받아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보다 광범위한 운동과 연계되어 모든 수준에서 육성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엔의 시스템은 이 여정에서 정부와 지역사회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유엔 상주조정관과 유네스코, 유니세프, 세계은행을 포함한 유엔 국가팀의 주요 구성원들은 우리의 집단적 기여를 변화시키기 위해 EU 및 글로벌 기금과 같은 다른 국제 교육 파트너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체 제안을 재검토하기 시작할 수 있다.

유네스코와 시에라리온이 공동의장을 맡은 SDG4 고위급 운영위원회는 앞으로 글로벌, 지역 및 국가 차원의 협력 강화, 교육 파트너 간의 행동 조정 및 세 가지 기능 영역에 걸친 지원 제공 등 정상회의의 효과적인 후속 조치가 실행되도록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유네스코와 파트너는 글로벌 교육 회의 및 국가 SDG4 기준 설정 프로세스를 포함한 SDG4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현재의 조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면서 교육 전환 및 재정 지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유엔 미래정상회의는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정상회의(Transforming Education Summit)는 공동의 노력이었다. 나는 전환의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기 위해 회원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현장에서, 교실에서, 그리고 교사와 학습자 모두의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함께 노력해야 한다.

## 제7차 세계성인교육회의 (CONFINTEA VII) 결과문서: 마라케시 실행계획

### ❖ 성인학습·교육의 변혁적 힘을 활용하기 위한 제7차 세계성인교육회의 마라케시 실행계획

#### 서문

---

1. 우리는 142개 유네스코 회원국, 시민사회단체(CSOs), 사회적 파트너, 유엔 산하기구, 정부간 기구, 청소년 및 민간부문의 대표로서, 2022년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모로코 왕국의 마라케시에서 대면 및 비대면으로 개최된 제7차 세계성인교육회의(CONFINTEA VII)에 참가하기 위해 모였다. 이 회의는 성인학습·교육(adult learning and education, ALE)을 포함하여 전 세계 교육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팬데믹 기간 동안 열렸다.
2. 우리는 2009년의 제6차 세계성인교육회의(CONFINTEA VI) 이후 성인학습·교육에서나 타난 중요한 문제점과 진척 상황을 검토하고, 앞으로 12년—2030년과 그 이후—동안 성인학습·교육의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모였다.
3. 우리는 제6차 세계성인교육회의 성과를 기억한다. 특히 2009년 벨렘 실행계획(Belém Framework for Action, BFA)에서 성인학습과 교육 영역을 총체적인 교육권(right to education)의 필수적인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한편, 그 발전과정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방식으로서의 다섯 영역, 즉 정책, 거버넌스, 재정, 참여/포용성/형평성, 그리고 교육의 질 등으로 포착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또한 2009년 BFA 규약에 따라 이 영역의 발전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유네스코의 『세계 성인학습 및 교육 보고서』(Global Report on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GRALE)의 가치를 중시한다.

4. GRALE에서 산출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우리는 2009년 이후 성인학습·교육과 평생학습 증진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을 되짚어 본다. 이러한 노력으로는 1)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대한 국제사회의 헌신, 2) SDG 4의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과 같은 방식으로 평생학습을 증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확대, 3) 국제미래교육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n the Futures of Education) 보고서 발간, 4) 다섯 차례의 GRALE 보고서를 통한 성인학습·교육의 글로벌 모니터링 개선, 5) 『세계 교육 현황 보고서』(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 ) 발간, 6) 평생학습 체제 내에서 세계문해연맹(Global Alliance for Literacy, GAL) 등 조직들이 추진하는 사업, 그리고 7) 성인학습·교육을 글로벌 교육 의제 및 체계 안에 통합하기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마라케시 실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권리에 기반한 접근방식이 지침이 되어야 한다.
  
5. 우리는 성인학습·교육 분야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영향과 그 상반된 영향력에 주목한다. 팬데믹으로 인해 정부와 지역사회에서는 이러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 기술, 역량을 습득하기 위한 전략’과 ‘학습정책’의 개발 및 시행의 필요성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이 불러일으킨 사회 및 직업 세계의 변화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기술 습득(reskilling)과 직무 숙련도 향상(upskilling)에 대한 전략 수립에 초점을 두고 있다.
  
6. 우리는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를 떠올리며,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평생학습이 17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며, 평생학습의 중추가 되는 성인학습·교육이 SDGs를 달성하는 데 관건이 되리라는 점을 인식한다. 우리는 특히 회원국들이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평생학습의 기회를 증진”하는 데 전념해 온 SDG 4 조항의 정신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2021년 5월에 채택되어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지속가능발전 교육 베를린 선언’을 상기하며, 베를린 선언의 16가지 권고사항을 성인 학습자들이 달성하도록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또한 국제미래교육위원회의 보고서(UNESCO, 2021)인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 계약』(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이 평생 동안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교육의 변혁적인 힘을 강조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7. 우리는 성 규범이 학습자가 교육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성인학습·교육을 통해 “성평등과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미래교육위원회의 요구를 강력히 지지한다. 젠더 변혁적인(gender-transformative) 성인학습·교육은 교육 행위자와 건강, 보호, 정의 등의 부문을 아우르면서 종합적이고 총체적이며 세대 통합적이어야 한다.
8. 우리는 201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성인학습·교육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on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RALE)를 지지한다. 이 권고는 성인학습·교육에 대한 정의<sup>1</sup>와 더불어 문해 및 기초 역량, 계속교육 및 직업 역량, 교양/대중/지역 사회 교육 및 시민의식 역량을 학습의 3대 핵심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9. 우리는 성인학습·교육이 평생학습의 핵심 요소임<sup>2</sup>을 재확인하면서, 성인학습·교육에 관한 정책과 실천들이 광범위한 연령, 교육 수준, 학습 공간, 양식에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또한 평생학습이 개인, 가족, 조직, 직장, 이웃, 도시, 지역 등 다양한 수준의 학습 사회의 주요 원동력이라는 점을 인식한다.
10. 우리는 성인학습·교육을 포함하여 교육이 기본적 인권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확인한다. 이는 곧 국제미래교육위원회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교육을 공공의 노력이자 공동재(common good)로서 이해하고 규정한다는 매우 중요한 약속을 담고 있다.
11. 우리는 정부와 비정부 이해관계자 등을 포함한 국제 성인학습·교육 공동체의 지속적이고 풍부하며 다양한 기여를 인정한다. 그들은 지역 및 소지역 준비 회의와 CONFINTEA VII를 조직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회의 결과를 담은 문서-벨렘 실행계획, 수원-오산 CONFINTEA VI 중간회의 보고서, GRALE, RALE, 유네스코의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보고서 등—들은 본 실행계획의 기반을 제공했다.
12. 광신적 행위와 폭력적 극단주의, 과학에 대한 불신,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의 증가로 사회적 위기를 맞은 이 시점에, 우리는 성인학습·교육이 사회적 응집력 강화, 사회·정서적 역량 개발 증진, 평화 보장, 민주주의 강화, 문화적 이해 증진, 모든 유형의 차별 철폐, 평화로운 공존과 능동적인 세계시민의식 제고 등을 위한 강력한 정책적 대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13. 우리는 마라케시 실행계획의 권고사항을 2022년 9월에 열릴 ‘유엔 교육 정상회의’(Transforming Education Summit)의 핵심적 사항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우리는 본 실행계획이 정상회의의 참조 문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 원칙 및 우선순위 영역

14.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성인학습·교육 증진: 벨렘 실행계획이 제시한 우선순위 영역들이 여전히 유효함을 인정하면서, SDG4는 성인학습·교육을 평생학습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게 해줄 특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과 유네스코 헌장에 있는 평화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데 기여한다.
15. 새로운 사회계약 수립: 성인학습·교육은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보고서의 결과와 제 안에서 영감을 받아 인권과 민주주의 사회, 윤리 원칙, 집단 지성의 동원, 그리고 학제(學際)적 지식에 기반한 열린 대화를 바탕으로 인본주의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16. 여성 문해 등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주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가들은 디지털 문해를 포함한 적절한 문해력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또한 상당한 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7억 7천만 명 이상의 성인이 기초 문해력이 부족한 상태이며, 그 중 5분의 3이 여성이다(유네스코통계원). 문해가 개인, 가족, 지역사회, 사회 및 지구 전체에 미치는 이점은 널리 입증된 사실이며, 성인 문해는 충분한 정책적 관심과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17. 기후행동을 위한 성인학습·교육의 잠재력 발굴: 기후변화는 인류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에게도 커다란 위협이다. 기후변화는 우리에게 현재의 생산과 소비 패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산업을 발명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지구를 돌보는 것이 전 세계의 필수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한다. 따라서 기후 교육은 평생학습 시스템의 주류가 되어야 한다. 성인학습·교육도 녹색 전환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과 성인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주제를 이해하고 그 인식 수준을 높이며,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그리고 변화를 위한 회복력과 능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힘을 갖추 수 있다. 성인학습·교육은 성인이나 노인이 어린이의 본보기가 되고, 지역과 국가 및 글로벌 수준에서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해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역사회 학습과 시민교육은 농촌 개발을 포함한 지속가능 발전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여줄 핵심 요소다. 나아가 성인학습·교육 기관은 교육과정과 교육시설 및 관리 방식을 녹색화함으로써 사회의 녹색 전환 모델이 될 수 있다.

18. 노인을 포함한 모든 학습자에게 디지털 환경에서의 학습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 촉진: 기술은 성인이 학습하고 교육 받는 방식뿐만 아니라 그에 필요한 역량과 능력에도 중요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기술은 개인 학습의 강력한 촉진제이자 촉매제가 되었다. 기술은 교육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사회적 또는 집단적 학습을 더 어렵게 만들거나 기존의 사회 격차를 더 벌리고 새로운 격차를 만드는 등 또 다른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모든 학습자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학습에 동등하게 접근하는 것은 이러한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이는 성인이 적극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온라인 환경을 탐색할 때 잘못된 정보 및 허위 정보에 대응하게 해줄 비판적 사고와 의사 소통 및 공감 능력, 그리고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을 높인다. 효과적인 전략과 정책 및 도구를 구축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며, 접근성을 높이고, 온라인 상의 권력 관계를 해결하며, 기술 남용을 방지하는 것은 모두 성인학습·교육의 변혁적이고 해방적인 힘을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효과적인 디지털 교육을 위해서는 대면, 원격, 혼합 형태의 새로운 교수 및 학습 모델이 필요하다.
19. 일의 미래를 위한 성인들의 대비 마련: 인구 변동, 4차 산업혁명, 세계화, 기후변화 등은 경제와 노동시장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의 성격과 고용 구조, 내용, 일에 필요한 역량과 기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교육에서 일로’(education-to-work)’라는 선형적 이행은 수십 년 동안 지배적인 패턴이었지만, 성인들의 직업 생활의 경로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의 책임감을 갖고 수행해야 하는 성인학습·교육의 과제는 전 생애에 걸쳐 관련 지식과 역량 및 기술을 유연한 방식으로 공평하게 습득하게 만드는 것으로, 여기에는 직업 지도뿐만 아니라 취업, 양질의 일자리, 경력 개발과 창업 활동에 대한 학습 지원 등이 포함된다. 현재의 인구 추세에 따르면 전 세계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계속 늘어나면서 고령화 세상의 출현이 가속화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전체 인구의 상당수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성인학습·교육의 성격도 조정되어야 한다.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의미 있게 사회에 이바지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행복과 향유를 누리는 등 직업 후 활동(post-work activities)을 준비하도록 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일어나는 경제적 변화에 따라 이미 노동시장에 있는 성인들도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직무 숙련도를 제고하도록 긴급한 요구를 받고 있다.
20. 평생학습 문화 조성: 코로나19 팬데믹과 이로 인해 심화된 불평등이 야기한 문제들과 더불어, 기후 위기부터 기술 및 인구 변화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의 해결이 평생학습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양식(형식, 비형식, 무형식)의

성인학습·교육, 모든 부문과 분야, 대면과 온라인 및 혼합 학습 등을 포함한 다양한 학습 사이트, 그리고 다양한 학습자 집단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직업 세계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과 공동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공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청년과 노인을 위한 양질의 포용적인 교육과 평생학습이 이루어지는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변혁적 성인학습·교육을 위한 권고

---

### 프레임워크 및 거버넌스 체계 수립

21.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 계약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유네스코가 평생학습에 관한 기존의 인권 프레임워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 회의와 정부간 대화를 시작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인학습·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평생학습에 대한 권리의 비전을 실현시킬 가장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여 각 회원국에 맞는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22. 우리는 특정 정부 부처, 시민사회단체, 청소년, 민간부문, 대학, 성인학습·교육 제공자 등의 모든 관련 핵심 행위자들과 더불어, 성인학습·교육의 거버넌스를 지원하는 다부문적 플랫폼의 가치를 인정한다. 또한 우리는 많은 국가에서 특히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의 관점에서 거버넌스에 기여하는 노동자와 고용자 간 대화 및 그들의 조직 구조 간 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성인학습·교육 시스템 재설계

23. 복잡한 학습 생태계의 출현으로 다양한 성인학습·교육 제공자들도 늘어났음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성인학습·교육을 위한 조직을 지원하고, 강화된 공교육 조항 내에서 공공선이자 공동선인 성인학습·교육을 규제, 장려, 촉진, 조정, 모니터링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규정을 수립하고 재정적·인적 자원을 배분하는 일에 정부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24. 우리는 학습 프로그램을 계획, 설계, 실행하기 위한, 그리고 지역학습센터 등과 같은 훈련 및 학습 이니셔티브들이 자격을 갖춘 성인 교육자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공동) 자금 제공을 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으로서 성인학습·교육을 지역 수준에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우리는 직업기술교육훈련(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기관, 고등교육기관, 도서관, 박물관, 일터, 공공 공간, 문화예술기관, 스포츠와 오락, 동료 집단, 가족 등 학습 공간의 다양성을 인지한다. 이것

은 현지 수준에서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을 증진시키는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 예컨대 학습 도시 개발을 촉진하고 학습자와 지역사회 단체, 기관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 25. 나아가 여러 유형의 일자리 내에서, 그리고 일자리 간에 유연한 학습 경로를 만들겠다는 약속에 따라 우리는 모든 인구 집단,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취약계층을 개방적이고 유연한 학습 생태계로 끌어들이기 위해 선행학습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고 관련이 있는 경우 비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의 검증과 인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이유로 모든 교육과 평생학습 과정에 토착 지역사회를 포함시키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유연한 학습 경로 구축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수학 수준 및 고용 부문 간에 이동성을 허용하고, 교육의 하위 부문과 노동시장 간의 연계를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재능과 관심에 따라 학습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핵심적인 부분이다.

#### 학습의 질 보장

- 26. 우리는 자원 봉사 교사와 그 밖의 성인학습·교육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포함한 교사와 교육자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한다. 우리는 대학 및 연구 기관들과 협력하여 예비교사와 현직교사의 훈련 및 계속 훈련을 제공하고, 그리고 급여 및 지위와 전문성 개발 등 교육자의 근무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성인 교육자의 직무 숙련도를 향상시키고 전문화하며 특화하는 정책과 전략을 시행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더 나아가 성인학습·교육의 역량 프레임워크가 교육자의 전문화와 자격 향상을 위한 전략적 도구임을 인식한다.
- 27. 성인학습·교육에서 대면 학습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건강과 웰빙을 위한 교육, 사회·정서적 역량, 횡단적 및 비판적 사고 능력, 디지털 역량 등과 같은 새로운 학습 분야들을 통합하는 적절하고 비차별적이며 성인 지적인 교육과정과 학습 자료들을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 28. 성인학습·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우리는 포용성과 질, 그리고 관련성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정책과 실천을 안내하는 연구와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성인학습·교육 프로그램 기획자, 교사, 참가자를 지원하기 위한 참여적 연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 자원 확대

- 29. 우리는 성인학습·교육을 위한 공적 자금과 자원 동원을 늘리고, 기존 예산의 감축을 방지할 것을 약속한다. 평생학습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성인학습·교육은 매우 다양한 이

해관계자와 여러 정부 부처, 고용주와 기타 민간 행위자, 지방정부, 학습자 등의 기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그러한 자금에는 정규 예산뿐만 아니라 혼합 재정과 취약·소외계층의 여성과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치 등이 포함된 기타 자원 및 메커니즘까지 포함돼야 한다. 우리는 적어도 GDP의 4-6% 및/또는 공공지출의 15-20%를 교육에 할당해야 한다는 국제기준을 점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각 국가별 상황에 맞게 성인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을 늘릴 것을 다짐한다.<sup>3</sup>

30. 성인학습·교육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자금 조달에 있어 국제협력의 역할을 고려하고, 17개 SDGs를 발전시키는 데 성인학습·교육이 잠재적으로 기여하는 바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교육 분야 개발 협력의 재정 지원을 위한 글로벌 메커니즘이 그 범위를 확대하여 성인학습·교육도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따라서 SDG4의 달성을 위해 한 약속에 따라, 우리는 기존의 글로벌 교육 기금, 특히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과 ‘교육은 미룰 수 없다’(Education Cannot Wait) 등과 같은 기금들이 파트너 국가에 제공하는 전략과 우선순위와 재정적 지원에 성인학습·교육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국민총생산(GNP)의 0.7%를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에 할당하겠다는 선진국들의 약속을 포함한 기존 ODA 관련 약속들을 이행함으로써 우리는 SDG4의 성인 문해 목표 및 기술 훈련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 격차를 줄여 나갈 것을 약속한다.<sup>4</sup>

#### 포용성 증진

31. 우리는 언어 다양성을 비롯한 다양성, 포용성, 접근성 및 형평성을 우리 노력의 중심에 두고 우선순위로 인식하면서, 소외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한 개인, 그리고 취약한 집단이나 지역사회에 성인학습·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을 약속한다. 형평성과 포용성의 목표들은 특히 토착민의 현실과 그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런 약속은 교육을 인권으로 재확인하는 것에서 비롯되며, 여기에는 역량 강화와 능동적인 세계시민의식을 강화하는 요인으로서의 참여의 권리가 포함된다.
32. 우리는 형식과 비형식 성인학습·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크게 늘릴 것을 약속하고, 각국이 다양한 학습자 집단의 참여를 위한 야심찬 목표를 설정할 것을 장려한다. 현재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취약계층과 성인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우리는 학습 기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며 학습자의 동기를 강화할 지원 활동이나 지침 체계를 촉진할 것을 약속한다.
33. 우리는 성인학습·교육을 위한 신뢰성 있고 타당하며 투명하고 접근가능한 성인지적 정

보시스템을 시행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참여와 학습 유지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더불어 정부와 비정부 기관, 학계, 시민사회 및 회원국들 간의 지식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재확인한다.

#### 학습 영역 확대

34. 우리는 문해를 성인학습·교육의 기초로서 연속적인 학습의 과정이자 역량 수준으로 보는 관점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그에 따른 관련 정책들을 시행하고 SDG4.6을 충족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을 상당 수준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여기에는 종합적이고 증거에 기반한 젠더변혁적(gender-transformative)이며 범부문적이고, 포용적인 문해 정책 및 이행 전략 수립이 포함된다.
35. 우리는 일터를 학습에 중요한 장소로 인식한다. 일터에서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근로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유지하며, 새로운 직무 요건에 적응하고, 개인의 발전과 성취를 이루는 데 중요하다. 또한 우리는 일터에서의 학습이 더욱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인식한다. 성인학습·교육은 일터에서의 효율성과 생산성 및 복지를 증진시키므로, 우리는 고용주들이 일터에서의 성인학습·교육에 투자할 것을 요청한다.
36.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후행동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증진하고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을 약속한다. 이를 통해 모든 청소년과 성인들은 환경 보호와 보존을 위해 자신들의 소비 패턴과 생활 방식을 바꾸고 민주적 토론과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시급한 지속가능발전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역량 있는 시민으로 행동할 수 있다.
37. 성인학습·교육에서 기술이 수행하는 강력한 역할을 인식하면서, 회원국들은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 및 디지털 문해와 기술 증진 방안을 확인하고, 지식에 대한 접근성(‘2019 공개교육자원에 관한 권고’ 및 ‘2021 오픈사이언스에 관한 권고’)과 학습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2021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권고’)의 틀을 규정하는 유네스코 규범 체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학습 동맹(learning alliances)의 새로운 방향을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이에 따라 성인학습·교육이 가장 필요한 소외된 사람들이나 지역사회에 다가갈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인 혼합 학습을 증진시키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공동선 및 공공선을 위해 교육자원을 공개하고 학습을 위한 기술 사용과 관련한 형평성, 포용성, 프라이버시, 윤리에 대한 우려를 인식할 것을 장려한다.

38.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고려하여, 우리는 개인의 웰빙과 공중 보건을 위한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국가 및 지역 수준의 성인학습·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측면들을 강화함으로써 성인학습·교육이 노년층을 포함한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활용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건강과 웰빙을 위한 학습은 SDG3와 SDG4를 연결하고, 다부문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성인학습·교육과 건강을 주류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39. 나아가 우리는 사회 및 개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능동적인 세계시민의식과 미디어·정보 문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우리는 학습자가 비판적으로 정보를 평가하고,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며, 행위 주체성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와 공공 토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주기 위한 성인 대상 시민교육 강화 이니셔티브들을 장려한다.
40. 우리는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를 영역간 횡단 역량(transversal skills; 세계경제포럼이 조사한 고용주의 92%가 인재를 찾을 때 중시한다고 응답한 직무 역량으로, 호기심, 문제해결능력, 관용, 자신감의 4가지로 구성됨\_역자 주) 개발을 위한 로드맵으로 사용할 것을 약속하며, 이 의제가 향후 수 년간 어떻게 성인학습·교육의 다면적인 목표에 응집력과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인식한다.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은 SDG4를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기제이며, 또한 빈곤 감소(SDG1), 건강과 웰빙(SDG3), 성평등(SDG5), 불평등 해소(SDG10), 유급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SDG8),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SDG11),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포용적이고 폭력이 없는 사회(SDG16), 그리고 기후행동(SDG13)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더 나아가 성인교육은 교육받을 권리의 일부이며 모든 인권의 실현에 매우 중요하다.

## 법 제정 및 모니터링을 위한 국제 협력

41. 본 실행계획에 포함된 약속들을 법제화하기 위해, 그리고 지식과 모범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동료 학습을 촉진시키고 제도적 역량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그리고 국제 연대의 정신으로 우리는 성인학습·교육의 향상과 평생학습 증진을 목표로 하는 국제 협력 이니셔티브들을 지원하고 여기에 참여할 것을 약속한다.
42. 우리는 SDG4 및 기타 SDGs들을 달성하는 데 있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음 회원국들에게 특히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

- 난민과 실향민 등을 위해, 그리고 역량 강화를 위해 성인학습·교육에 참여하는 데 있어 특정한 요구사항을 고려해야 하는 분쟁 피해 회원국;
  - 기후 변화로 더욱 악화된 구조적 취약성을 고려해야 하는 군소 도서 개발도상국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
  - 지속적인 교육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미래 발전을 위한 큰 기회를 갖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 그리고
  - 지속적으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
43. 우리는 유엔의 교육 주도 기관인 유네스코가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본 실행계획의 이행을 지원하면서, 그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것을 요청한다.
44. 우리는 SDG4의 전 세계적 구조 위에서 국제·권역·국가·국내 및 지역 수준의 관련 메커니즘을 통해 이 실행계획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 여기에는 『세계 성인학습 및 교육 보고서』(GRALE), 세계학습모니터링연맹(GAML), 세계문해연맹(GAL), 『세계 교육 현황 보고서』(GEMR), SDG4 교육 2030 고위급 운영위원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고위급 정치포럼, 비정부기구 등 국제 파트너의 작업, 그리고 국가 수준의 모니터링 등과 같은 메커니즘과 플랫폼이 포함된다. 우리는 모로코 왕국의 이니셔티브인 ‘아프리카평생학습원’의 설립을 환영한다.
45. 『세계 성인학습 및 교육 보고서』에 따라, 우리는 신뢰성 있고 타당하며 투명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와 성인지적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 둘은 실행계획의 법제화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정확하고 세분화된 데이터 생산, 그리고 회원국과 기타 핵심 성인학습·교육 기구들 간의 지식과 우수 사례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뒷받침한다.
46. 우리는 진전 상황을 취합할 2028년 제7차 세계성인교육회의(COFINTEA VII)의 중간평가나 글로벌 보고서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해 전 세계 수준에서 성인학습·교육의 진전 상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일을 유네스코가 유네스코평생학습원을 통해 조율할 것을 요청한다.
47. 우리는 또한 본 실행계획의 권고사항들을 효과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7차 세계성인교육회의 이후에 부처간 위원회를 설립하자는 모로

코 왕국의 제안을 환영한다.

48. 따라서 우리는 사회적 응집력이 있는, 성취감을 주는, 그리고 모두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성인학습·교육의 변혁적 힘을 활용하도록 해 줄 본 마라케시 실행계획을 채택한다.

- 
1. 성인학습·교육은 평생학습의 핵심 요소로, 모든 청소년과 성인이 자신의 사회와 직업 세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과 학습을 말한다. 또한 이것은 형식과 비형식 및 무형식의 학습 과정 전체를 나타내며, 이를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성인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조직 및 사회의 이익을 위해 삶과 일을 위한 역량을 개발하고 향상시킨다. 성인학습·교육은 역량을 습득·인식·교류·적용하는 지속적인 활동과 과정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청소년과 성인의 경계가 바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글에서 '성인'이라는 용어는 비록 그들이 법적 성숙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인학습·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다(Recommendation on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2015, 6쪽).
  2. 본질적으로 평생학습은 학습과 삶의 통합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소녀와 소년, 여성과 남성)이, 전 생애적 배경(가족, 학교, 지역사회, 일터 등)에서, 그리고 다양한 방식(형식, 비형식, 무형식)으로 행하는 학습 활동을 포괄한다. 따라서 이 활동은 광범위한 학습 필요와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 평생학습을 증진시키는 교육시스템은 모든 개인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하위 부문과 수준을 포함하는 총체적이고 범부문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한다(Education 2030 Framework for Action, UNESCO 2015, 30쪽, 각주 5).
  3. 이러한 약속은 2015년 5월 21일에 인천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에서 이미 만들어졌고, 2015년 11월 4일 파리에서 열린 고위급회의에서 184개 유네스코 회원국들에 의해 채택되었다.
  4. 이 약속은 SDG17, 세부목표 17.2의 일부로서 이미 만들어졌다.

## 제2차 세계영유아교육회의 결과문서: 타슈켄트 선언

### ❖ 유아 보육 및 교육 변혁을 위한 타슈켄트 선언 및 행동 약속

2022년 11월 16일

선언문

#### 서문

---

1. 우리 회원국 장관과 수석대표를 포함한 대표단, 유엔 기구 및 개발협력기구 대표단, 시민사회단체, 교원 및 교육 전문가 대표들은 세계유아보육·교육회의(WCECCE)를 위해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2022년 11월 14~16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모였다.
2. 유네스코와 우즈베키스탄 정부 및 국민들에게 이 행사를 주최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 회의의 목표는 (1) 0~8세의 모든 아동이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ECCE)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하고, (2) 정치적 약속 및 실행을 재차 강조·강화하며, (3) 권리 기반의 포괄적인 ECCE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회원국과 국제사회를 더욱 결집시키고,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ECCE 시스템 및 다중 이해관계자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평생학습, 지속가능발전 및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전략의 필수적이고 통합된 부분으로서 공적개발원조(ODA)를 포함하여 ECCE에 대한 공평하고 효과적인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3. 이 회의가 2022년 9월 유엔 교육정상회의(Transforming Education Summit, TES) 이후 첫 번째 고위급 정부간 교육 행사임을 주목하고, 유엔 사무총장 비전 성명, 청년 선언 및 TES에서 도출된 6 가지 행동 요청을 인식한다.
4. 많은 국가 및 국제 교육 정책 의제에서 ECCE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음을 인식하며, 2010년 제1차 WCECCE에서 채택된 모스크바 행동강령에서 회원국이 승인한 약속과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4(교육2030의제, 특히 SDG4.2)에서 정한 목표를 이행하는 데 있어 진전이 부족했음을 인정한다.

5. 발달 및 학습의 불평등과 격차가 일찍 시작되고 평생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질의 포괄적인 ECCE에 대한 접근은 모든 어린이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복지와 전체적 발달, 기초학습 및 평생학습, 성평등 및 사회적 형평성,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한다.
6. 지역사회와 가족을 약화시키고, 영유아의 안녕을 위협하고, ECCE 제공과 질을 제한하며, 특히 이미 취약한 계층의 유아 프로그램 등록을 감소시키는 갈등, 비상사태 및 위기의 심각성과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특히 (1)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상당한 발달 및 학습 손실이 발생하여 긴급하고 포괄적인 학습 회복 전략이 필수적이 되었고, (2) 기후 변화의 영향이 영유아의 양육 및 기초 학습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연을 사랑하는 미래 주체로서의 권한 부여와 급변하는 범지구적인 도전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가치가 모두 필요하다.
7. 지역 협의와 WCECCE 배경 보고서에서 확인된 성과, 과제 및 전망에 주목한다. 여기에는 SDG 4.2 이행을 향해 이루어진 중요한 진전과 파편화된 정책, ECCE 제공자의 제한된 규제 및 조정, 충분하지 않은 공공 제공 및 만성적인 자금 부족과 같은 남은 과제가 포함된다.
8. (1) 영유아의 보호와 권리를 포함하는 ECCE에 관한 기존의 국제 규범 및 기준 설정 문서들, (2) 1990년 태국 줌티엔에서 채택된 “배움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다(learning begins at birth)”는 개념을 강조한 ‘모두를 위한 교육 선언’, “특히 가장 취약하고 불우한 환경에 처한 아동을 위한 포괄적인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의 확대 및 개선”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촉구한 세네갈 다카르에서 열린 2000년 세계교육포럼을 포함한 국제적인 선언들, 그리고 (3) 기타 다양한 선도적인 국제적, 지역적 이니셔티브 및 선언문들을 상기한다.
9. 명확한 ECCE의 범위와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기는 8세까지의 시기를 포괄한다. (2) ECCE는 기초 학습, 반응적 돌봄, 영양, 건강, 안전, 보호 및 놀이가 필요한 초기 인지 및 사회적 발달을 포괄하는 아동 발달의 전체론적 특성을 인식한다. (3) ECCE는 개인의 안녕과 학습 능력, 취학 준비, 학업 성취, 평생학습, 의미있는 고용에 기여하며, 사회적으로는 양성평등 증진, 지속가능발전 및 세계 시민의식에 기여한다.

## 변혁적 ECCE를 위한 이행원칙 및 전략

10. 국제적인 협의와 WCECCE 배경 보고서에 제시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ECCE의 긴급한 변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이행원칙과 전략을 채택한다.

### 11. 모두를 위한 공평하고 포용적인 양질의 ECCE 서비스

- I ECCE 커리큘럼 및 교수법의 관련성과 질 개선: 풍요로운 삶과 사회를 위한 초석이 되는 ECCE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ECCE 커리큘럼과 교수법은 다국어 교육과 모국어 교육 축진을 긍정하는 아동 중심, 놀이 기반의 완전히 포용적이며 환경 및 성 인지적 학습 접근법을 개발하기 위해 현지 지식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또한 커리큘럼과 교수법은 아동이 어떻게 발달하고 학습하는지에 대한 과학 및 문화의 최신 발전 정보를 반영해야 한다.
- II 가장 취약한 아동을 우선시하여 모든 아동을 위한 공평하고 포괄적인 양질의 ECCE 서비스 보장: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취약하고 소외된 아동, 가족 및 지역사회에 도달하여 그 필요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 III 비상사태 및 장기화된 위기 상황에서 ECCE에 대한 지속적인 권리 보호 및 보장: 아동과 ECCE 서비스는 분쟁 및 자연 재해 등의 위기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프로그램은 교육과 돌봄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정서적 안녕과 트라우마 정보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아동과 그 가족이 미래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회복력을 기르도록 도와야 한다.
- IV 모든 아동이 양육 돌봄을 받도록 보장: 영유아기는 신체적, 사회 정서적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시기이다. 양육 돌봄은 건강, 최적의 영양, 안전, 조기학습 및 일차 돌봄 제공자의 반응적 돌봄에 대한 요구를 아우른다.
- V 적절한 ECCE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구축: ECCE 정책, 환경, 서비스, 프로그램, 실행은 권리, 과학적 증거 및 모든 이해관계자와 아동의 관점이 통합된 국가 기준 및 규정에 따라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VI 모든 아동의 어려움과 필요를 인식하고 아동이 성장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 조기개입 프로그램 도입 및 강화: 위기에 처한 학습자를 위한 영유아 조기개입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이를 즉각적이고 적절한 지원 및 후속 서비스와 연결하여 보다 포괄적인 정책을 설계하고 구현해야 한다. 이러한 개입은 아동을 낙인찍거나 환자로 여기지 않고 아동의 특정 능력과 필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러한 조기개입에는 후속 조치를 포함하여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 Ⅶ ECCE 내에서의 전환 및 초등교육으로의 전환 개선: 양질의 ECCE 프로그램은 아동의 발달, 학습 및 복지를 지원하는 기초 학습 및 사회 정서적 스킬을 제공한다. 최소 1년의 양질의 무상 의무 ECCE를 보장하면 취약계층 아동이 초등교육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Ⅷ 유아기부터 평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강화: 어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하고 자신과 환경을 이해하는 집중적인 과정에 참여한다. 기후 변화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지식, 기술, 가치 및 태도를 개발하면 학습자는 현재와 미래의 평화 및 지속가능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12. ECCE 인력

- I ECCE 인력의 교육 및 훈련 시스템 강화: ECCE 인력의 훈련은 양질의 교사 교육 및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의 테두리 내에서 통합되어야 하며, 사전 학습과 경험적 학습 인정과 같은 대체 경로를 포함한 ECCE 전문가 인증제도를 허용하는 기준 및 자격 제도로 보장되어야 한다. ECCE 인력 교육 훈련을 위한 커리큘럼과 교수법은 교육 과학의 최신 발전 정보를 반영해야 하며 증거 기반, 포괄적, 다문화 및 성 인지적이어야 한다. ECCE 인력은 상황에 맞게 배치되고 문화적으로 관련이 있으면서도 기후 변화, 분쟁, 위기와 같은 세계적인 도전과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을 통해 ECCE 종사자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을 포함한 학대 사례의 피해자를 식별하고, 돌보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아동, 특히 소녀들에게 성·재생산 권리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II ECCE 직업의 매력을 높이고 경력 개발의 기회 제공: 새로운 인재 유치와 인력 감소 억제를 위해 ECCE 직업의 위상과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야 한다. ECCE 인력의 임금 및 근무조건은 최소한 초등교사와 동등해야 하며 계약조건은 안정적이어야 하고 경력 발전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 ECCE 종사자 단체 및 대표성, 사회적 대화 및 단체 교섭권을 증진하는 것은 ECCE 인력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ECCE 직종은 취약 계층을 포함하여 사회와 공동체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ECCE 부문의 여성화는 사회에 존재하는 아동의 돌봄, 교육 및 양육의 책임과 관련된 성 편견 해결을 위해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III 비정부 부문의 ECCE 인력에 대한 규제: 많은 국가가 특히 3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ECCE 제공을 비정부 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문은 서비스 품질과 종사자의 자격, 계약 및 근무 조건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IV 부모, 가족 및 기타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배움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부모, 가족 및 기타 돌봄 제공자의 가치를 인정해야 하며,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기반 육아 지원 프로그램, 직장-가정 조정 방안, 재정 지원

및 교육 기회 등을 통해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부모를 위해 가족 친화적 공공정책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추후 학교 교육과 평생학습을 위한 양질의 ECCE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와 가족의 인식 제고, 아버지와 남성의 반응적 돌봄 참여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된다.

### 13. 변혁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

- I ECCE 정책 및 실행을 혁신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과학적 증거 활용: 교육, 건강, 취업의 결과와 빈곤 감소에 있어서 유아기의 중요성은 인지 및 발달 심리학, 경제 및 사회 과학에서 축적된 증거로 나타난다. 보다 최근에는 신경과학이 생애 초기에 발생하는 중요한 두뇌 발달을 보여줌으로써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발달하고 성장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ECCE를 변혁하려면 연구원, 정책 입안자, 실무자, 가족 간의 강력한 파트너십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연구, 증거 및 현지 지식을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과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 II 디지털 기술에 대해 공평한, 포용적, 비간섭적, 안전한, 윤리적인 접근 허용 및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 보호 보장: 디지털 기술은 특히 소외되고 접근하기 어려운 아동에게 다가가기 위해 ECCE를 혁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 팬데믹 동안 실시된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디지털 기술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은 기존의 교육 및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영상에 대한 과도한 노출은 아동의 정신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오용은 사이버 폭력, 온라인 학대, 불법적이거나 혐오스러운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노출과 같은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는 거버넌스 체계와 디지털 기술 관련 정책, 실행,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개인 정보 수집 및 공유와 아동의 안전에 관한 윤리가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 III ECCE 학습 공간, 실습 및 제공 다각화: 모든 아동은 가정, 지역사회, 놀이터, 박물관, 도서관, 주변에 있는 기타 장소 등 학교 안팎에서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 빈곤층 아동, 외딴 지역 또는 시골 지역의 아동, 원주민 아동, 유목민 아동, 장애 아동 또는 위기의 영향을 받는 아동과 같이 소외되거나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은 각자의 특정 상황과 필요에 맞게 조정된 양질의 ECCE 모델이 필요할 수 있다.

### 14. 정책, 거버넌스 및 재정

- I ECCE 정책 개발, 제공 및 조정에 대한 범정부적, 다부문적, 통합적 접근 보장: ECCE의 다차원적인 측면은 거버넌스, 자금 조달 및 정책 개발에 있어 부처 간 기구 등과 같은 통합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 ECCE는 국가 및 지역 차원의 교육, 보건 및 사회 개발 정책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비용과 자금이 조달되어야 한다.

- II ECCE를 위한 재정 자원 보호 및 동원: 공공 지출 증대 및 비영리, 민간, 사회 부문 등과의 잘 조화된 파트너십을 통해 ECCE 재원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 ECCE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고 이를 보다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할당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적인 재정 지원 메커니즘을 모색하려면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ODA가 공공 정책의 이행을 지원하고 ECCE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도록 법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 III ECCE 정책, 실행 및 프로그램의 데이터, 모니터링, 평가 개선: SDG4.2 이행을 모니터링하려면 서비스 제공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ECCE 자금 조달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 및 국가하위 교육관리정보시스템(EMIS)을 개선해야 한다. 적시에 정확한 방식으로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려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 IV 교육권에 ECCE가 포함되도록 정책 및 법적 체계 강화: ECCE는 모두를 위한 교육권을 달성하고 다른 사회적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핵심이다. 따라서 ECCE 서비스의 가용성, 접근성, 적응성 및 수용가능성이 정책 및 법적 체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모든 아동이 취학 전 최소 1년 무상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 유아 보육 및 교육 변혁을 위한 행동 약속

WCECCE 참가자인 우리는 타슈켄트 선언에 요약된 원칙과 전략에 따라 영유아 보육 및 교육 변혁을 위해 다음 조치를 적절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행에 대해 모니터링, 검토, 평가를 실시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 및 국제 파트너들에게 유아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전략 2021-2030(Global Partnership Strategy (GPS) for Early Childhood 2021-2030)에 명시된 ECCE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던 2021년 1월 유네스코가 소집한 고위급 정책 대화를 기억하고 인정한다.

### 15. 회원국

- I 정책 및 법적 체계를 추가적으로 개선하고 이행함으로써 모든 아동, 특히 가장 취약한 아동이 포괄적인 양질의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모두를 위한 취학 전 최소 1년 무상 의무교육을 장려하고(SDG 세부목표 4.2), ECCE 제공을 점진적으로 늘리며,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아동에게 공평하고 유연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포용성과 성평등을 우선시하겠다는 인천 선언의 약속을 상기한다.

- II 모든 ECCE 인력의 채용, 자격 및 근무 조건을 포함한 ECCE 시스템을 강화하고 규제 및 질 보증 체계를 개선하여 ECCE의 자격, 인증, 임금 및 지위가 적어도 초등학교 교사와 동등해지도록 정책 및 개입을 위해 노력한다. 모든 부모와 돌봄 제공자를 위한 증거 기반 육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 III 모든 아동을 위한 기초 문해력, 수리력, 사회 정서적 스킬을 포함한 양질의 학습을 보장하여 모국어 교육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정식 초등 교육으로의 전환 및 발달을 촉진한다.
- IV 아동이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감염병, 민주적 가치 약화 및 인권 침해와 같은 현재와 미래의 범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량, 가치, 태도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ECCE 지원을 보장한다.
- V 과학적 증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커리큘럼과 교수법을 더욱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발전에 충분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아동에게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한다.
- VI 인천 선언과 파리 선언의 교육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약속을 상기하고, SDG4.2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ECCE 재정을 늘리고, 특히 교육 지출의 최소 10%를 유아 교육에 할당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ECCE의 공공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고 방향을 바꾸어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계층에 초점을 맞춘다.
- VII ECCE 정책 및 전략을 양질의 ECCE 제공, 서비스, 프로그램 등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ECCE 계획 및 예산에 대한 법정부적, 부처간 및 다부문적 접근 방식으로 통합하고 강화한다.
- VIII 역량을 강화하고, SDG4.2, 특히 ECCE에 대한 회원국의 SDG 4 세부목표 및 기타 ECCE 관련 SDG 지표 달성을 향한 진행 상황에 대한 정기 보고를 개선하여 유네스코통계원에 제출한다.

## 16. 국제사회 및 비정부 이해관계자

- I 2021년에 공동으로 개발되어 출범한 글로벌 파트너십 전략(GPS)의 정신에 따라 기관 간 협업 및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 강화한다.
- II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 ECCE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 원조를 동원·강화하고, ‘글로벌교육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교육은 기다릴 수 없다(Education Cannot Wait)’와 같은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ECCE가 포함되도록 한다.
- III ECCE 및/또는 증거 기반의 비용 효율적인 ECCE 개입 확대를 위해 추가적이고 보다 공평하며 효율적인 재정 자원 할당을 동원하는 국제 혁신 자금조달 메커니즘을 회원국 동의 하에 촉진·지원한다.

- IV 이 선언의 이행원칙과 전략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시기적절한 양질의 보고 및 모니터링을 보장하고, 지원이 필요한 국가를 위한 역량, 도구, 지침을 개발하며, 데이터 정보에 입각한 증거 기반 정책 수립 및 이행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ECCE 시스템을 지원한다.
- V 유네스코가 주도하는 ‘교육권 발전 이니셔티브(Evolving Right to Education Initiative)’의 맥락을 포함하여 법적인 국제 도구를 통해 ECCE에 대한 권리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검토한다.
- VI 국제 협력과 연대를 위한 대화를 진전시키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화하며, 유럽, 중앙 아시아, 아랍 국가, 아시아 태평양,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및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에 대해 ECCE만을 위한 국제, 지역, 국가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촉진하고 지원한다.

## 17. 유네스코

- I 국가와 국제사회를 동원하여 이 행동 약속이 실행되도록 하고, ECCE 발전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이자 혁신가로서 시민사회단체, 비정부기구 및 국제 비정부기구의 활동이 잘 알려지도록 만든다.
- II SDG 4 글로벌 조정 메커니즘에 ECCE를 포함시키고, TES 이니셔티브 및 플래그십의 작업과 프로그램에 ECCE를 넣은 것을 옹호한다.
- III SDG 세부목표 4.2 이행을 위해 국제/지역 조직과 네트워크 및 지원 국가, 특히 가장 도움이 필요한 국가가 협력적이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격려하고 촉진한다.
- IV 성과평가체계(Results Framework)를 통해 개발 파트너가 GPS를 운영하도록 동원한다.
- V 서비스와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성과가 기대되는 실행과 혁신적인 솔루션을 소개하고 지지하는 ECCE상 신설 가능성을 조사한다.
- VI SDG 실무자문그룹과 협력하여 조기 아동 발달 지수(또는 다른 적절한 지수)를 추가로 개발하여 SDG 세부목표 4.2에 대한 모니터링을 개선한다.
- VII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은행 및 기타 조직과 협력하여 SDG4.2 이행 상황에 대한 연 2회 공동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글로벌 교육 모니터링 보고서 및 기타 ECCE 관련 지표를 보완한다.
- VIII 국제협약에서 ECCE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적합성 및 필요성을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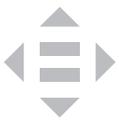


## 2022 대한민국 SDG4 이행현황 보고서

**발행일** 2023년 6월 15일  
**펴낸곳**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펴낸이** 한경구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전자우편** ap.center@unesco.or.kr  
**웹사이트** www.unesco.or.kr

**ISSN** 2983-0915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행물등록번호** ED-2023-RP-3

**집필** SDG4-교육2030협의체



ISSN 2983-0915